

시로 읽는 성보순례
피리부는 탑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15일) · 주간

제 916호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움이 없다
너희들도 마땅히 정진하라
작은 물도 흐르면 바위를 뚫는다.
「불유교경」

불교계 근대문화재 등록 움직임 본격화

조계종 문화부, 공주 신원사 등 3건 지정 추진

한국불교에 산재된 근대 문화유산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괘불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다. 본래는 건축물,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의복, 한글연구자료, 잡지 · 신문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에 조계종 문화부가 등록 문화재로 추진하는 3건의 성보들도 근대 미술 사조가 반영된 예술작품이다.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은 한국 최초 서양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의 작품으로 그는 금산사 미륵전 대불과 법주사 대불도 조성한 바 있다.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은 한국 원로 서양화가 오지호(1905~1982)가 조성했다. 오지 호는 인상파 계열의 한국 현대회화를 완성한 인물로 그가 조성한 불교 탱화로는 광주 원효사의 탱화가 유일하다.

진주 의곡사 괘불도 전통과 근대 형식이 조화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곡사의 괘불은 월북 동양화가 정종여(1914~1984)가 조성했으며, 정 화백은 해인사 등지에서 불교 공부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지난 6월부터 '등록 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 화가 불교 작품 위주
올해 안 문화재 등록 목표
목록화 · 연구 사업도 추진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부는 현행 등록문화재의 제도를 분석하고 전국 사찰에 소장된 동산분야 근대문화재 1만여 점을 목록화 했다.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등록문화재 지정 사업은 그간 소홀했던 근대 조성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천주교, 개신교에 치중된 등록문화재를 불교계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실제 폭 넓은 불교계 근대 유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최근 발간한 〈근.현대 시기 의생활분야 유물 목록화 보고서〉에서도 성철 스님이 40년 간 스님이 직접 기워 입은 무명으로 만든 솜누비 두루마기와 고무신과 덧버선, 율사 자운 스님의 승복이 목록에 올랐다. 당대 고승들의 의복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스님들의 수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의복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시기 의생활분야의 중요 유물은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하고, 현대 시기의 유물은 앞으로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예비문화재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근대는 현대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문화재청도 등록문화재를 기존 건축물에서 예술작품, 의복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불교 역시 근대에 조성된 문화재급 성보와 문화 자료들이 많은 만큼 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단에서 동산 분야만 조사를 했으나 추후 부동산 분야까지 조사 · 목록화해 중요 근대문화유산은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비구 대덕 및 비구니 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새로운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요익중생과 사회구제에 헌신할 것을 서원했다.

"초발심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2, 3급 법계 품서식… 요익중생 서원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대덕 · 혜덕(2급) 법계와 중덕 · 정덕 법계(3급) 품서식을 1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2급 법계를 받은 비구 52명 비구니 37명 등 총 89명의 스님들은 교육원에서 시행한 2급 승가고시 합격자들이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 후 20여년 동안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한 그대들의 공부가 한국불교의 역량"이라며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을 다시 오롯이 새겨 종단의 수행법인 간화선의 선풍을 널리 펼치라"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2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에 강동하며 새겼던 생생한 초심을 잊지 말라"며 "종단의 중심이자 변화의 핵심으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후 1시에는 3급 고시 합격자인 중덕 · 정덕 법계품서식도 열렸으며 509명이 법계를 받았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갓바위 연등설치 불법 아니다"

경산시가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지시했던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이라고 판정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는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임시시설물과 관련하여 총무원 문화부의 질의에 대해 11월 19일 "선본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 가설물(연등설치)은 고정시설물이 아니며, 따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문화재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 불교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물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청은 "고정시설물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승만부인처럼 당당한 여성불자 되길"

불교여성개발원, 승만보살 10대원 1000일 정진 회향

승만부인처럼 당당한 여성불자가 되길 서원하는 승만보살 10대원 독송 정진이 1000일을 맞았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 승만경연구회는 1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 1000일 회향 수계식 및 승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계사로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오늘은 수행 1000일을 회향하는 뜻 깊은 날이다. 그동안 자신의 수행정진을 되돌아보며 수행발심의 새 뜻을 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8년 〈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채택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승만경〉을 공부하는 승만경연구회를 만들었다. 이후 '승만보살 10대원'을 수지 독송하고 실천하기로 하고 2010년 2월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을 시작했다. 회원들에게 10대원 카드를 나눠주고 매일 10대원을 독송하게 했다. 지금까지 승만경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6기까지 배출했으며 수료생은 108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승만경 강좌 2~6기를 모두 수료하고 1000일 동안 빠짐없이 승만보살 10대원 독송을 해온 권화순(58) 씨가 호계증을 받았다.

권 씨는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읽으며 생활에서 10대원의 삶을 실천하려 했다"며 "1000일 동안 수행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부 산 : 부산지역 일원
- 충 청 : 충청남북도 일원
- 제주도 전지역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14 팩 스: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916호 INDEX

종합 2·3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
한마음선원 어린이 저널 창간
금강경 독송회 16년간 보시

시방세계 5
서옹 스님의 '참사랑 운동'



신행 6
변화의 중심 전등사 ② 신행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알 림

본사 이재진 부산지사장은 2012년 11월 13일부로 계약해지 되었음을 알립니다.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삼층석탑



피리부는 탑

박수현

거친 풍랑에도
대종천 타고 삼층석탑 올라
만파식적 그리 깊이 부셨나요?
천년 사직 넘나드는
열두 가락에
호국의 뜻 담아 띄우셨나요?
다시 천년 후, 그 밤에도
검푸른 바닷길 트며 돌아오신다지요
그때, 용의 비늘은 시퍼렇게 살아나고
화랑들 말발굽소리 천지를 울리겠지요
우뚝한 동서 쌍탑도
뜨거운 가슴 열어 피리를 불겠지요
춤추며 한 몸이 되겠지요

해와 달로 빛나는
수중대왕이시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박수현 시인은… 경북 대구 출생. 2003년 〈시안〉으로 등단. 시집 〈운문호 붕어찜〉 등.

"근대는 연결고리… 관련 조사·연구 필요"

불교계 근대 문화재 등록 추진 의미와 과제는

불교계가 근대 등록문화재 지정 사업을 본격적 추진하기 시작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지난 6월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추진·완료하고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화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괘불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 사업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은 그간 미비했던 불교계 근대 문화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불교계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불교문화재가 한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한말부터 조성된 불교 문화재들은 대다수 '일제의 잔재'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3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시작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기독교였다. 12년 동안 시행된 사업에서 총 5백여 건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그중 38건이 기독교 유물, 유적들이다.

불교의 등록문화재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을 비롯해 남양주 대흥사 대방, 만공선사 사리탑, 진관사 태극기 등 총 6건에 불과하다. 이중 구 동국원사 목포별원은 현재 목포 중앙교회로 사용되고 있고, 경주 구 서경사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근대문화재는 38건
불교는 고작 6건… 관심 시급
100년 내 문화도 재평가해야
역사 연속성 활용할 방안 마련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 개선과 연구 조사를 통한 근대 문화재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동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김항기 씨는 '등록문화재 제도 및 현황 분석'이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에서 "전국 사찰에는 수많은 근대 불교문화유산이 남아있지만, 관리 소홀로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대 문화재 가운데 근대 불교사에 중요한 산물이나 현대로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 불교문화재는 역사·문화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대에 조성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화가 필요하며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 시스템 정립과 활용 방안도 숙제"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기독교에 치중돼 있다. 불교도 같은 시간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이 과정이 담긴 유물,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필요하다. 종단에서 처음 동산분야 근대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목록화 작업을 시행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단에서 근대 불교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불교학계의 체계적 연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시대별 근대 등록문화재 현황

종교별/시대별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	계
불교		5	1	6
천주교		11	10	21
개신교		14	3	17
기타	1	10	3	14
계	1	40	17	58

"불교에 보탬되는 일 하겠다"

자승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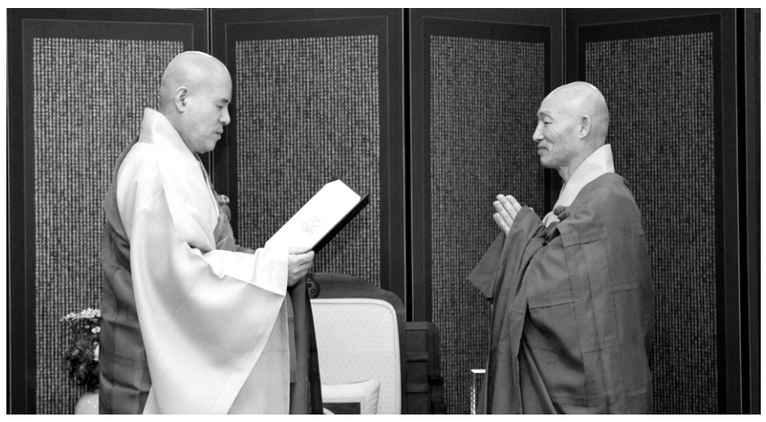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지사 신임 주지 흥선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 직후 자승스님은 "흥선 스님이 있는 동안 불교중앙박물관이 너무 잘 운영돼 왔다"며 "다시 어려운 소임을 맡아줘 감사하다. 직지사는 그동안 대작불사를 선도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관리와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흥선스님은 "박물관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에 걸린다"며 "종단과 불교 전체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흥선스님은 1974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출가 이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해인사승가대에서 수학하던 중 탁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30년간 금석학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직지사 신임주지에 흥선 스님을 임명했다.

"분노 불신 넘어 화합의 길 가야"

주경 스님, 선재 포럼 종교인 대화서

새누리당 불교 조직 선재포럼이 주최하는 종교인 대화가 11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민 통합과 행복을 위한 종교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개신교 정신문화연구소 고병철 박사, 민족종교 김재완 사무총장, 천주교 서명원 신부 등이 참석했다.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주경 스님은 "종교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오늘날 우리 종교는 상대방 종교를 불신하고 있으며 종교적 편향 등의 문제로 사회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종교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분노 불신 등을 제거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톨릭 서명원 신부는 각 종교계가 종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신교 고병철 연구원은 종교간 대화가 이론적·제도적·실천적 측면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민족종교 김재완 사무총장은 종교간 내부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토론은 종교갈등 진단, 화합 상생의 길, 사회 문제, 행복 추구 등의 소주제를 골자로 각 종교계 대표들이 토론을 펼쳤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교수 아사리 위촉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13년 조계종 교수아사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위촉분야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참여불교 등 5개 분야이며, 신청 자격은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를 수지한 승납 15년 이상의 스님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와 함께 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는 매년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종단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담당하거나 종단의 승가교육기관에서 학인스님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Buddhist Meditation from Ancient India to modern Asia)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불교는 전체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하지 못했던 남방불교, 동아시아불교, 티벳불교 등과 같은 지역적 구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교학적으로나 수행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글로벌한 종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명상이야 말로 사상적, 지리적 구분을 떠나서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아시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참선하는 것을 금강산에 직접 가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철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아시아 각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불교의 명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참선하라는 큰스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교의 명상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11월 29일(木) ~ 30일(金) **✲ 장소 : 동국대 덕암세미나홀**

학회일정

11월 29일(목요일)
09:00 개회식

기조발표 (사회: 조성택 교수)
10:20 피터 스킬링: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
11:00 로버트 버스웰: 간화선과 동아시아불교, 동아시아의 독특한 명상법의 기원과 수행

제1부 고대 인도 (사회: 우제선 교수)
13:00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초기불교명상
13:40 알렉스 위너: 브라만전통과 불교의 명상
14:20 정덕 스님: 디비아바다나에 나타난 인도불교의 명상

제2부 동남아시아 (사회: 허남결 교수)
15:20 케이트 크로스비: 테라와다 불교와 명상
16:00 아티드 세라바닉쿨: 탁신왕은 미쳤는가 위대한 보살인가 – 탁신왕의 전설에 나타난 명상의 중요성

11월 30일(금요일)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벳 (사회: 김성철 교수)
10:00 제레온 코프: 황소와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를 인도하는 수행에 관한 주석
10:40 혜원 스님: 당송대 선(禪)의 개오에 관한 인식 변화
11:20 아힘 바이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티벳불교 명상전통에 나타난 돈오적 요소

제4부 한국 (사회: 미산 스님)
13:20 찰스 뮬러: 사견에 관한 선(禪)의 관점, 과연 우리는 그릇된 견해를 제거할 수 있을까!
14:00 윤원철: 한국불교명상과 돈오돈수
14:40 서명원: 성철 스님의 명상
15:40 종합토의 및 총평 (수치트라 & 황순일)

문의_ 02)2198-5100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2012 우수교양도서에 불교 도서 3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선정하는 2012 올해의 우수교양도서에 〈사찰의 상징세계〉(자현 스님 · 불광출판사刊)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주경 스님 · 마음의 숲 刊), 〈경전숲길〉(정운 스님 · 조계종출판사) 등 3권의 불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 책들을 포함한 279개 출판사의 도서 418종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1968년부터 국내의 양서 출판 진작을 위해 '우수교양도서' 선정 ·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철학, 예술, 아동 · 청소년 등 총 12개 분야의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올해는 887개 출판사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도서 총 5143종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12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71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단은 40일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을 거쳐 279개 출판사의 도서 418종을 최종 선정했다. 또 선정도서 중 독창성과 대중적 가독성 등을 고려해 5% 내외의 최우수도서를 선별했다.

최우수도서에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이병훈 지음, (주)문학동네 펴냄)'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김희준 지음, 생각의힘 펴냄)' 등 19종이 선정됐다.

선정도서는 종당 각 500만 원(최우수도서는 75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연말까지 공공도서관, 벽지 초 · 중 · 고등학교, 병영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2천여 곳에 배포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인권상 일본 묘법사 수상

11월 21일 조계사서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18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11월 21일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산 묘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교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는 "반핵반전 운동과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묘법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묘법사는 과거 일본이 조선에 가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활동을 실천하였으며, 매년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조선인 위령탑에서도 위령제를 진행하는 등 평화인권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불교 · 사회 접점 찾는 언론 발굴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교계 기자 첫 언론인상

올해 20주년을 맞은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에 본지 최정희 편집이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본지 편집국의 '서원의 종교 불교 - 함께 행복합시다'(연중기획 '나의서원 나의신행')'는 신문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과 사단법인 보리는 11월 21일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KBS 1TV의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가 선정됐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금강신문 남동우 기자의 '장인을 찾아서'가, TV부문에는 아리랑TV의 'Arirang Prime - Christ meets Buddha'가 최우수상, SBS의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 법륜스님 편'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본지 '나의 서원…' 우수상 영예

1992년 보리방송상으로 시작

110여작 수상… 대표 언론상 '우뚝'

보리방송모니터회가 1992년 제정한 이래 불교언론문화상은 사회에 불교를 알리는데 노력한 방송인들과 단체들에게 수상돼왔다. 현재 불교계 대표언론상으로 자리잡은 불교언론문화상은 처음 한 사람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KBS방송작가로 일하던 故김재일 (사)보리 이사장은 1989년 '언론이 종교편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불자들의 성토를 듣고 고민 끝에 1990년 3월 보리방송모니터회를 창립했다. 2년 뒤 1992년 탄생한 것이 '보리방송문화상'이다.



올해 불교언론인상에 선정된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선정된 KBS 1TV의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의 한 장면.

보리방송문화상은 1993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2004년 제12회까지 시상됐다. TV와 방송 부문에 한정됐던 보리방송문화상은 2005년 불교언론문화상으로 이름을 바꾸며 신문부문을 신설하고 2006년 출판부문, 2008년 인터넷부문을 시상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춰 분야를 넓혔다. 보리방송문화상과 불교언론문화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2007년 대상 '차마고도' 2009년 대상 '출가, 그 후 10년', 2008년 신문부문 최우수상 '하늘이 감춘 땅',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BBS거룩한만남 900회' 등 110여 작품에 이른다.

2011년 신문 심사를 맡았던 김무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불교언론문화상 20년을 축하하며 "불교와 사회의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불교언론이 무애와 원융의 열린사고로 사회 등불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의 불교언론인상 수상은 불교언론의 기자 출신으로서는 최초다.

최정희 편집이사는 1975년 불교신문 공채 기자로 불교언론에 몸담은 이후 불교신문 취재부장, 편집부국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편집국장을 역임하는 등 40년 가까이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문화 · 출판 전문기자로 불교문화 우수성을 기획 발굴 보도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 편집이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불교방송 BBS 초대석, 자비의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로 복귀해 불교신행과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불교전설99〉와 〈잘사는 법 99〉가 있다.

"뜻밖의 선물이라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최 편집이사는 "일할 수 있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을 축하하며 불교언론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음식 판매수익금으로 티베트 돕는다"

금강경독송회, 아름다운 동행에 500만원 전달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1월 21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에 티벳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번 자비나눔기금은 금강경독송회의 회원들이 직접 생산하는 메주, 된장, 참기름과 옷가게 등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해 눈길을 끈다. 이 기금은 티베트 다람살라 지역의 NGO단체를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금강경독송회는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티베트 다람살라 지역의 불우이웃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매년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한다.

김재웅 대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앞장서며 꾸준히 불우이웃을 도와왔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500만원의 기금을 후원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후원동기를 밝혔다.

한편,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김재웅 대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수행단체로 1973년 설립돼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1월 21일 아름다운동행에 티벳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사진 오른쪽이 김재웅 대표.

문재인 ·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 연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에 대한 불자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재가불자들은 11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재가불자 108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대신 그가 새로운 정치토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최소한 국민의 열망을 쉽사리 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자들도 11월22일 오후 2시30분 민주통합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민족화해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갈등 해소, 함께 잘살기 위한 경제민주화 기조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유일한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임을 확신한다"며 "1500 불교활동가들은 종교간 화합,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대표자들도 이날 민주통합당사에서 모임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불자 1080인' 모임은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선언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월간지 '마음꽃' 창간

한마음선원, 11月 창간호 발간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공부 잡지가 창간됐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어린이저널 '마음꽃' 11월 창간호를 발간, 어린이들이 마음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꽃'은 30여 페이지로 구성됐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 △응답하라, 너울샘 △아무나 쓰는 이야기 △ 내 마음의 물뿌리개 △Tea With Chong Go Sunim △생각쟁이들의 마음상자 등 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그리는 코너를 비롯해 이메일로 고민을 상담하고 답변을 듣는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됐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 스님 말씀'에서는 대행 스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들려준 법문을 수록했다. '아무나 쓰는 이야기'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고 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놓는 관(觀)노트를 넣어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한마음선원 편집실로 영어 일기를 보내면 청고 스님이 첨삭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코너도 마련됐다.

한마음저널측은 "불교 상식을 전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보편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선 · 악업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에서 11월호로 창간한 불교 어린이 잡지 '마음 꽃'은 매월 1회 발간된다.

'마음 꽃'은 매월 1회 발간될 예정이며 정기구독은 한마음저널 편집실에 문의하거나 이메일(maum2012@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031)470-3180

이나은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행

(사)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자함〉

종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혜원 (봉광사)
무진 (용수암 011-864-3369)
청수. 일파
중앙종회사무처장 용현 (극락정사 010-2531-1961).
중앙종회의원 수경 (백련암). 범주 (몽불사)
진우. 진여. 진설. 혜덕
중앙포교단장 덕인 박근호 010-9868-6390
포교단총무 법광 (무량사 010-9316-4438)

중앙종회의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포교원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교육원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호계원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호법원장 법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향 소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4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심 성도
공동봉행위원장 운암
공동봉행위원장 혜명 범우

비구니회회장 혜명 법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무부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찰부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규정부장 법승 (051-516-4494)
재무부장 묘향 반야라마 (010-8620-4303)
문화부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감사부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

■ 장소 :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 일시 :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종지 종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법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왕사 010-4148-2402)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501

일 주 문



6사단 수계법회 봉행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1월 18일 5군단 6사단을 방문해 장병 330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개최했다.



법타 스님 복지관 특강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연한다. (02)362-3348



제35기 단기출가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8일까지 제35기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033)339-6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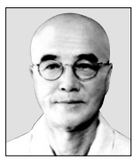
제9기 자원봉사자 교육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제9기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한다.



혜자 스님 송광사서 법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29일 송광사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사로 법문한다. (061)755-0108



임제불교 조계종 삼존불 점안

임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은 12월 9일 하동 삼정사에서 개원식 및 부처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도요대와 교류협력 체결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1월 22일~25일 일본 도요(東洋)대 개교 125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양대학 교류협력을 진행했다.



〈주역에게…〉 출판기념회

수필가 맹란자 씨는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령제약 강당에서 〈주역에게 길을 묻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제10차 사회봉사의날 행사 개최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2월 1일 연꽃마을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10차 사회봉사의날 행사를 진행한다.



만해공원 조성 위한 선서화전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11월 22~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만해공원추진지금조성을 위한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02)722-1044

"뻔한 불교 아닌 Fun한 불교 만들 것"

정경연 제7대 불교여성개발원장



"'어떻게 하면 불교가 재밌을까?' 이게 요즘 저의 화두입니다."

제7대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선출된 정경연 원장(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장 · 57)은 선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경연 원장은 "불교는 재밌고 즐겁고 쉬워야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따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불교가 원하는 것"이라며 "막연한 꿈만 갖고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장 ·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리서치를 통한 데이터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갑작가'로 알려진 정경연 원장은 30여 년간 장갑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한 예술가다. 26세 때 최연소로 홍익대 미대 교수로 임용됐고, 2008년 국내 미술계 최고의 상이라 불리는 이중섭 상을 수상했다.

정경원 원장은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났다. 외조부는 효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과 참선을 공부했던 초대 사회부장관을 지낸 전진한(1901~1972) 거사이며, 어머니는 경봉 스님의 유발상좌였다.

정 원장은 성철 스님으로부터 관음행이란 법명을 받았으며, 교수불자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등에서 신행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25년 째 홍익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소임도 맡고 있다.

정 원장은 불교신행활동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일요예배가 6부로 나뉘어져 있어 언제든 참석할 수 있다"며 "불교법회도 현대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남성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예술 작품에서 재미(fun)를 지향한다는 그는 "불교가 재밌고 절에 가고 싶게 만들도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는 등 포교 방법론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연 원장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이 · 취임식을 가졌다. 12월 임기를 마치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장에 이어 7대 신임원장 및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연말연시 불자들의 따뜻함 전해요"

12월 5일 자선음악회 여는 봉은사 신도회 이경자 상임부회장



"봉은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연말연시 불자들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봉은사 신도들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이경자 서울 봉은사 신도회 상임부회장〈사진〉은 1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봉은사 신도회가 진행하는 모금 음악회 개최를 설명했다.

봉은사 신도회(회장 김종빈)는 12월 5일 오후 4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새터민 자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음악회는 봉은사 신도회가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모금' 행사의 두 번째 행사로 사찰의 예산 지원 없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라고 소개했다.

이날 모금된 기금은 탈북자 자녀를 위한 기숙형 방과후 학교인 삼흥학교의 기숙사 건립 5000만원을 비롯해 복지기관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탈북자 자녀의 수는 2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 부모들의 생계활동으로 방치된 상태"라며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삼흥학교에는 6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봉은사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불자들이 동참을 통해 지속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금음악회는 티켓구매와 별도로 '#04081' 문자메시지를 통해 1건당 3000원을 후원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불자들이 힘을 모아 나눔문화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후원계좌(국민 818501-04-04794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정원, 국제불교지도자協 지원



청정원은 11월 22일 서울 미얀마문화원에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에 김과 식용류 등 생필품세트 100박스를 전달했다.

청정원의 이번 물품 지원은 장애아동 및 독거어르신 돕기 등에 나서고 있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붓다봉사단의 소식을 접하면서 부터다. 2011년부터 청정원이 푸드뱅크를 통해 지원한 물품은 금액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번 생필품세트는 포천 장애아동쉼터인 해뜨는집에 전달된다.

회장 목탁 스님은 물품을 전달 받고 "이웃을 돕기 위한 청정원의 동참에 봉사단을 대표해 감사를 표하며, 자율적으로 김포 중증장애자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붓다봉사단 회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협 제16회 불교기자상 선정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11월 20일 오후 2012년 제16회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법보신문 기획취재팀의 '불교개혁의 키워드, 재가불자'를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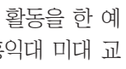
기획해설부문에는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의 '왜 제주지역 불교 성지순례길 필요한가', 취재보도부문에는 법보신문 송지희 기자의 '국내 첫 민영교도소, 선교의 장' 등 '소망교도소 관련기사'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불교기자상 심사기준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물거품이라 했지만 꼭 일어나리라"

10월 14일 | 세상 살면서 큰 보배는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누라. 모든 분 건강하고, 행복이 바로 곁에 있기를 발원합니다.

10월 15일 | 오늘도 진찰결과가 나올 가망이 없는 듯하다. 과학적 실험이 숱하게 진행되었지만, 병명이 밝혀지지 않으니, 쌍방이 서로 고민하고 있다. 빨리 병명을 밝혀, 다 함께 和緣하는 관음보살이 되어야 하리라.

단풍은 한 계절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을걷이를 하듯 몸과 마음을 추스름이 있어야 한다. 몸은 건강 마음은 수양돼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알면서 실행하지 않으니 거기에 병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월 16일 | 병상위의 고통 한없이 아프다.

10월 17일 |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암울한 병고와 견딤의 굴을 벗어나, 훨훨 털고 나가자. 다가오는 전법의 날을 위하여, 기신발보리하여야만 그대 살아있음의 존재의 四大가 보이리라. 물거품, 환, 그림자, 번갯불이라 하지만 꼭 일어나 보여주리라.

역사의 기록은 자가 정평도 필요하지만 타가의 정평이 있어야하는데, 타가 것은 무조건 깎아내리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번 동산스님 논문을 쓰다가 자료정리를 하다가 자가는 높여 정리하고 타가를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나무바로보게타불

10월 18일 | 나는 바보인가봐. 트윗은 언제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것이 안면방해가 되는 독소인줄 몰랐다. 그래서 6시, 지난 아침부터 再放하기로 정했다. 오늘도 신새벽에 간호사가 팔뚝에 바늘을 꽂으면서 할아버지는 돌부처같다고. 그쪽 마음이 자애로워 그렇지 나는 순종한 환자가 아닌가.

10월 19일 | 병에는 장사없다고 하더니, 참말인 것 같다. 환자복 입기 전과 입은 뒤 그 모습 자체가 병자로 꼴바뀜 되었다. 옷이 날개라더니 완전히 변복 입혀 병환자로 전환. 그래도 병을 이겨 극복한다는 대사를 외워 읊조리는 명배우의 배역을 능히 소화하는 미천배우 되어야 한다.

10월 20일 | 오늘은 토요일 치료시술이 없는 날. 사위가 와서 가을 소풍하자고 인사하였다. 신세지고 남 괴로힘을 하지 않음을 덕목을 삼아 살았건만, 오늘은 바꾸고 싶다. 환자중심의 나들이를 하게 되었네. 그새 가을이 와 하늘 바람이 삽상하다. 계절은 제몫을 다하구나!

희망! 열정의 포교

제 5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불기2532(1988)년 6월 법회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각 사찰의 '법회와 불교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도자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한 이래 불기2556(2012)년 겨울 5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교와 전법의 길을 묵묵히 개척하며 50회를 맞이하는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희망! 열정의 포교'라는 주제로 앞서가는 전법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습회와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50회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옆)
♥ 주 최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대 상 : 각 사찰의 법회 지도자, 실무담당자 등 (선착순 100명)
♥ 프로그램 : 패널 시어터 활용 및 실제 (이수민 : 국제공예총연합회 전문 강사)
다함께 부르는 부처님 노래 (본회 연희 율동 전문지도자)
불레협 Style (50회 기념법회 및 축하공연, 지도자 어울림 마당)
♥ 참 가 비 : 5만원 (교재, 식대, 기념품) / 입금계좌 - 국민 610301-04-132532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11월 28일까지 선착순 50명까지 무료 (1사찰 2명까지) / 51명 ~ 100명 50% 할인
♥ 접수 및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02)738-7860, 739-4967 본회 사무국

제 5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후원도 받습니다. ^^
입금계좌 - 신한 100-022-244229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 경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1.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2.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3.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파악)**
5.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6.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 숨은 영가**
7.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분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8.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9.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청, 환시, 무속병, 무속인 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10.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집착질병호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함 추구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
11. **죽은 영혼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12.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13.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이해함**
14. **수행에 진전이 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싶은분, 내안에 길 찾고 싶은 분**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침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서옹 스님 유묵 '일일시호일 일원상'



서옹 스님의 '참사람운동'은 수행을 통한 개인 성품 발현으로 사회 갈등과 투쟁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평화 · 수행결사였다.

서옹 스님 연보

1912년 10월 10일(음) 충남 논산 출생
1932년(21세) 백양사로 출가, 만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35년(24세)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백양사 강원 외전 강사
1937년(26세) 한암 스님 모시고 상원사 선원에서 탄허 고암 월하 스님과 2년 안거
1939년(28세) 일본 임제대학교 입학
1941년(30세) 일본 임제대학교 졸업, 4월 일본 묘심사 선원 입실, 3년 성만
1944년(33세) 귀국. 백양사 선원 안거
1952년(41세) 부산 선암사 선원 안거, 향곡, 자운, 석암, 홍경 스님들이 함께 정진
1962년(51세) 대흥사 주지, 동국대 대학선원장
1964년(53세) 천축사 무문관 조실
1967년(56세) 백양사 쌍계루 아래 돌다리 물살 보고 확철대오, 오도송을 읊음
1969년(58세) 동화사 선원 조실
1971년(60세) 문경 봉암사 선원 조실
1974년(63세) 조계종 5대 종정 취임
1989년(78세) 백양사 운문선원 조실
1996년(85세)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참사람 결사운동 시작
1998년(87세) 1회 국제무차선회 개최
2000년(89세) 2회 국제무차선회 개최
2003년 12월 13일
세수 92세, 일기로 결가부좌 한채 백양사서 입적

서옹 스님 '참사람운동' 다시 펼친다

탄신 100년 백양사서 결사법회, 운동본부 결성

전남 장성 백양사가 '서옹 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를 열고 참사람 운동을 다시 펼친다.

11월 23일 백양사에서 열린 참사람 결사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등 스님 300여 명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사법회에서는 참사람운동본부 발대식과 함께 법회에 맞춰 서옹 스님의 '벽암록' 발간 봉정식이 진행됐다. 또 법회 이후 부도 헌다례도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낸 서옹 스님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후학을 지도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당대 선승이다.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평생 선수행자들을 지도했으며 백양사 방장으로 재임 시 무차선회와 한국선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학자들이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활구참선(活句參禪)으로 일천성인(一千聖人)의 정액상일구(頂額上一句)를 투과해 활발발지(活??地)를 얻은 뒤로는, 납자를 제접함에 있어 진리의 살 활검(殺活劍)을 자재하게 쓰시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기(機)와 용(用)을 가지런히 써서 인천(人天)의 안목(眼目) 을 열어가시었도다"고 법어를 내렸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서옹 스님은 철심석장(鐵心石腸)의 장부로서 수행에 있어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철저한 정진을 보이신 분"이라며 "불교정화운동 시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신 일이나, 천축사 무문관, 동화사, 봉암사, 백양사 선원의 조실을 역임하시며 수선납자들의 참선수행을 지도하신 일 등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재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결사 정신도 서옹 스님의 참사람결사 정신과 다르지 않기에 실천수행해 불교미래를 밝히도록 매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대표로 지선 스님은 "백양사 문도들은 스님의 숭고한 참뜻을 받들어 조사선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참사람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수좌스님들이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눈 푸른 납자들을 계속하여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람정신'은 서옹 스님이 생전 후학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1994년 참사람결사문 발표 등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참사람정신은 사람 개개인이 지닌 본래 성품을 발견하면 사바세계의 갈등과 투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서옹 스님의 참사람운동은 장성 백양사 뿐만 아니라 서울 상도선원, 해남 미황사를 비롯한 각지에서 '참사람의 향기' 전시전, 참사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탄신 100주년 기념 참사람운동은 기존 참사람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무국을 비롯한 본부 구성과 시민프로그램 진행, 후원회 조직 등 장기계획 마련 방안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5일부터 31일까지 백양사 우화루에서는 서옹 스님의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는 '참사람의 향기' 전시전도 개최됐다.

전시전은 열반 10주년인 2013년 조계사 등 서울에서도 열린다. 또 운동본부 내에 연구소를 만들어 서옹 스님의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각종 학술세미나와 법회도 열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노덕현 기자



국제무차선회서 학자들과의 담론



고불총림 방장으로 지도하는 서옹 스님



성철, 월산, 향곡 스님과 함께 대화하는 서옹 스님



사진 · 유품 전시의 서옹 스님 죽비, 염주

"참사람 정신으로 백양사 다시 설 것"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정신수행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갖춘 행복한 성품을 찾는 서옹 스님의 참사람운동을 다시금 펼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백양사가 바로서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결사법회를 앞두고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서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운동'을 다시 한번 주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백양사는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위상이 실추되고 침체일로를 걸어왔다"며 ""제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정진하는 한편 스님의 올곧은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참사람운동은 향후 신도 차원의 봉사운동과 구호운동 등으로도 전개된다. 진우 스님은 "참사람운동의 영역은 봉사, 교육 등 다양하다"며 "참사람운동을 통해 백양사가 바로서며 더 나아가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불교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1250 금강행자 배출… 지장 도량 복원 '서원'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한다– ②신행 도량으로서의 변모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습고독원…" 〈금강경〉 법회인유분의 경구가 법당 안에 울린다. 하얀 석가모니 주불과 4명의 협시보살이 눈길이 가는 법당에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은 〈금강경〉을 외우고 또 외웠다.

주지 스님부터 신도까지 모든 사부대중이 모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 사찰이 바로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다.

전등사는 지난 10월 23일 경내 무설전을 개원하고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기도'를 입재했다. 처음 100명이 안됐던 등록 인원은 한달 여가 지난 지금 250여 명을 훌쩍 넘겼고,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합동기도 법회에도 평균 1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다소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전등사에 있어서는 큰 변화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천 · 강화 지역에서 그것도 연인원 4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사찰인 전등사에 이 같은 변화는 신행도량으로서의 초석을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등사가 무설전을 개원한 것도 신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편이었다. 일반적인 전각이 아닌 석굴 형식으로 조성된 무설전은 단순 예배 공간만이 아니라 강좌, 전시회, 공연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한국 정상급 미술가들이 참여해 불사를 진행한 것도 큰 특징이다.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4대 협시불, 1천 원불은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제작을 맡았으며, 오원배 동국대 교수는 후불탱과 신중탱을 그렸다. 특히 후불탱은 국내 최초로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부처님 세계를 형상화했다. 무설전 공간 디자인은 이정교 홍익대 교수가 맡아 출입구부터 연등 디자인, 불단까지 섬세하면서 품위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개원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석굴암도 조성 당시에는 시대를 담아낸 미술이었다"며 "21세기 가람은 21세기 미술을 창출할 의무가 있다. 무설전이 부처님의 법음과 오늘의 예술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설전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기도'는 전등사를 신행도량으로 이끌 원동력이다. '금강경 3년 독송기도법회'는 강의와 기도가 함께 진행되며 일반 신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신행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약 5분 간 독송할 수 있는 〈금강경 약본〉을 제작해 기도 동참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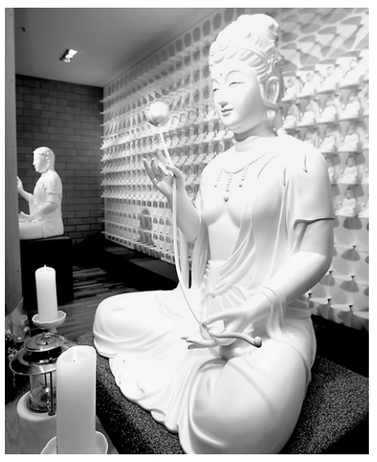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금강경 독송은 근기에 따라 108독, 1000독, 3000독, 10000독을 권하고 있다. 이번 독송기도로 40만 관광객이 아니라 100만 행자가 찾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 결사를 마치면 〈금강경〉 설법을 듣고 깨달은

무설전 개원… 신행도량 추구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들어가
근기 맞는 신행 조직도 구성
명부전 지장상 등 보물 지정
복장 불사 · 1000일 기도 정진

1250비구와 같이 1250명의 금강행자를 배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회 참여 신도들이 자신에게 맞는 실천 분야를 정해 이에 따른 신행 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실제 전등사는 ▷지혜제일 사리불(한글경전읽기, 참선 모임) ▷신통제일 목건련(상제례 염불 및 노인 봉사) ▷두타제일 가섭(10만배 절 수행) ▷혜공제일 수보리(금강경 1만 독경) ▷포교제일 부루나(금강행자 모연) ▷논의제일 가전연(사회적 이슈 토론) ▷천안제일 아나율(금강경 사경 108본) ▷지계제일 우바리(계행실천) ▷밀행제일 나훌라(봉사 조직) ▷다문제일 아난(선구 게송 암송) 등 10개 신행 조직 구성을 계획 중이다.


전등사는 무설전 개원과 동시에 금강경 독송 3년 기도정진을 입재했다. 관광사찰에서 신행도량으로 변화하는 전등사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 문을 연 무설전 협시 보살의 모습. 무설전은 법회 뿐만 아니라 강연, 전시회,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에 대해 범우 스님은 "교리를 배웠으면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개의 신행 조직은 자신의 근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찾는 맞춤형 신행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명부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보물 지정을 기념해 복장불사와 지장 1000일 기도에 들어간다. 지장 1000일 기도는 100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천도재를 봉행하며 입재 후에도 수시로 기도접수가 가능하다. 기도는 내년 2월 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범우 스님은 "전등사는 예로부터 지장도량으로 불리며 명부전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있다"며 "이번 국가보물 지정과 1000일 기도로 철원 심원사, 고창 도솔암, 완주 송광사, 서산 개심사 등과 함께 5대 지장도량으로서 명성을 되찾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등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문수기도(학업성취기도)를, 넷째 주 화요일에는 보현기도(사업성취기도)를 진행하며 무설전 원불인 현겁천불 재일 기도도 매월 음력 14일에 이뤄진다.

신행도량으로의 변화에 대해 범우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금강경 3년 정진과 신행 조직을 활성화 시켜 수도권 서부를 담당하는 신행도량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명상으로 청소년 심성 순화한다

포교원, 금강선원 · 명상상담연구원과 협약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중앙)과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오른쪽), 명상상담연구원 인묵 스님(왼쪽)이 협약식에서 밝게 웃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을 본격 전개해 청소년 심성 순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11월 21일 포교원장실에서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협약식'을 열고 금강선원(선원장 혜거),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과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자문위원 위촉 및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강선원은 '10분 집중명상법' 프로그램, 명상상담연구원은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교원은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을 종단 차원에서 활용하게 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올 겨울방학부터 파라미타와 연계해 10분 집중명상과 청소년 명상캠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분 집중명상법'은 금강선원 혜거 스님이 2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최초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1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집중력을 향상토록하는 반복훈련 프로그램이다. 10분 집중명상법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는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이 2011년부터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걷기, 먹기 등의 오감명상과 함께 그룹 및 개인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위원으로 위촉한 혜거, 인경, 용타, 미산 스님과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일생동안 일궈온 프로그램을 포교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장님들! 조계사로 참선하러 오세요"

조계사 선림원, 불교지도자과정 수행자 모집

도심에서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참선전문 대학원인 '조계사 선림원'이 3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12월 1~14일 조계사 불교대학 1층 선림원에서 진행한다. 입학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입학원서와 반명함판 사진,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조계사 선림원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전문경영인 및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체계적인 참선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각 학기마다 불교와 선, 선의 원리와 역사, 경전 어록연구, 선과 사회 등의 전문적인 선불교 이론 공부와 제방 선원장 스님에 의한 실참 수행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한 달에 1회 이상 제방 방장 · 조실 스님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선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또한 방학 중에는 참선 입문 프로그램과 전통 선원 탐방 및 중국선종 사찰 순례, 미얀마 등의 세계 주요 명상센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선림원은 증명법사로 고우(원로의원) · 설정(수덕사 방장) · 적명(봉암사 수좌) 스님을 추대하고, 영진(백담사 선원 유나) · 원타(봉암사 주지) · 철산(대승사 선원장) · 일수(법천사 선원장) · 월암(한산사 선원장) · 도문(조계사 주지) · 진화(봉은사 주지) 스님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지도체제를 갖췄다. 지도교수로는 교학처장인 김종인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를 비롯해 중효 스님(현 조계종 문화부 차장),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희욱 연구원(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연구원), 조준호 전임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구성됐다.

한편 선림원은 11월 28일부터 석 달 동안거 때 재가자 1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자율 정진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겨울 토요 철야 참선 프로그램 '동치미 익어갈 때, 달에 앉아 졸다'를 무료로 진행한다. (02)732-2183 이나은 기자

불레협, 지도자 강습회

12월 1일 50회 축하마당도

학교 및 법회 등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가 열린다.

불교레크레이션협회(회장 도경)는 12월 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제5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연기자(공연자)가 패널(보드)앞에 서서 그림인형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연극인 '패널시어터' 활용 및 실제를 비롯해 '붓다 콘서트' '50회 축하 및 어울림 마당'으로 구성됐다.

도경 스님은 "어린이 법회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매년 2회씩 개최한 이래 강습회가 이번 겨울로 제50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포교와 전법의 길을 묵묵히 개척한 지도자 강습회가 발전할 수 잇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教思想 · 修行)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일반불자, 승려〈비구, 비구니〉 법사
강 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 법운(法雲)스님

- 근본불교 : 비밀불교의 기본사상 (秘密佛教의 基本思想)
- 밀 교 란 : 밀교(密教)란 무엇인가?
- 밀교의 삼대사상 : ❶ 육 대 (六大) = 체(體) : 地, 水, 火, 風, 空, 識
  ❷ 사 만 (四曼) = 상(相) : ① 대만다라(大曼荼羅) ② 법만다라(法曼荼羅) ③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④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❸ 삼 밀 (三密) = 용(用) :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 밀교의 만다라 : ①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밀교의 삼륜신 : ① 자성륜신(自性輪身) ② 정법륜신(正法輪身) ③ 교령륜신(教令輪身)
- 현교의 삼신불 : ① 법신(法身)〈비로자나〉 ② 보신(報身)〈노사나〉 ③ 화신(化身)〈석가모니불〉
-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 육자진언염송 〈옴마니반메훔〉
- 현교와 밀교성불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가정불화 이젠 복지관서 상담하세요

교계 복지관 가정문제 상담현황

최근사이 빈번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범행배경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피의자들을 만나본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그 경험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한 것. 또한 일부지역 강력범죄자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성장과정을 조사한 양형조사 보고서와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이혼과 외도, 불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가정불화 및 폭력이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유 · 회복이나 부모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교계 복지관들은 가정불화 및 갈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자양종합사회복지관(02-458-6796)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실 '해피마인드(Happy Mind)' 를 운영하고 있다. 심리 ·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대인관계, 진로문제, 자녀양육, 가정문제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족간 의사소통을 촉진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심어주는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뉴스타트(New Start)' 도 진행 중이다. 사회성발달이 어려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월 1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자녀양육에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및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불화 근절해야 범죄 줄어
종교갈등 · 부모부양문제도 상담

윤지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불안과 주의력결핍장애(ADHD)를 겪는다"며 "복지관에서는 문제 가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문제해결, 가정상담 등 문제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종합사회복지관(02-507-6319)은 가족문제, 부부간 성격으로 인한 갈등을 전문상담가가 상근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 '토리 · 아리 가족지원상담센터' 에서는 상담 및 심리검사를 거쳐 가족 간 갈등 및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 · 약점을 파악해 적합한 지원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점점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02-2282-1100)은 약화된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역 내 이혼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혼가족지원사업 △싱글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이해 및 분노표출방법, 감정조절능력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이혼 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을 키우고 부모역할을 강화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싱글맘 가족캠프를 연 1회 실시해 가족간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02-852-0525)도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결속력 강화를 돕는 '한부모 역할강화' '가족공동작업'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간 갈등은 부부 · 성격갈등에서 오는 문제 뿐 아니라 경제 · 종교 · 부모부양 · 친인척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경기 매화종합사회복지관(031-393-3677)은 '가족종합상담센터' 를 운영해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 일반인 등 전 계층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전문상담원이 초기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가정방문상담,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부모부양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족 뿐 아니라, 고부갈등을 겪는 노인 등 일반인들이 겪는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 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번없이 '1366' 을 누르면 해당지역의 현장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등을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교계에서 수탁운영중인 **경북여성긴급전화1366**(센터장 진원)은 가정폭력 뿐 아니라 이혼, 부부갈등, 가족갈등, 자녀문제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연중 24시간 전화 가능하며 전문상담원이 고정배치돼 이용자를 맞이한다. 특히 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보호시설로 안내 및 연계를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장기기증 홍보 안돼 안타까워"

남일우 · 김용림 부부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가운데)과 남일우(오른쪽) · 김용림 부부는 11월 22일 법인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불교계 잉꼬부부로 알려진 중견탤런트 남일우 · 김용림 씨가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기증 홍보에 앞장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은 남일우 · 김용림 부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11월 22일 법인회의실에서 가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기증희망 회원인 두 부부는 최근 홍보대사를 자청해왔다.

남일우 씨는 1999년 기증문화가 아직은 생소하던 시절에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시신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10년이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각막을 기증한 뉴스를 보면서 각막기증 희망등록도 약속했다. 부인 김용림 씨도 남편의 영향으로 각막기증과 시신기증 희망등록 서약을 마쳤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두 부부가 조용히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했고, 본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등록하면서 남일우 · 김용림 부부임을 알았다"며 "이후 감사인사를 하기위해 전화했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라며 담담해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던 부부는 주변을 통해 조금씩 장기기증을 알려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홍보대사를 결심하게 됐다.

남일우 씨는 "한 줌의 흙이 되기 전에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김용림 씨는 "불자라면 당연히 장기기증을 실천해야 하기에 서약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아직 인식이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장기기증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면 스님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걸로 유명한 두 분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아름다운 의미를 많이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사업보고 및 회계 결산보고에 이어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달동네 백사마을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조계종 복지재단, 한화 S&C와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진행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한화S&C(대표이사 진화근)는 11월 21일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행사에는 한화 S&C의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조계종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의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김장김치를 담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맨 앞)과 학도암 주지 법보 스님(두번째) 및 한화 S&C 임직원들이 저소득가구에 라면 등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배추 1400kg으로 김장김치 130여 통(10kg)을 담가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100가구에 라면 등 후원품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경제악화로 인해 소외이웃들의 추운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위한 기업의 후원행사가 주춤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성북장애인복지관, '내 마음의 두드림' 공연

지적 · 자폐성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타악공연을 펼쳤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이 진행하는 창작타악 프로그램 '내 마음의 두드림' 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 10여명이 11월 14일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연말행사에 초청돼 첫 공연을 선보였다.

승가원 희망적립사업으로 시작된 '내 마음의 두드림' 은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타악 및 합주 활동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며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두 번의 공연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도전과 열정에 많은 격려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양양노인복지관, 어르신 예술제 열어


양양노인복지관의 한국무용 등 11개 팀 120여 명 어르신들이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김지훈)종합예술제 '은빛청춘! 꿈의 날개를 펴다' 가 11월 20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종합예술제는 한국무용, 중국어기초, 댄스스포츠 등의 11개 팀 12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식전행사로 쏠비치의 플라멩코 팀이 분위기를 띄웠다.

예술제에는 무산복지재단 상임이사 정관 스님, 정상철 양양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양양군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무료로 운영해 지역 어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 (033)673-2685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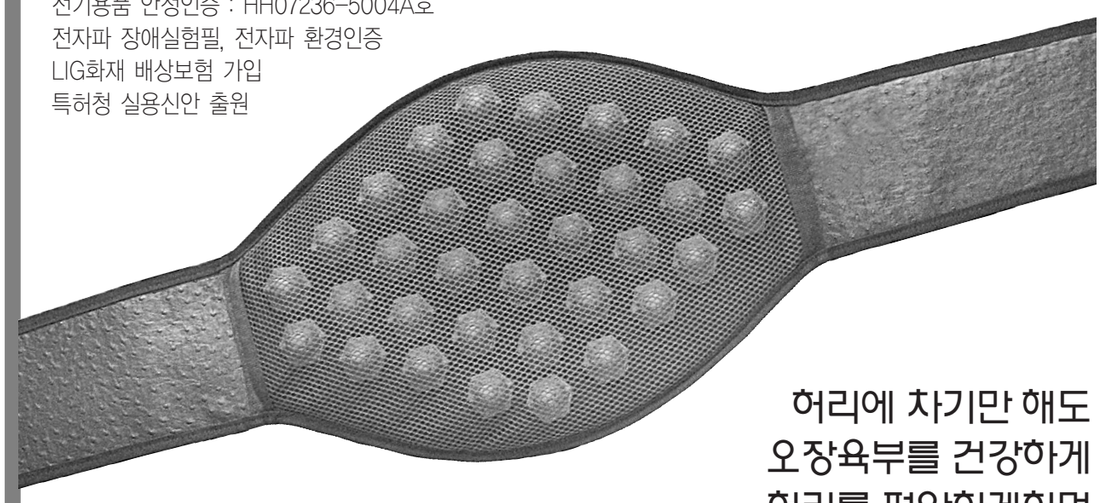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조계사서 '행복한 가정' 법문

히로나카 구니미츠 스님 (일본 정토종 21대 주지)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가족이지만 소통이 잘 안 되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가기만 하는 부모와 자녀.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화목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히로니카 구니미츠 스님은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20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해온 히로나카 스님은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담해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발간된 〈악동스님은 천사래요〉의 저자이기도 한 스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부모와 자녀, 청소년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을 듣고 치유해주는 훌륭한 멘토이기도 하다. 히로나카 스님이 한국을 방문 조계사에서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11월 21일 약사재일을 맞아 조계사에서 강의한 히로나카 스님은 일도 공부도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히로나카 구니미츠은 … 일본 정토종 21대 주지인 히로나카 구니미츠 스님은 1996년부터 청소년 · 가족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9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담한 스님은 아이들을 다시 부모의 품으로 또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스님은 현재 일본 전역을 돌며 1년에 2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TV보도, 다큐멘터리, 연예프로에도 출연하고 있다. '즐거운 마음갖기' '작은 선행' '타인의 행복 빌기'는 스님의 상담 3원칙이다. 스님은 현재 암과 투병중이다.



히로나카 스님이 약사재일을 맞아 11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약사재일이죠? 저는 올해 2월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진단대로라면 앞으로의 삶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의사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오실 때마다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전이되었던 암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9월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근처 문방구에 들리니 주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 말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약사재일을 맞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거식증 과식증 환자, 자살 하고 싶은 아이들 모두가 찾아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절을 찾고 있는거죠.

지난 20년 동안 900여 명의 아이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주말만 찾아오는 아이, 저녁만 먹으러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2천 여명이 넘습니다. 절에서 상주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밥 먹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병을 얻는 것도 죽음을 맞는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날 우리 절에 보살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자녀였죠. 이 엄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저는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이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열면 아이도 마음이 열립니다"

이런 할머니도 있었죠. 눈이 안 보이는 손자를 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손자를 데리고 와 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보이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매일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앞이 보인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구가 없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분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오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안구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마 학원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할머니도 손자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면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이 절을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힘들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까지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발이 힘들면 반보라도 앞으로 나아가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 열심히 해라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서로 연결된 삶의 힘
긍정적 사고 매우 '중요'
마음 열고 최선 다해야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가족에게도 이런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루 하루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에서도 마음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 자살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도 또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왕따 피해를 당해 자살한 아이를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 몰라본 부모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외침을 못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국의 중학생들을 만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들고 지치면 저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절로 오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두 팔을 벌려 항상 저에게 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즐거운 마음을 갖자. 둘째 조금이라도 남을 위한 삶을 살자. 셋째 타인의 행복을 빌자. 이렇게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항상 저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주변에 휴지라도 줍고 담배꽁초라도 주워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을 넘어 많은 분들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시작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나기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과의 만남은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치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에서 불교가 전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이 불교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죠.

용기를 내어 즐겁게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힘들다면 반보 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공부도 운동도 또 여러분들이 김치 담글 때도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먼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암투병중이지만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망치지 말자 도망치면 쫓긴다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보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또한 반보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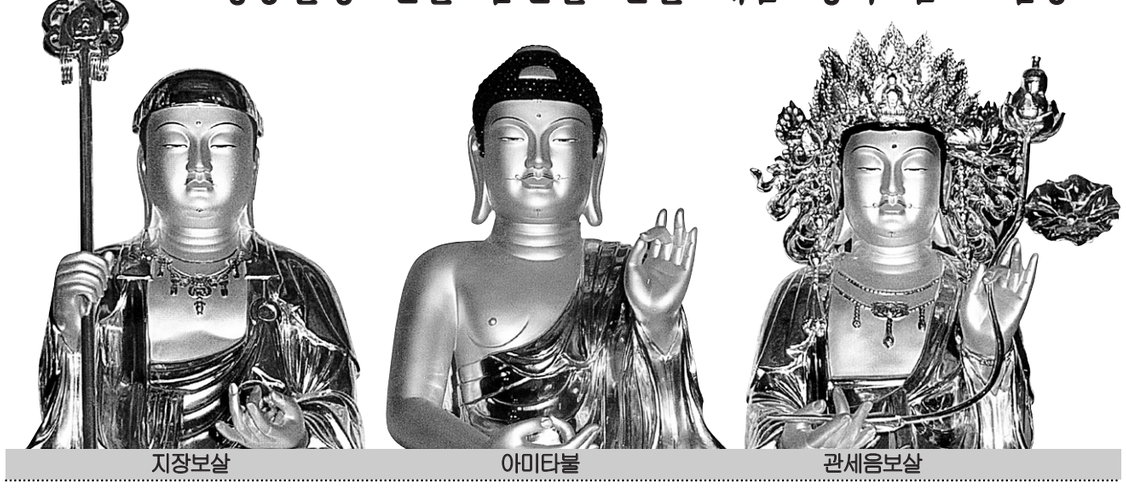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nght Posture Health Care P.A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경제민주화 해법, 불교 안에 있다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경제문제 불교적 조명' 눈길

개인의 이윤추구를 기본 전제로 시작하는 자본주의에서의 경제행위를 '무소유'를 표방하는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빈부격차가 심해진 현대사회, '경제민주화'가 사회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 안의 경제사상으로 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제문제의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1월 17일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이 모여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적 해석에 관심을 보였다.



윤성식 교수



이도흠 교수



박경준 교수

시장자본주의서 연기자본주의로 전환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연기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의' 발표에서 불교 성립과정에서 중소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은 과정을 들며 불교 안의 자본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윤 교수는 경제학에서 시카고 학파가 주장한 자율적인 시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대 여러 경제문제들은 개개인, 또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며 범국가적인 자본주의의 흐름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 대안으로 불교사상을 도입한 연기자본주의를 들었다.

윤 교수는 "불교는 성립당시 신흥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자유경제활동 보장과 함께 승자독식과 불공정경쟁 방지, 분배와 환경보호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조성 등은 현대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가 주장한 연기자본주의는 △연기적 소유관을 바탕으로 △자리이타와 자비의 경제윤리를 지니며 △'정념'과 '정견'에 기반한 경제의사결정을 통해 △중도와 절제의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윤실현이 아닌 가치관 실현의 개인경제활동 △소비자를 위한 기업활동을 추구한다.

윤 교수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창조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의 대안들은 연기자본주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이런 사상을 반영해 건건한 시장형성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소유' 아닌 '무집착'이 중요

먼저 이날 '불교의 경제관'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불교학연구회장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교는 무소유라는 관점보다는 무집착(無執着) 욕망의 제어 쪽에 더 중점을 둔다"고 정의했다.

박경준 교수는 "불교는 경제적 생산활동을 인정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제고, 이윤추구를 장려한다"며 "불교가 무조건 개발과 성장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준 교수는 초기 불교교단의 출재가 이원구조가 이런 생산과 분배활동의 대표적인 분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생산 및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재가자들과 분배와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출가자의 건전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달이 가능하다는 것. 박 교수는 "불교의 경제활동은 이기심을 해탈과 열반으로 승화시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따듯한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화쟁으로 자본주의 아픔 치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화쟁 경제학' 발표를 통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불교사상이 기여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엡슨과 HP 등 해외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협력을 통한 상생의 경영 사례로 들며 경쟁을 통한 제로섬 시장이 아닌 협력과 시장확대, 공동체 발전을 통한 발전의 시장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은 나만의 변화 뿐만 아닌 다른 이들의 불성과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실현해 새로운 사회문화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찬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사찰 및 재(財)공양 법(法)보시의 경영학적 분석',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원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추사, 조선후기 간화선 지상주의 비판

동국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성본 스님 주장



동국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성본 스님〈사진〉은 11월 23일 과천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추사학회가 개최한 2012추사학술대회에서 추사 김정희가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당대 불교계의 간화선 지상주의 병폐를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초의 의순스님(1786~1866)과 30살 때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소개로 만나 평생 도반으로 살았다. 추사의 〈완당전집〉에는 당대 선승들과 교유를 나눈 서신이 전해진다.

성본 스님은 '추사 김정희와 초의 선사의 교유' 발표에서 "추사는 경전 공부는 하지 않고 간화선을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당시 선문의 병폐를 비판했다"며 "특히 추사는 간화선의 병폐를 조장한 주인공이 대혜종고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성본 스님은 "추사의 이런 비판은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십대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추사의 재가거사로서 안목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본 스님은 "재가자로 추사와 출가자로서 초의의 인연은 선법과 다도의 불이경지로 승화된다"며 "추사가 선승들과 나눈 아름다운 교유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도 "추사는 〈안반수의경〉, 〈능엄경〉, 〈유마경〉, 〈금강경〉, 〈사십이장경〉 등 많은 선어와 선문답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추사의 불교사상을 알 수 있는 단초"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19세기 유교독존주의가 붕괴되며 거사불교로 평가되는 일군의 재가신자들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상관성 속에 추사는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발전 보며 간화선 미래모델 찾는다

성철탄신100주년세미나, 인도부터 현대 수행법 고찰

"수백만권의 금강산 여행안내서를 읽는 것보다 직접 금강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듯이 경전과 논서를 읽고 공부하기보다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참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중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참선과 명상의 불교사적 흐름을 짚고 한국불교의 수행법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9~30일 양일간 동국대 덕암세미나홀에서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남방불교의 전통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첫날인 11월 29일에는 피터 스킬링(Peter Skilling) 박사(프랑스 극동학원)의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교수(미국 UCLA)의 '한국불교 명상수행' 기조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피터 스컬링 박사는 남방 〈청정도론〉보다 대승 〈유가사지론〉에 수식관이 상세히 설명된 점을 들며 위빠사나가 남방불교의 명상수행, 또는 불교 전체 명상수행으로 평가되는 세간 인식에 비판을 가한다.

이어 제1부 '고대 인도' 제2부 '동남아시아'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베트' 제4부 '한국' 등 세부 발제로 이어진다.

1부 '고대 인도'에서는 △요하네스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 교수(스위스 로잔대학)의 '초기불교명상' △알렉스 위니(Alexander Wynne) 교수(태국 DKF대학)의 '브라만 사상과 초기불교의 명상' △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역경학과) '디비아바다나에 나타난 인도불교의 명상' 3편이 발표된다.

제2부 '동남아시아'에서는 △케이트 크로스비(Kate Crosby) 교수(영국 런던대학)의 '동남아시아 불교와 명상' △아티드 세라바닉쿨(Arthid Scheravanichkul) 교수(태국 출라롱콘대학)의 '탁신왕은 미쳤는가 위대한 보살인가-탁신왕의 전설에 나타난 명상의 중요성'이 발표된다.

둘째날인 30일에는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베트' 편에서 △제레온 코프(Gereon Kopf) 교수(미국 루터대학)의 '황소와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를 인도하는 수행에 관한 주석' △혜원 스님(동국대)의 '중국불교의 명상수행' △아힘 바이어(Achim Bayer) 교수(동국대)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티베트불교 명상전통에 나타난 돈오적 요소' 등 3편이 발표된다.

제4부 '한국'에서는 △찰스 뮐러(Charles Muller) 교수(일본 도쿄대학)의 '사견과 명상을 통한 사견의 중단-원각경(圓覺經)을 통해 본 돈오의 힘' △윤원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의 '한국불교의 선문화' △서명원 교수(서강대 종교학과)의 '성철스님의 명상' 등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 명상의 기원부터 각국에서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말했다. (02)2198-5100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불교사연구소 제3차 집중세미나

원효 스님에 관한 연구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2월 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분황원효 연구의 몇가지 과제들1'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영섭 소장이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원효의 교체론과 언어관'을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원효 일심의 정의와 의미'를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원효의 화쟁 논법은 견해의 배타적 주장을 치유할 수 있는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류승주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권오민 경상대 교수,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김영일 동국대 BK21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고영섭 소장은 "원효 연구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며 "집중세미나를 지속 개최해 연구과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63집 원고 모집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2월 31일 발간되는 〈불교학보〉 제63집의 원고를 모집한다. 1963년 창간된 〈불교학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매년 3회 발간하고 있다. 제63집은 불교학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로 논문 마감은 11월 22일까지다.

논문집 수록논문은 △한글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 체계를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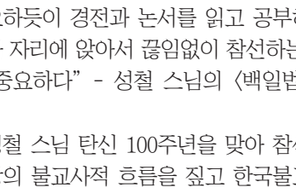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로 한글요약은 500자 내외, 영문요약은 A4용지 1매 이내다. 한글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 내외로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수록해야 한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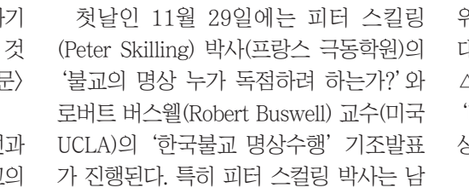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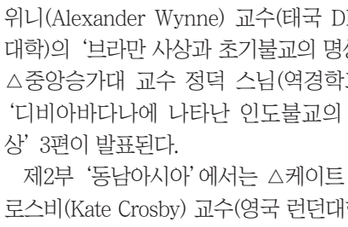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전북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적신호

군산 · 익산 등 2곳이 유일

전북지역에서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매년 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불교 어린이집은 10년 전 만해도 전북지역에 10여 곳이 운영됐으나 원생의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5곳만 운영되고 있다.

불교유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 시 단위에서 운영되던 불교유치원은 군산과 남원의 불교유치원이 문을 닫은데 이어 2012년 봄 전주 불교유치원이 원생모집의 어려움으로 휴원했다. 군산의 반야유치원(보문종)과 익산의 관행유치원(진각종) 등 2곳이 전북지역 불교유치원으로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역별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 제1도시인 전주에는 현재 700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불교계는 전북불교회관 룸비니 어린이집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다.

군산과 익산의 사찰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도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각 시군단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개신교의 경우는 각 동마다 수십개의 교회 부설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은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계 상황과 함께 낙후된 시설로 인한 원생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종교의 기관들에 비해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불교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도 집 주변에 불교계 어린이집이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고 있다.

불교계 어린이 집에 자녀를 보낸 적이 있다는 한 학부모는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걸려 아이들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한다"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먼거리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보니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고 자연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는

낙후된 시설이 원생감소 주원인

투자 기피 악순환으로 문닫아

경영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북불교회관 룸비니어린이집에서 진행 중인 교육 모습. 룸비니어린이집도 먼 통학거리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전북불교회관 룸비니어린이집 홍용희 원장은 "불교어린이집이 전주 시내에 한 곳뿐이다 보니 자연히 먼 지역까지 여러 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해야하고 이로인한 경비지출이 상당하다 "고 고충을 토로했다.

몇 년전까지 불교유치원을 운영했었다는 한 불자는 "단 한명의 어린이를 데려오기 위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차량운행 한 적도 있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 운영되고 있지만 불교유치원의 운영이 경제 논리에만 맡겨진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자교사들의 불교계 유치원 취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아교육기관 불자교사는 "불교계 유치원에 취업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원불교 유치원에 종교를 숨기고 취업했다"고 밝혔다.

각 단위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 운영 실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매주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전주 전북불교회관, 참좋은우리절 2개 사찰에 불과하며 익산 관음사, 정읍 성불암 만이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불교시민연대에서 올해 50명 규모의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을 발족, 활동을 시작해 위안을 주고 있다.

정읍 성불암(주지 상운)과 같이 어린이 전용법당을 마련하고 전문지도교사의 학비까지 지원하면서 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사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수 前전북포교사단장은 "단지 시끄럽고 사찰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폐쇄하면 다시 법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 기피는 청년불자의 감소와 사찰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前단장은 "고사 위기에 처한 불교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범종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자연친화적인 사찰환경을 적극 활용한 친환경적인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에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 평화 NGO 거점 될 것"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1080회원 확보 등 다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2월 24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에서 '2012 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상임대표 정선 스님,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주성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 등 사부대중 15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봉사활동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2012년 사업 및 수지결산, 정관개정, 2013년 사업 및 예산안을 인준했다.

부설기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의 신임대표에는 최근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임명됐다. 법일 스님은 "호남불교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미력하나마 본회가 대사회적 실천과 회향사업을 펼쳐오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생명평화의 가치를 잘 살려 불교NGO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13년 희망선언'에서 △1080회원 확보 및 나무숲 회원 증대 △회의체계의 민주적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실천 △창립5주년 기념법회 마련 △환경보살 실천계목 제정 △빈그릇 운동 캠페인 및 빈그릇 운동 실천도량 지정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활동 강화 △대사회적 실천사업 강화 △광주불교방송 환경캠페인 지속 전개 등을 선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종교평화 합창제 개최

4대종교 합창단, 지역발전 힘 모으는 찬불가 불러

군산지역 4대 종단이 종교간 화합을 위한 종교평화합창제를 연다.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종교단체 합창단들은 11월 24일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종교평화합창제를 개최한다.

불교의 그린비 합창단과 원불교의 군산지구 원음합창단, 천주교의 평화합창단, 성광교회 찬양대가 참가하는 이번 종교평화합창제는 종교계가 힘을 모아 나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올해 2회를 맞는 군산 종교평화합창제는 각 종단이 순번제로 개최하며 올해는 불교계에서 주관한다.



11월 24일 군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종교평화합창제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지역 합창단 정기공연 열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카일라스합창단, 부루나 합창단 등 참여

"행복한 삶에 찬불가도 동행합니다."

지난 14일 광주 빛고을문화관에는 아름다운 찬불가 소리가 강당을 가득 찼다. 찬불가 합창 발표회장에서 단원들의 신심어린 노래가사는 대중들을 감동시켰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 부설 카일라스 합창단과 남자 합창단인 부루나 합창단은 11월 14일 정기발표회 '연꽃 피어 오르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50여명의 단원들은 '목어소리', '세상의 빛이 되어', '천개의 눈'을 열창하며, 찬불가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정수만을 모아 노랫말을 만들고, 여기에 아름다운 선율을 실어 노래를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창단은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보살"이라고 덕담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첫 무대는 부루나 합창단이 열었다. '산사로 가자', '꽃길',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로 이어진 발표회는 카일라스 합창단의 '구름에 물든 절', '나의 룸비니', '산사초파일'로 답가로 진행됐다. 여기에 범능 스님 축가, 다르마 중창단의 합창, 오목대의 대금연주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지용현 회장, 하태옥 광주북부경찰서 서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해 발표회를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근로자 위한 한국어 교육 호응

네팔 및 캄보디아 출신 많아… 12월 23일 송년의 밤

"한국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서 즐거워요."

올해 5년차 한국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는 비스터(네팔)를 포함해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을 찾는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적응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네팔과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아 네팔과 캄보디아 반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장에서 만난 비스터(네팔)씨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주성 센터장은 "비록 한국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지만,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또 다른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매주 토요일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신나는 미술나라' 프로그램이 진행하며, 오는 12월 23일 외국인근로자 초청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나한신앙 축제 성격, 영산재 및 법요식도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전'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16일 오백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제 13호)에서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주지 연광 스님을 비롯해 스님 20여명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대재가 열린 나한전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한국전쟁 때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오백나한전은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난, 가섭존자, 10대 제자, 16성중, 500아라한이 모셔져있다.

행사는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어려운 이웃이 힘들때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것이 회향의 의미"라며 "오백나한대재가 향후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나한신앙은 국난을 극복하는 염원을 담고 있고, 발원자의 소원을 성취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 8㎝ 세로 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한일 복원 '새 초조대장경' 이운

고려대장경硏 · 대구시 초조대장경 이운식

"초조대장경은 다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 봉안된 초조대장경의 귀향을 공식 선언합니다."

1000년 전 고려 수도 개경에서 만들어져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졌던 고려 초조대장경 이운이 대구 도심에서 최초로 재연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와 대구시는 11월 17일 국채보상기념공원을 출발해 대구백화점 야외공연장에 이르는 1km 구간에서 초조대장경 이운퍼레이드를 개최했다.

대구시와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60억 원을 들여 초조대장경을 복원 · 간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됐으나 1232년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된 바 있다. 이날 이운된 대장경은 한일 공동 복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간행본이다.

이운행렬은 취타대를 선두로 대형 초조대장경 복간본이미지와 오방불번과 용정자, 집례자, 등을 담은 깃발 등을 선보였으며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등짐을 지고 경판을 이운하던 옛 모습도 그대로 재연했다.

이운퍼레이드에 이어 대구백화점 야외공연장에서는 이운 기념식과 초조대장경 복간본 전시, 탁본 체험행사 등도 열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11월 17일 1000여 대구 시민들은 초조대장경을 상징하는 부채를 들고 당시 이운행렬을 재현했다.

대구 부인사 봉안 재현 5년간 60억 들여 복원 간행

이날 행사는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원년인 2012년을 회향하며 남은 복원사업의 원만 회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복원간행을 맡은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본사인 동화사, 대구시가 힘을 모았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통합을 이끈 초조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자"며 "이운행사를 계기로 대구시민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 상생하는 삶이 올 수 있다"며 "대장경에 담긴 화합의 정신을 읽고 국민대통합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 · 일 공동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 위원장 종림 스님은 "국민통합은 고려가 대장경이라는 국책사업을 통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며 "복원간행이 완료돼 많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려대장경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은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의 원년의 해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국내와 일본 남선사 등에서 대장경을 발굴, 복원해 왔다. 연구소는 196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초조대장경과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굴된 초조대장경을 분석해 2004부터 2009년까지 디지털 전산화를 진행한 바 있다. 2010년부터는 대구시와 함께 인경본 2040권을 복원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불교대중화에 최선 다할 터"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이취임법회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에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이 취임했다. 창립 6주년을 맞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11월 20일 롯데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이취임법회를 갖고 새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허남식 부산시장, 시의회 김석조 의장, 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이진복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과 박민식 김영주 의원 등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순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대중화를 위해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산지역 불교계가 단합하여 타종교의 비방과 종교갈등에 대처하고 정법수호와 확산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여 불교포럼이 부산불교뿐만 아니라 전국을 아우르는 불교중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부산지역의

11월 20일 부산 롯데호텔서 박순곤 신임 회장 취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역의 불자 명사들로 구성돼 지역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의 법사로 초청된 정관 대종사는 '자기 제도 자기 성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회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불교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모연금액 1200만원을 24명의 학생에게 지급했다.


취임사를하는 박순곤 회장

한편, 이번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새 집행부는 △회장 박순곤 △수석부회장 김종백 △부회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장석준 김승영 양재생 △사무총장 신상해 △ 재무총장 박차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혜숙 기자

상생의 정신 설치미술에 담아

선진스님 제8회 개인전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의 제8회 개인전이 대구 수성동 다미 갤러리에서 열렸다.

선진 스님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8점의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스님은 작품을 통해 불교의 전통 불복장 의식을 현대의 시각언어와 접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선진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근원적인 물음에 세상만사 모든 것은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니 나와 너, 남과 북, 빈부, 좌우 계층의 분별심을 넘어 소통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선진 스님은 법철 스님으로부터 불복장 의식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복장 의식을 재현한 선진 스님의 설치작품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대웅전 뒤를 살피는 마음

신도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면서 현대의 사찰은 점차 대형화, 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예전의 사찰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기능을 가졌다면, 오늘날의 사찰은 신도들에게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종교 이외의 기능까지도 베풀어야 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산에 자리 잡은 현대의 전통사찰은 항상 공간부족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간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건물을 더 짓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찰의 공간적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전통사찰의 경우 대부분의 사찰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제도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전통사찰은 이미 구조적 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건물을 덧붙이거나 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것은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러다보니 사찰에서 당장 필요한 공간이 있어도 함부로 공간의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전각이나 당우의 처마 밑에 물건을 쌓아두기도 하고 누마루 아래 넣어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비닐이나 목재를 이용해서 조잡한 간이창고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물건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아예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낫겠지만, 보이는 곳에 방치되거나 간이창고 안에 보관된 물건들은 사찰의 청정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청정한 사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사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비우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듯도 하다. 비우는 마음이 있다면 사찰은 예전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복잡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 보면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것이며, 낭비되는 물건도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비우는 마음이야말로 사찰환경의 청정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웅전 후면부 처마밑에 임시로 가설한 수납시설은 사찰의 청정환경을 헤치는 원인이 된다. 경상북도 ㅂ사찰



사자산, 사자암은

일 시 :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146
인연 대덕스님을 모시고 개원법회 봉행합니다

사자암에서는

매월 음력 1일 ~ 3일 : 화엄기도
매월 음력 8일 ~ 14일 : 약사7불진언 주력
매월 음력 15일 : 재수(건강)불공
매월 음력 24일 : 재수(사업)불공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사자암 암주 장원 합장
☎ 011-677-8525

공기열 75% → 100%
전기 25% 에너지

공기 압축열 보일러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연요양병원에서 10㎾ 80평난방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초록에너텍
대표전화 1666-7634

겨울숲엔 가난한 시간, 절 마당엔 뜨거운 장작이…

⑯ 묘적사 계곡길 그리고 묘적사(妙寂寺)


묘적사 주지 해송 스님〈사진 왼쪽〉과 멀리서 찾아온 도반 윤성 스님이 번달아 도끼를 잡고 장작을 패고 있다.

'묘적사 계곡길'.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표지판이 보였다. 집배원의 빨간 오토바이가 묘적사 계곡으로 향한다. 보낸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이 부탁한 누군가의 주소를 싣고 오토바이가 길을 오른다. 오토바이가 사라진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 길엔 이름처럼 묘적사가 있었다. 11월 20일 걸었다.

경기도 남양주의 묘적사 계곡길은 둘레길로 명명된 '걷기' 길은 아니다. 약 1km 정도 계곡을 따라 오르면 묘적사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묘적사 계곡은 묘적사부터다. 중앙선 덕소역에서 60번 마을버스를 타면 묘적사 계곡길 입구에서 내릴 수 있다. 종점이다. 묘적사까지는 거의 포장된 길이다. 경사가 있지만 힘들지 않다. 갈색의 잔엽(殘葉)을 달고 햇살 쪽으로 기운 메타세쿼이아들이 길을 안내한다. 그 숲에서 태어난 바람을 맞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다보면 희미하게 풍경(風磬)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묘적사다. 멀리서 빨간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다. 빈 오토바이가 집배원을 싣고 내려왔다. 혼자 살 수 없음이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집배원의 손에 '나'의 이름과 '너'의 이름이 들려 있다. 빨간 오토바이가 다시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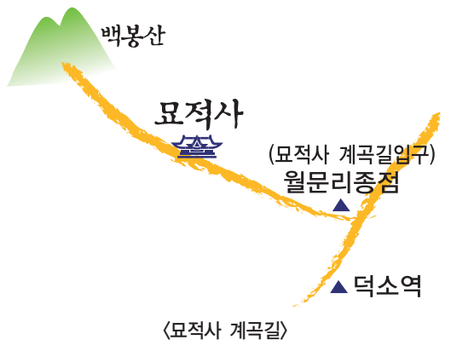
묘적사도 추웠다. 노란 은행잎이 모두 땅에 내려와 있다. 얼마 전 가수 이효리가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 더욱 알려진 묘적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고려 때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세종 때 학열 스님이 중창한다. 1486년 성종 17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절 이름이 나온다. 일설에 따르면 국왕 직속의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유정이 승군을 훈련하는 장소로 썼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스님들이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으로 썼다. 절 앞 동쪽 공터에서 오래 된 화살촉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활터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일반인이 경내에 무덤을 썼을 만큼 폐사되었다가 1895년 고종 32년 규오 스님이 산신각을 중건했고, 1969년에 화재로 소실된 도량을 다시 규오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전과 선원, 요사 2채 정도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1호인 팔각칠층석탑이 있다. 전각 지붕마다 낙엽이 쌓여 있고, 석탑에도 층층이 노란 은행잎이 쌓여 있다. 마당 한 켠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쌓여 있다. 쌓인 배추 옆에서 주지 해송 스님이 장작을 패고 있다. 퍽~퍽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도량에 퍼진다. 묘적사 템플스테이에는 다른 사찰과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도량에 찜질방이 있는데, 장작은 찜질방 뗄감으로 쓴다. 그 장작을 주지 스님이 손수 팬다고 한다. 장작을 패고 있는 주지 스님 곁으로 멀리서 도반이 찾아왔다. 도반을 알아 본 해송 스님이 말없이 도끼를 건넨다. 인사다. 도끼를 건네받은 도반 스님이 단번에 장작을 쪼개낸다. 인사다. 한 동안 해송 스님과 도반 스님은 도끼를 번갈아 들며 장작을 팼다. 주지 스님이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차 한 잔 합시다." 기자도 따라 들어갔다. "이제 날이 좀 춥네. 오늘 김장하는 모양이지?" 도반 스님은 양수리 세종사의 주지 윤성 스님이다. "도량이 템플스테이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서 가깝고 금방 자연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좋습니다." 기자도 인사 겸해서 한마디 했다. 주지 스님이 찻잔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다. "도량이 다 좋지요. 따로 좋을 게 있습니까?" 도반을 찾은 윤성 스님이 안부를 물었고, 해송 스님도 윤성 스님의 안부를 물었다. "뭐, 날 추워지니까 장작 패고… 그러고 살지 뭐." 주지 스님이 새 물로 다시 차를 우렸다. 내 기사 쓰자고 이것저것 묻기가 뭐해서 차 석 잔 마시고 일어섰다. 오랜만에 만난 두 스님에게 기자는 불청객이었다. 말씀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다음에 우리 절도 한 번 오세요?" 일어서는 기자에게 윤성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오라는 곳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싶다. 그곳에 도반이 있다면 더욱 그렇지 싶다.

대웅전 옆으로 조금 걸으면 백봉산 정상으로 가는 묘적사 계곡길이 이어진다. 묘적사 옆으로 이어진 길은 절밑에서 걸어온 길과 만나는데, 그 지점부터는 사유지다. '출입금지' 표시가 된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하지만 절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주지 스님도 사유지이긴 하지만 길은 걸어도 괜찮다고 했다. 개울을 하나 건너면 된다. 여름엔 계곡 바위에 앉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한다. 묘적사 계곡은 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겨울 문턱이지만 계곡물 소리가 한여름 계곡 같다. 차가운 개울물 옆에는 갈대들이 지나간 바람의 모습을 하고 서있다. 잎새 없는 나무들은 앙상한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듯 했고, 무성했던 숲을 잃어버린 새들은 자꾸만 울었다. 겨울 숲이다. 모두 가난해 보였다. 가난한 시간이다. 겨울 숲은 가난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절 밑에 두고 온 나의 가난. 길은 나의 가난을 물었다.

백봉산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돌아오면 된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백구 두 마리가 내려온다. 거기까지 걷고 백구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백구는 묘적사 식구였다. 백구를 따라 다시 묘적사로 들어갔다. 마당 한켠에서 다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 왔다. 묘적사엔 뜨거운 장작이 쌓이고 있었고, 겨울 숲은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백봉산 정상으로 오르는 묘적사 계곡길


묘적사 대웅전과 칠층석탑



〈묘적사 계곡길〉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 와불국화축제


▷ 진신사리 증과


▷ 만사형통 문수동자


▷ 쌀바위(운수대통)


▷ 장엄노천불 공원


▷ 10년만의 자손득남


▷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생태사회와 불교

회색(Gray)에서 녹색(Green)으로

탈(脫)토건이 녹색사회 전환 지름길



남한강 여주보 인근 당산제방 공사 모습. 이 공사로 인근 지역주민은 퇴거 조치 됐고, 당산제방과 함께 조화롭게 흐르던 작은 여울들과 소, 습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낙동강 낙단보 공사 모습. 유속 변화로 낙동강 보들의 균열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제어하려고 한 오만함의 결과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2조원의 혈세를 매년 강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늘어가는 고속도로, 아파트 밀림숲, 4대강개발등 토건사업들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10년전만 해도 고속버스로 4~5시간으로 다니던 것이, 이제는 2시간10분에 주파한다. 도처에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그 산과 산을 교량으로 이어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작은 국토에서도 촘촘히 그물망처럼 도로가 만들어져 이제 전국토를 2~3시간의 생활권으로 만들 작정인 듯하다. 그러나 88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많은 고속도로는 몇시간을 달려도 차량 한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교통량이 없는데도 도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뉴 타운을 비롯하여 2011년 만해도 서울시내의 재개발 아파트 지역만 300여곳이 넘는 정도였다. 과거에는 5층만 높아도 10여층이던 것이 이제는 2~3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숲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토건개발사업의 압권은 22조 사업비가 들어간 4대강사업이다. 우리나라 강 전체의 모래를 파고 곳곳에 댐수준의 보로 물길을 막고, 수변은 시멘트로 공원이 조성되어버렸다. 불과 3년만이 이룬 돌관공사이다. 이제 대통령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은 개발공약을 내세운다. 온통 부수고, 짓고, 개발하겠다는 회색빛 콘크리트 세계를 위한 약속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 고도성장기의 토건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제 파괴되는 환경과 오염문제를 앞두고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토는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회색 사회에서 녹색 사회로 전환을 강제받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GDP에 18%가 건설토건사업

최근 인천시는 317조원을 들여 에잇시티(Eight City)라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건설개발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홍보동영상과 마스터플랜을 보면 SF적 상상력이 극대화된 환상적 인공해양도시로 카지노와 자동차 레이스 장 등을 조성하여, 오일머니나 중국 등의 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비슷한 도시개발사업이 초기에는 휘황찬란하게 시작하다 중단된 것만도, 청라국제신도시, 송도신도시, 영종신도시, 미단시티 등이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토건개발론자들의 계획은 멈추질 않고 있다.

실제 2011년 4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서 전국의 지역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80조원에 이르고 그 반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310조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개발을 '과(過)개발' 이라고 단국대 조명래교수는 표현하고 있다. 한편 수요는 팽창하는데 계획적인 통제없이 마구잡이 개발을 '난(亂)개발' 이고 표현된 것과 대비된다. 이 토건개발사업은 우리나라 GDP의 전체중 18%를 차지한다. 비슷한 OECD국가가 9.1%인 것에 비하면 두배나 되는 셈이다. 한번도 국토전체는 공사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화된 토건개발주의, 토건마피마

우리나라는 86년 당시 10.1%로 성장하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2009년들어 3.0%가 되었다.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3.0%는 제로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저성장시대임에도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토건개발주의는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기업경영, 투자, 생산과 소비, 발전, 자연관리 등 모든 분야에 깊이 박혀있다. 그러다 급기야 건설산업에서 경험만을 갖고 있는 이명박정부들어서 토건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토건기업과 그 기업의 정치자금으로 당선된 정치인, 그들이 주는 광고로 유지되는 언론, 그들이 주는 연구용역사업을 받고 있는 학자와 단체들 모두가 토건식 개발과 건설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광고홍보를 만들어내는 토건카르텔, 토건마피아가 된 것이다. 이들은 쓸만한 땅이란 땅은 모두 시멘트로 덥고 메우면서 자연과 국토는 황폐화시켜왔고 파괴시켜온 것이다.

과개발이 환경파괴 주범
부동산 건설 사업 수정 필요
저성장 사회화 세계적 추세
협동적 경제 건설이 대안

이명박정부는 4대강정비, 녹색뉴딜 등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모든 토건부서들이 국토부로 통합해왔다. 또한 이들 토건부서들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실제는 필요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끊임없이 공급을 창출하고 만들어 내는 방식' 으로 개발사업을 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페러다임속에, 과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책 마져도, 결국 개발논리에 복무하는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실제 그 영향평가로 개발이 중단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제 전세계는 과거의 지속불(不)가능한 발전방식을 패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영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나아질까? 아마도 새로운 정권에게 정치, 행정, 기업, 주민들의 개발욕구로 짜여진 토건의 열망을 막아내기 위한 분명한 미래발전의 철학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여야 하는가.

국토부의 축소, 건설업의 조정

정부의 부처는 똑같지 않다. 강한 부처가 있고 약한 부처가 있다.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등은 막대한 예산과 풍부한 인력과 실무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부서는 예산규모나 인력규모에 턱없이 적어 부처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탈토건의 지속가능한 녹색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토부의 해체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계획과 집행을 분리시켜, 계획기능은 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집행기능 중에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인허가 등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하며, 주거복지기능은 보건복지부, 교통관련 업무는 교통청등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토건개발 전체를 지속가능성이라는 입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환경부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부' 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2~3년전만도 밀물처럼 진행되어온 재개발 재건축 붐은 지금은 분양도 어려울 정도로 파국을 맞고 있다. 더욱이 주택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대형평수 중심의 개발은 치명적인 사업적 실패를 노정하고 있다. 그동안 토건개발의 수요가 급감하고 건설사업의 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데도, 건설산업은 스스로 존립을 위해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엄청나게 늘어난 전국의 부동산중개소는 24시간 편의점수의 4배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 업계에서 말하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바로 이들 중개업소 종사자까지 먹고 사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성장의 사회를 살아야 한다. 과거에 공급자중심의 부동산건설 산업의 축소를 위해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고용관계와 하도급관계등의 변화시키고, 건설기술과 생산방식을 선진화하는 방식으로 '나쁜 토건' 에서 '좋은 토건'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개발이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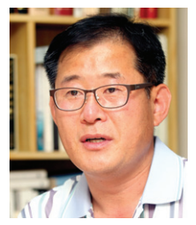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들은 땅이나 주택을, 사람이 머물고 기르고 사는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와 투기,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왔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아니 더 근본적인 것은 과거 수만년간 선조들이 만들어온 땅,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야할 땅을 '내 것' 이라는 소유관계로 구속시켜 현세대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파괴한 것이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반자연적 페러다임이 문제의 시발이다. 또한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개발요구의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기업은 자기가 개발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재부를 축적했다기 보다 부동산경기에 힘입어 땅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산 토건개발산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실한 노력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게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이 재개발을 무조건 찬성하고 집값 오르길 바라는 개발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의식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은 재개발과정에서 소외돼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지역에 수십년간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키는 애향심보다는, 투기를 위해 아파트와 아파트를 전전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에겐 이웃을 사귀어야 할 필요도 없고,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위해 지켜야 할 이유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며 살아온 것이다.

이제 저성장사회이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경향이다. 과거처럼 두 자리수의 성장을 도모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잔치는 끝난 것이다. 과거 투기적 욕망속에 살아왔던 시절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주민들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를 지역속에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고 돕는 호혜적인 경제, 협동적 경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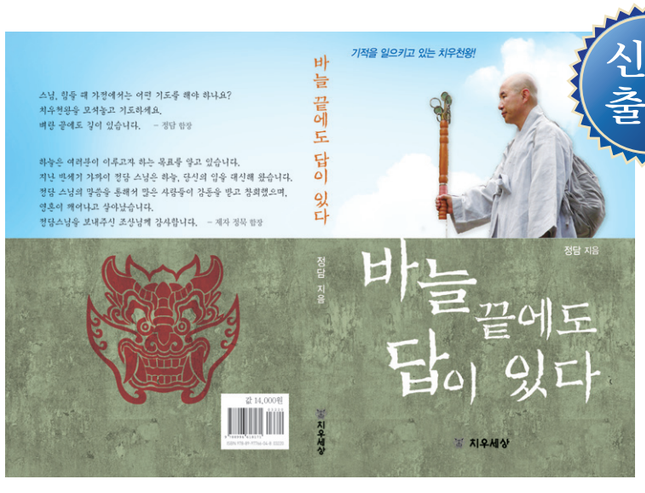
결국 돈이 없으면 믿을 건 사람뿐이다. 이웃들 뿐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강한 중앙권력의 사회가 아니라 분권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 사람이 한눈에 보이는 관계 인간적인 거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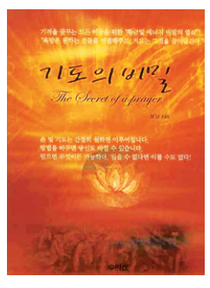
지금 토건마피아들은 남북이 통일된 뒤에 미개척의 북한을 엄청난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될 뿐이다. 철저히 지속가능한 녹색국가의 구상이 아니면 결국 북한의 산하들도 이들에 의해 관광개발과 난개발로 난도질되어 남한의 식민지가 되고, 북한주민들은 2등국민으로 전락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옵션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치우기도상 출시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 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055)932-4103, 010-9537-0034
Daum 카페 주소창에 합천용문사 검색 를 쳐보세요!

용문사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중간지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존자의 천안은 무엇을 보는가?… 또 한번의 경책

⑧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율

〈하〉진정한 천안



〈거조암 아나율 나한상〉

천안제일도 유마의 점검 받아
진정한 수행자의 길 깨달아
지옥까지 볼 수 있는 천안 열려
'정진' 은 가장 뛰어난 수행자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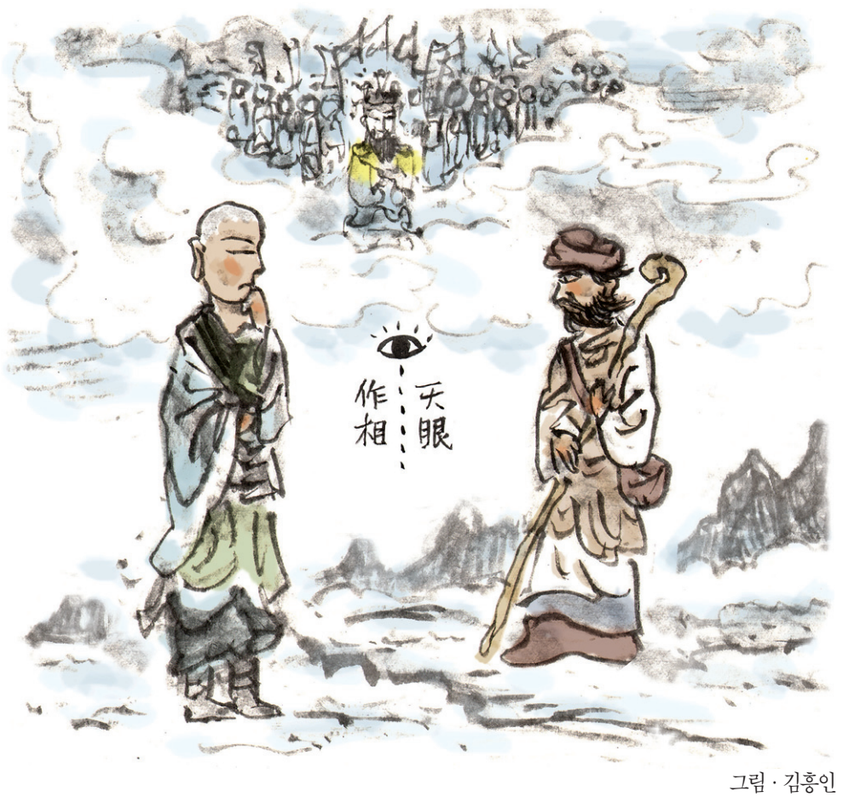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아나율은 실명을 불사하고 정진을 거듭한 끝에 비록 육신의 눈을 잃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지만 대신 지혜의 눈을 가지게 되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천안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을 얻은 아나율도 배움의 길은 끝이 없었다.

유마의 충고

아나율의 '천안'을 가장 여법하게 점검해준 이는 유마였다. 유마경에서 전한다. 유마가 아플 때였다.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이르셨다. "아나율 존자여,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아나율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를 뵐 자신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들었던 설법이 생각나서입니다." 아나율은 부처님께 고백했다. "언젠가 엄정(嚴淨)이라는 이름의 범천왕이 1만 명의 범천을 이끌고 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율 존자여, 그대를 천안제일이라 부른다 들었습니다. 그대는 과연 얼마나 멀리,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 "벗들이여, 마치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인 삼천대천세계를 한 눈에 봅니다." 그 때 지나던 유마가 아나율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나율 존자가 천안으로 보는 것들은 작상(作相)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작상을 본다면 5신통과 다를 게 없는 것이고, 작상이 아니라면 '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존자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나율은 그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작상이란 색(色)을 의미한 것으로, 진정한 부처님 법으로 생각한다면 색은 곧 공(空)과 같은 것이다.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유마의 지적은 그것이었다. 그리고 아나율은 그에 아무말도 못했던 것이다. 범천왕도 유마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에게 예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천안을 지닌 이는 누구입니까?" 유마가 대답했다. 부처님만이 참다운 천안을 가지고 계신데, 항상 삼매에 들어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빠짐없이 보면서 정작 아무런 분별심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1만의 범천이 유마의 설법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깊은 발심을 하게 됐고, 아나율과 유마에게 예를 올리고 돌아간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청에 유마를 뵐 자신이 없음을 위와 같이 이야기 했다. 아나율 존자는 또 한 번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게 됐고, 다시 초심을 붙잡아 정진한다.

최상의 여덟 가지 사유(思惟)

아나율의 수행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의 수행은 남달랐다. 멈추지 않는 원력이었다. 〈증일아함경〉 37권 팔난품에서 전한다. 아나율 존자가 네 부처님이 머물렀던 곳을 유행하고 있었다. 아나율은 생각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계덕과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모두 계율을 의지하여 이 바른 법 안에서 자라난다. 여러 성문들 중 계율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바른 법을 떠나고 계율과 상응하지도 못한다. 계율과 지식, 두 가지 법에서 무엇이 더 훌륭할까?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이 법은 만족할 줄 아는 이가 행할 바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이가 행할 바가 아니다. 이 법은 욕심이 적은 이가 행할 바로서 욕심이 많은 이가 행할 바가 아니다. 이 법은 한거(閑居)하는 이가 행할 바로서 번잡한 곳에서 행할 바가 아니다. 이 법은 계율을 지키는 이가 행할 바로서 계율을 범한 이가 행할 바가 아니며, 삼매에 든 이가 행할 바로서 어지러운 이가 행할 바가 아니고, 지혜로운 이가 행할 바로서 어리석은 이가 행할 바가 아닌 것이고, 많이 아는 이가 행할 바로서 아는 것이 적은 이가 행할 바가 아니다." 아나율은 이렇게 일곱 가지가 수행자가 지녀야 할 사유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여쭙기로 한다.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계셨다. 아나율이 부처님게 여쭈었다. "저는 계율과 지식,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에 대해서 사유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율아, 알아야 한다. 만일 비구가 계율을 성취하면 선정을 얻을 것이요. 선정을 얻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며, 지혜를 얻으면 지식을 얻을 것이며, 지식을 얻으면 해탈을 얻을 것이며, 해탈은 얻으면 무여열반에서 열반하게 될 것이니, 이로써 계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법을 들은 아나율은 다시 자신이 품었던 수행자의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여쭈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나율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사유'다. 욕심을 적게 가져야만 만족할 줄 알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계율을 성취하고, 삼매를 성취하며, 지혜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며, 지식을 성취하라. 아나율 존자여, 그대는 이런 뜻을 세워 내가 설하는 여덟 번째를 더한 '여덟 가지 수행자의 사유'를 깊이 간직하라. 그 여덟 번째 법은 정진하는 이가 행할 바로서 게으른 이가 행할 바가 아닌 것이다." 부처님이 마지막 여덟 번째 법을 더해 법을 완성한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은 30겁 동안 정진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되며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요. 나도 정진의 힘으로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나율아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는 모두 똑같은 유(類)로서 그 계율과 해탈과 지혜가 같아 조금의 차이도 없으며, 또 공(空)이고 상(相)이 없고, 원(願)이 없는 것도 같으며, 32상과 80종호로 그 몸을 장엄하여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고 모두 같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진만큼은 같지 않으니,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 중에서 정진으로는 내가 제일이니라. 그러므로 이 여덟 번째 수행자의 사유가 가장 뛰어나고 높고 귀한 것으로서 가히 비유할 바가 없느니라. 그 여덟 가지 수행자의 사유 중에서 정진이 가장 뛰어나 더 이상 견줄 것이 없으니 그 여덟 가지 대인의 사유를 대중에게 설해주어라. 그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면 나의 제자들은 모든 도를 성취하리라." 이 때 아나율이 깨달은 깨달음은 아나율의 수행 과정에서 가장 수승한 깨달음을 얻은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아나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깨달았던 것이다. 잡아함경 19권에 의하면, 목건련 존자는 그에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러 덕목인 37각지(三十七覺支)와 사념처(四念處)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였으며, 비구들은 그에 대해 아나율에게 설법을 청했는데, 이 37각지에는 사념처를 비롯하여 팔정도, 사무량심 등 부처님 당시 수행의 전 체계가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의 정수 중에 정수라 할 수 있다.

지옥을 보다

아나율의 천안은 점점 깊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까지 보게 된다. 지옥을 본 그는 궁금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왜 저토록 지옥이 넘치는가? 어떤 이들이 지옥으로 가는가." 아나율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탐욕의 마음을 거두지 못해서 인색하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보지 못해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넘치는 것이다." 이 때 부처님은 지옥이 넘치는 것을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버리지 못함에서 온 것이라며, 중생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마음이 탐욕에 물들었고, 성냄에 물들었고,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에 오온(五蘊)에 대한 애착과 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윤회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기둥에 묶인 개가 기둥을 벗어나려면 기둥에 묶인 끈을 풀어야 하듯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하시며, 내 마음이 번거러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이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고 설했다.

부처님의 열반을 지키다

부처님의 육신도 많이 쇠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거운 짐과 같았던 몸과 마음조차 소멸하는 열반에 드는 일만 남았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인 수밧다가 구족계를 받던 날 밤이었다. 수밧다가 구족계를 받고 물러가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곁엔 아난다와 아나율이 있었다. 아난다와 아나율은 알고 있었다. 부처님의 열반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구들이 하나 둘 부처님 곁에 들었다. 5백비구가 모이자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부처와 법과 승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물어라.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 내 살아 있을 때 그대들을 위해 설해주리라."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부처님이 거듭 물으셨다. 그래도 답하는 이가 없자. 아난다가 여쭈었다. "이 자리의 대중은 모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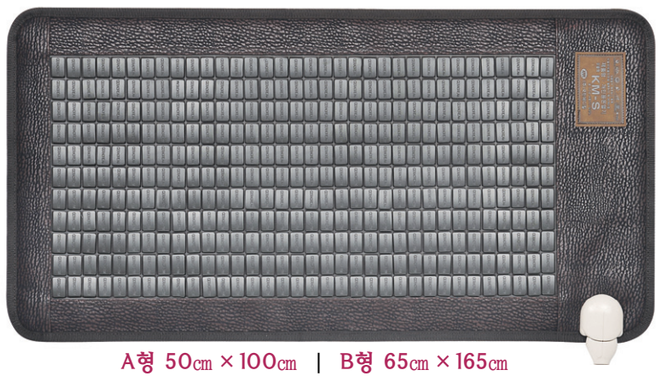
부처님은 오백 비구의 청정한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한 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나는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눈을 감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부처님의 곁을 지키던 아나율이 대중에게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의 선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멸수상정(滅受想定·열반의 또 다른 말로, 마음의 모든 작용이 끊어진 상태)에 들어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연 맺은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인내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어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나율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열반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게송을 읊었다.

"무위에 머무시는 부처님 / 나고 드는 숨결 멈추시도다 / 본래 적멸에서 오신 부처님 / 신비로운 광채 이곳에서 거두시도다" 아나율과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법담을 나누며 밤을 지새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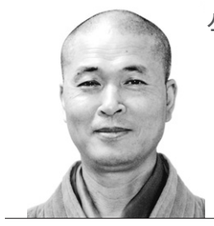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결집에 참여하다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인연을 다해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전해오고 있다. 수행자의 가르침이 실제 수행으로 열반을 증득한 제자들을 통해 계승됐다면, 교학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며 합송하는 결집을 통해 계승됐다. 여섯 번의 결집이 있었는데, 아나율도 결집에 참여한다. 칠엽굴에서의 1차 결집에서 먼저 계율의 결집이 끝나고, 경장의 결집이 있었는데, 아나율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앙굿따라 니까야-증아함〉을 계승했다. 지금 우리 손 위에 놓인 〈증아함〉은 아나율과 그의 제자들의 음성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1250의 제자들이 있었다. 출가 후 수마에 굴복해 부처님께 엄한 경책을 받았지만, 강한 발심의지와 서원의 힘으로 자신의 과오를 극복해낸 아나율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힘겨운 길을 걸었던 제자 중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집에 참여한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 한 마음이었겠지만 아나율은 남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안을 잃고 난 후부터 아나율은 부처님의 육신을 보지 못했다. 늘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내며 마음의 눈으로 그의 가르침을 읽어냈다. 아나율이야말로 문자의 세계를 떠난 수행자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과 함께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사자굴에서 스스로 나와라

어떤 스님이 조주선원을 떠나겠다고 하자 조주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다른 데에 가서 혹시 남에게 '조주를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다만 '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한 마리의 당나귀다. 그대는 어떻게 보겠는가?"

학승은 말이 없었다.

因僧辭去 師云 闍黎出外 忽有人問 還見趙州否 你作麼生祇對 云只可道見 師云 老僧是一頭驢 你作麼生見 僧無語

이때는 "일일부작 일일불식(日日不作 日日不食)하라" 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스님이 설봉(雪峰) 스님이 있는데서 찾아왔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네. 내가 있는 장소는 한낱 난을 피할 장소일 뿐이야. 불법은 모두 남쪽에 있다. 그런데 자넨 그쪽에서 와놓고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불법에 어찌 남쪽의 것, 북쪽의 것이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혹 운거(雲居)나 설봉(雪峰)이 있는데서 왔다고 하더라도 다만 하나의 널판을 지고 다니는 사내일 따름이야."

학승이 말했다. "그쪽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무엇 때문에 간밤에 오줌을 쌌는가?"

학승이 말했다. "도달한 후라면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번에는 똥을 쌌군."

有僧從雪峰來 師云 上座莫住此間 老僧者裡 只是避難所在 佛法盡在南方 云佛法豈有南北 師云 直饒你從雲居雪峰來也 只是箇擔板漢 云未審那邊事如何 師云 你因甚夜來尿床 云達後如何 師云 又是屙屎

당시 조주 선사는 북방에 있었고, 그보다 남쪽에 선법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널판은 스승의 스승들을 기록한 승려들의 족보다. 예전에 납자들은 자기의 계보를 알릴 수 있는 널판을 가지고 다녔다. 진정한 납자라면 한 사람의 스승으로 족하다. 스승이 할 일은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을 알아보는 안목이다. 간밤에 오줌 싸고 똥을 싸는 것은 지저분한 일이다. 선사들은 남의 집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설사 남쪽에 어떤 선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도 불법을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문중의 가풍으로 인정하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장삼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 싸우는 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보였다.

"나의 이곳에는 동굴을 나오는 사자도 있고, 동굴 속에 있는 사자도 있다. 다만 사자를 얻기가 어려울 뿐이구나."

그때 어떤 학승이 탄지(彈指)함으로써 그 말에 응답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사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사자라고 말한 것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인데, 자네는 더욱 뛰거나 밟거나 하면서 사자의 흉내를 내는가?"

示衆云 我此間有出窟師子 亦有在窟師子 只是難得師子兒 時有僧彈指對之 師云是什麼 云師子兒 師云 我喚作師子兒 早是罪過 你更行趯踏

한국 불교의 납자들은 누구든지 사자 새끼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자의 굴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미 사자의 젖을 찾는 새끼로 만족하고 굴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자들이 모두 어미 사자처럼 늙어 가는데도 사자의 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탄지(彈指)까지는 좋았다. 그 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었을 때 대답이 중요하다.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조주 선사가 "오늘 하나의 사자 새끼가 하나 밖으로 나왔구나" 하고 말하겠는가? 여기에 적절한 대답이 있지만 혹 여우가 사자의 흉내만 낼까 두려워 지금 당장 발설하지는 못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41〉

번뇌-⑤근본번뇌 만慢 · 의疑 · 악견惡見

괴로움 돌아보면 번뇌 털어낼 수 있다

탐욕[貪] · 분노[瞋] · 어리석음[癡]에 이어 근본번뇌의 다음 세 가지는 만(慢) · 의(疑) · 악견(惡見)이다. 이중에 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그 보다 높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낮추는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비교하거나 비교 당함으로써 괴로움을 느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비교에 의한 괴로움은 세상의 수많은 번뇌 중에서도 그 비중이 크고 그로부터 또 다른 번뇌들이 파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만을 근본번뇌로 분류했다.

이와 같이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스스로를 더 잘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만(慢)에는 다시 3만, 7만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3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승만(我勝慢)과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아등만(我等慢), 자신보다 매우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조금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아열만(我劣慢)을 말한다. 7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는 우월감인 만(慢), 자신과 동등한 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과만(過慢),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는 만과만(慢過慢),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아만(我慢), 아직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증상만(增上慢),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에 대해 자신이 조금만 열등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비만(卑慢), 덕(德)이 없는데도 스스로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만(邪慢)이 그것이다. 어떤 종류의 만이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의 큰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疑)는 의심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불 · 법 · 승의 삼보(三寶)를 의심하고 선과 악의 업보(業報)를 의심하고 삼세인과(三世因果)를 의심하고 사제(四諦)와 연기(緣起)를 의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근본원리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므로 의는 고로 부터의 해탈에 장애가 되는 번뇌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견(見)은 본래 심사숙고해서 형성된 견해를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주로 잘못된 견해로서의 근본번뇌를 말한다. 이 견에는 유신견(有身見) · 변집견(邊執見) · 사견(邪見) · 계금취(戒禁取) · 견취(見取)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무상한 오온으로 이루어진 신체에 대해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를 유신견이라 한다. 또한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생각과 끊어진다고 하는 생각, 유한하다는 생각과 무한하다는 생각, 여래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생각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등의 극단적인 견해에 치우쳐 있는 견해는 변집견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견은 모든 잘못된 견해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인과를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을 사견이라고 한다. 인과를 포함해서 연기를 부정하는 한 불교의 가르침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견취는 배타적인 이론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 매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번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금취는 고행 등이 해탈을 얻기 위한 바른 수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탈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진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괴로움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갖가지 마음의 움직임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 중 아주 많은 부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㊻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내게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의 행복이 있다. 아니, 비밀이라 할 것도 없다. 아는 분들은 다 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수 없다. 그러나,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행복임은 사실이다.

바로 '남산 걷기' 다. 이 남산은 우리 학교 밖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 재산이다. 아니, 우리 학교가 남산 속에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남산자락에 터를 잡아주신 우리의 선각자들에게 한없이 감사한 염(念)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학생식당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섞여서 "비빔밥" 한 그릇을 비벼먹는다. 그 학생식당(상록원) 뒤에 남산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오르면, 남산 산책로와 만나게 된다.

요즘은 단풍이 곱다! 좋다. 금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풍은 낙엽으로 떨어져도 이쁘다"는 것이다. 알록달록 단풍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알록달록하다. 산책로에 단풍이 떨어져서 수북이 쌓여 있다. 일부러 그 위를 밟고 간다. 가끔은 그 단풍 속으로 발을 넣어보기도 한다.

남산 산책로는 가을만 좋은 것은 아니다. 봄은 봄대로 개나리, 벚꽃 등이 활짝 핀다. 말 그대로 "꽃대궐 차리인 동네"가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남산 산책로의 "벚꽃이 여의도보다 더 좋다"고 말하였다. 산책로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무에 연두빛 물이 올라올 때도 참 좋다. 그 연두빛에 눈에 맞추면 내 눈이 다 맑아질 것같다.

여름과 겨울 역시 좋지 않을 수 없다. 여름은 여름대로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해 주고, 겨울은 겨울대로 존재의 본래 면목을 보여준다. 벌거벗은 나무,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공무원들 칭찬을 잘 안 하는 성격이지만, 남산 산책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꾸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관리라 하면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많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같다. 오늘은 폐목으로 얕은 담장을 친 평상을 또 새로 놓아두었더라.

작년부터인가. 이 산책로에는 물이 흐른다. 늘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남산을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나는 살아왔다. 살고 있다. 자주자주 떠오르는 말씀은 송나라의 천동여정(天童如淨)선사이다.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라."

나는 이 남산 산책을 통해서, 그 덕분으로 40대 후반을 별 문제없이 넘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면, 건강을 되찾고 나면 걷기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저 걷는 것이 좋다. 그저 걸어야 한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

그런데 늘 자주 이 길에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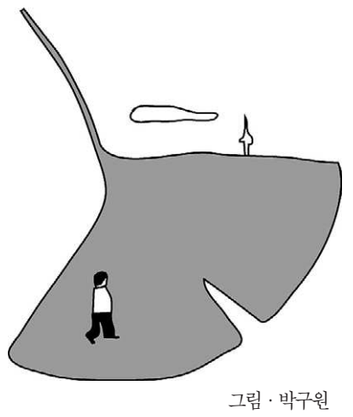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안타까워한다. 왜 사람들은 이 길을 걷지 않는 것일까? 우리 학교의 교수 교직원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도 이 길을 걷는 분들은 10%나 될까? 하긴 나도 그랬다. 겨우 7~8년 전부터 걷기 시작하였을 뿐, 그 전의 7~8년은 걷지 않았다. 걷지 못했다, 라고 하지는 말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일까?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길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은 내게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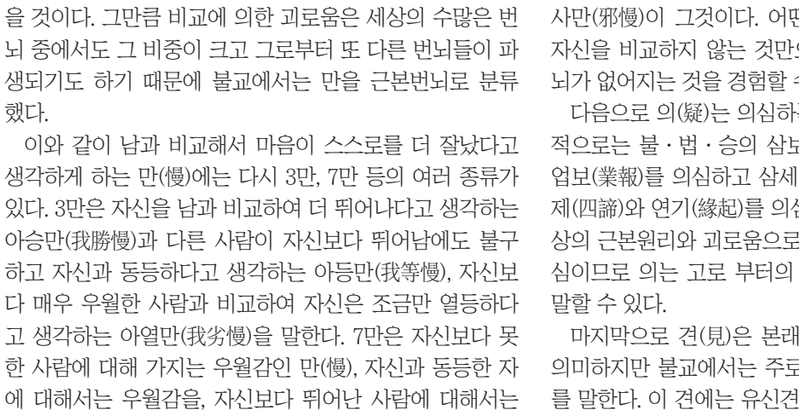
그 '길' 은 스승님, 바로 우리 부처님이다. (이미령 옮김, 〈붓다의 과거세이야기〉, 민족사, 29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 인 사



세척력이 강력한
유황 한방비누,활피모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과학박사(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린징 대용, 건강피부 유지, 애완견 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명리학 학인 모집

활 인 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방충,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흰개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의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재,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 재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 (HT제 2008-0001/36호)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dongwhaind.co.kr

동 화 특 수 산 업

031)451-6232 / 팩스 031)451-6238

설 법 · 화 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1〉

‘불국토’ 창립… 계층 복지 불사

부산 포교 · 복지 새 지평 연 혜총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 1943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보경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1964년 지효 스님에게서 건당(建幢). 당대 율사 자운 스님을 40여년 모셨다. 2011년 11월까지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감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공양하는 마음〉 등이 있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웃음꽃이 핀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스님의 걸걸한 입담과 위트, 재미있게 풀어주는 부처님 이야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천진하게 웃는 스님의 모습은 만나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실제 포교원장 재직 당시에도 스님의 집무실 문턱은 매우 낮았다. 누가 찾아와도 물리는 법이 없었다. 도리어 손수 집무실 냉장고 문을 열어 박카스 한 병을 손에 쥐어주고 들길 청했다. 그래서 지자(知者)들 사이에서는 스님을 ‘박카스 원장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늦가을, 주석처인 부산 감로사를 찾았을 때에도 스님은 신도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겸연쩍었지만 그 이야기 꽃밭에 함께 앉았다. 묻지 않아도 스님의 이야기는 법문이 돼 흘렀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가장 먼저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었다. 출가의 인연이 궁금해서다. 스님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루는 탁발 오신 스님이 나를 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서른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 길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통도사로 찾아가 출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바로 시켜주지 않더라구요.”

출가를 결심하고 통도사에서 만난 스님이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이었다. 자운 스님은 어린 혜총에게 3천배를 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 혜총은 의아했다.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운 스님은 어린 혜총에게 “오늘의 공덕이 무궁한 복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한 마디에 어린 혜총은 9시간 동안 밤새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했다.

“스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어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모든 것은 ‘업 놀음’임을. 업이 있어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을 없애는 것이만이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출가부터 이어지는 3000배 원력

혜총 스님이 출가하며 세운 3000배의 원력은 지금도 주석처인 감로사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3000배 참회기도법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감로사를 ‘삼천불 삼천배 기도 도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감로사 3000배 참회기도법회는 6 · 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처님 출가일에 앞서 자운 스님을 비롯한 성철, 향곡, 석암, 월하, 지관, 일타, 월산, 청담, 운허, 영암, 벽암, 법전 스님 등 당대 최고 고승들이 이곳 감로사에 모여 국난극복 위해 참회법회를 봉행했죠.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자운 스님께 허락을 받고 80년대부터 제 출가 원력인 ‘3000배 참회’를 합쳐 참회 기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혜총 스님은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을 40년을 시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고될 만도 하지만 혜총 스님은 단박에 고개를 저으며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득(佛法難得)’이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인간의 목숨으로 세상에 나오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정법난득(正法難得)’, 정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자운 스님을 비롯해 성철, 향곡, 구하 스님 등 최고 선지식들을 두루 만나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모든 사미를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은 어린 저와 씨름 시합을 벌일 정도로 친근히 대해 주셨습니다. 시봉이라기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지요.”

자운 스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자란 만큼 스님을 시봉하는 데 어려움보다는 환희심이 컸다는 말이다. 자운 스님의 임종 순간을 지킨 것도 혜총 스님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운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혜총 스님은 재발심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뇌성마비자 보며 복지 · 포교 발심
용호종합사회 복지관 · 어린이집
양정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
16개 시설… 직원 1000여 명

“출가 장려 · 포교회관 건립,
다시 한번 뛰고 싶습니다”

“평소에 자운 스님께 저에게 해외를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도 좋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님께서는 임종 전 ‘금생도 좋지만 내생도 좋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혜총 스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답하고 견문을 넓히며 수행애 매진했다. ‘아난다가 부처님 입멸 후 개족산 벼랑에서 정진하듯’ 공부했다고 스님은 당시를 회상했다. 이 같은 깨달음과 재발심이 ‘포교’라는 원력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쓰린 과거가 복지 · 포교 원력으로

사실 혜총 스님에게 붙는 수식어는 ‘포교’와 ‘복지’다. 1986년 사단법인 ‘동련’이 출범하면서 혜총 스님의 본격적인 포교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맡은 혜총 스님은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까지 이끌며 부산 지역의 새로운 포교지평을 열었다.

2004년 북한의 용천참사 사건이 발생하자 부산 참여불교운동본부를 통해 ‘통일신발’ 보내기에도 적극 나서며 북동포 돕기에도 남다른 노력을 쏟아부었다. 부산 동명대학교 불교대학에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혜총 스님이 정관 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시작한 사단법인 불국토는 부산지역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복지사를 새로 쓴 단체였다. 1994년 부산지역 불교 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산 진구청으로부터 개금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권자로 선정됐고, 1995년에는 더 많은 포교,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았다.

현재 불국토는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법인으로 세분화됐으며, 혜총 스님이 대표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에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수영구노인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등 총16개의 시설이 있다.

혜총 스님이 이 같은 복지와 포교에 원력을 세운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일화가 있다.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당시를 술회했다.

“1980년대 초 뇌성마비복지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열심히 뇌성마비 복지시설들을 위문하러 다녔습니다. 설날 즈음 뇌성마비 장애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먹던 것을 전부 게워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좋은 일을 한다고 우쭐대며 돌아다니지만 결국 너는 위선자다. 네가 장가를 가 저런 아이를 낳았다면 토했겠는가, 너는 아비도 못되고 당사자인 장애우도 될 수 없구나’라며 자책했습니다. 정말 중생들을 위한 포교와 복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1990년대 부산 지역 포교와 복지를 이끌어오며 부침은 한 번도 없었을까? 스님은 어려웠지만 스스로 가진 신심과 원력, 행원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상 일이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따르는 신심과 제가 세운 원력, 꾸준한 행원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스님이 말하는 신심과 원력, 행원은 혼탁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속인들이 귀담아 들을만하다. 올바른 선지식과 도반을 만나 신심을 갖고, 부처님과 보살처럼 장대한 원력을 가진 후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심과 원력으로 포교원장 활동

이 같은 ‘신심 · 원력 · 행원’은 포교원장 재직 당시에서도 그대로 발현됐다. 2006년 11월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부임한 혜총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 수립해 기존 어린이청소년포교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어린이 전법도량 선정을 추진하는 등 현재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신도 품계 도입 ▷종단 사상 첫 전법단 구성 ▷지역별 포교결집대회 등의 각종 포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체육인 불자 육성 등 계층 포교 기반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체육인 불자들의 신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매개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던 스님은 2007년 8월 창립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발기인총회를 거쳐 10월 체육인불자회를 탄생시켰다. 2008년에는 선수촌에 법당도 개원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포교 환경 발전의 토대를 만든 스님은 2011년 11월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적멸보궁 金剛山 乾鳳寺 “DMZ 평화 템플스테이”

남한에서 유일한 금강산,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아름다운 산세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년고찰입니다. 이러한 건봉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을 담은 “DMZ 평화 템플스테이”를 아래 일정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템플스테이 일정

1. 제1기 : 2012년 12월 14일 ~ 16일(2박3일)
   제2기 : 2012년 12월 28일 ~ 30일(2박3일)
   제3기 : 2013년 1월 11일 ~ 13일(2박3일)
   제4기 : 2013년 1월 25일 ~ 27일(2박3일)
2. 템플스테이 동참금 : 1인 7만원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고, 종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3. 온라인구좌 : 농협 301-0026-6674-61
   (예금주 : 건봉사)
4.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화(편한신발)
   여벌옷 (방한복).



민통선안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전화 033-682-8100 / 팩스 682-5994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수행과 포교는 새의 양 날개”



포교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당시 개최한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혜총 스님이 시축하고 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해 진행한 청소년자원봉사학교의 길거리 캠페인 모습. 이 복지센터는 혜총 스님이 대표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단체다.


불기 2504년 4월 16일 통도사 결제 기념사진. 사진 오른쪽 제일 아래 동자승이 혜총 스님이다.

여법하게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같이 포교와 복지에 평생에 원력 받친 스님에게 이 두 가지 원력은 곧 수행과 같았다. 그래서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한다.

“불교를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수행과 포교, 두 가지 뿐입니다. 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포교원장 재직 당시 슬로건을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고 정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포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에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포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혜총 스님은 지금도 한국불교 포교 발전 방안을 구상 중이다. 스님이 계획하는 발전 계획은 총 세 가지다. 먼저 포교를 위해서는 눈 밝은 선지식을 배출하기 위한 출가 장려 운동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출가를 시켜야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가자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여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준 높은 스님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가불자들에게 아이를 셋 이상 낳아 한 명을 출가 시키는 방안을 권합니다. 종단도 승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각급 승가학교를 만들어 동진 출가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불교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교와 전국 각지 포교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가자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만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생활을 불교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지역사회와 경제에 회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에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 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조성해 지역불자들이 먹고 즐기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수행과 포교는 세상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운 3대 지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총무원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현생에서 안된다면 내생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 포교할 것입니다.”

감로사를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가는 해를 맞는 불자들에게 덕담 한 마디를 청했다. 스님은 ‘무상함을 알라’고 즉답했다.

“가는 해는 늘 가고, 오는 해는 늘 오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는 이 표피만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이 해가 갈수록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이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상함을 알라면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벽같이 깨어있으라’고 설했습니다. 이를 알면 두 번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알고 깨어있으십시오.”

감로사를 나오니 저녁해가 남해 바다로 넘어가고 있다. 촘촘히 밝혀진 가로등 불빛은 애처롭다. 다시 한번 혜총 스님의 법문이 곱씹어졌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부산 · 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매 뉴 얼


동국대 명예교수

소포를 부쳐야 했다. 물건을 챙겨 잰걸음으로 우체국을 향했다. 가는 길목 오른편에 세검정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을 보는 순간 붉은 소화기가 정연히 놓여 있기에 안도감이 들어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몇 발짝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탕춘대가 있던 곳이 나온다.

세검정이란 명칭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다. 〈궁궐지〉에 의하면 이조반정 때 이귀 · 김류 등의 반정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의 폐위를 의논하고 뜻을 같이 하여 칼을 갈아 씻었던 자리라고 해서 세검정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런가 하면 〈동국여지비고〉에는 세검정은 열조(列朝)의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세초(洗草), 즉 사초를 후환이 없도록 물에 씻어 흐려버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장마가 지면 도성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 구경을 하였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경지략〉에는 정자 앞의 판석은 흐르는 물이 갈고 닦아서 인공으로 곱게 다듬은 것 같이 되었으므로, 여염집 아이들이 붓글씨를 연습하여 돌 위는 항상 먹물이 묻어 있고, 넘쳐흐르는 세사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령폭포가 있다고 하였다.

정자가 있는 지역은 한성의 북쪽으로 지리상 목구멍에 해당되어 영조 때에는 총융청을 이곳으로 옮겨 엄하게 하였으며, 북한산성의 수비까지 담당하게 하던 곳이다. 총융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군사들이 쉬는 자리로 정자를 지은 것이 세검정이기도 하다. 김상채가 지은 〈창암집〉에는 육각정자로서 영조 23년(1747)에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검정의 설이 분분하여 몇 자 적어 보았다.

우체국에 이르니 봉투며 상자가 있는 선반위에 정돈된 매뉴얼이 보였다. 물건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상자를 골라 물건을 넣고 포장하고 나니 안성맞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란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쏙 들게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뉴얼이란 사용서 · 설명서 · 안내서를 이르는 말이다. 경영의 의지결정 방법을 나타낸 규정서부터 안내서까지 통 털어 이르는 말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매뉴얼도 긴요하다. 그 안내서대로 따라하면 별반 탈이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나 집단도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기상천외의 일이 생기기도 한다. 혹자는 어찌 세상을 공식대로만 사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생각해 보자. 공식을 이탈하게 되면 탈법이 되고 만다. 공식은 불편한 듯 보이지만 익히고 나면 훨씬 편리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 무질서가 자유분방하고 편리한 듯 하기도 하다. 그러나 무질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 순조로움이란 어디에도 없다.

관공서에 놓여 있는 많은 서식 용지를 본다. 세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간혹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개선을 거듭하여 이상적인 답안을 낸 양식이다. 교통신호도 그렇다. 몇 초를 나누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호관계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신호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활보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면 저런 행위도 용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뿐이랴. 보행자의 여유도 앗아가며 쏜살 같이 질주하는 운전자의 모습에서 이내 질서는 실종되고 만다. 저 주저리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주저리는 나무가 겨울을 나는데 눈 · 비를 가리며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라고 나무줄기에 볏짚을 모아 토시 같이 씌워 놓은 것을 말한다. 볏짚은 마지막까지도 헌신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그만 못한 경우도 더러는 눈에 뜨인다.

능률과 효율이란 면에서 매뉴얼은 필요하다. 습관이란 어느 규칙에 의해 몸에 익은 행위이다. 그 습관대로만 행동하고 산다면 창조된 삶이라 할 수 없다. 창조는 매뉴얼과는 별반 상관없는 일이다. 어느 과학자나 작가가 매뉴얼에 따라 연구하고 집필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석중이와 다를 것이 없다.

성인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매뉴얼이란 통용될리 없다. 기성세대의 안내서도 통용될리 만무하다. 통용의 길은 외통수다. 단 하나 양심의 문이 있다. 양심은 가르쳐서

능률과 효율면에서 필요만 매뉴얼
과학자 · 수행자에겐 무관한 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은 익혀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양심은 천성이기 때문이다. 양심은 변형될 수 없는 숭고한 덕성이다. 붉은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꽃은 그들이 지닌 천부의 속성이듯이 뒤바뀔 수 없는 문제다. 양심의 하이브리드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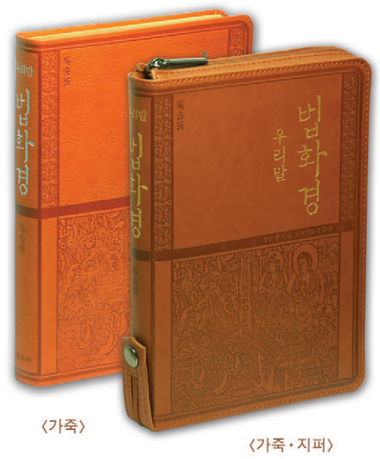
세상사는 원리야 간단하지 않은가. 나의 길 열심히 가면 되지 왜 곁눈질 해가며 시류에 편승하여 헐떡거리며 사는가. 헐떡거림은 평정심을 잃는 행위이다.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야기된 일이다. 이 세상에 제일 경계해야 하는 일은 양심을 상실하는 일이다. 양심이 소멸된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양심이 소멸된 세상에는 태양도 빛이 바래고 달도 은색을 잃고 만다. 바람도 그 속성을 잃고 말 것이다. 물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해와 달이 잠들고, 바람이 소멸되고, 물이 고갈된 세상은 세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혼돈만이 존재하겠지.

세존의 음성이 귓전에 맴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그러려면 우선 침묵하거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법을 논하거라. 그것만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값진 일이다.”

무성했던 잡초가 이제 방석으로 바뀌어 행인을 쉬어가라 손짓한다. 자연은 매뉴얼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대강백 무비 스님과 대심 거사 조현춘 교수가
누구나 즐겁게 독송할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가사체 경전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가사체 금강경 즐겁게 부르자 행복의 노래 Ⅰ
가사체 반야심경 즐겁게 부르자 행복의 노래 Ⅱ
가사체 부모은중경 즐겁게 부르자 행복의 노래 Ⅲ
대강백 무비 스님과 대심 거사 조현춘 교수가 누구나 즐겁게 독송할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가사체 경전
운주사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96쪽/5,000원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88쪽/5,000원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100쪽/5,000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독송!

〈가죽〉 〈가죽 · 지퍼〉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국판양장/금장 630쪽/가죽: 20,000원/가죽 · 지퍼: 25,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美, 인종간 불교공동체 소통 부재

도심 명상센터, 유럽계 미국인 불자 전유물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미국 불교계는 과연 그 다양성을 충분히 끌어안고 수행과 신행에 노력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양성 보다는 차별성에 주목,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지가 11월 18일 미국 시애틀의 '유색인 불교공동체(People Of Color Sanghas)'의 활동을 다루며, 미국 불교계에서 백인 불교공동체와 유색인 불교공동체 간의 간극을 조명해 주목된다.

허핑턴 포스트 지는 보도에서, 인디언계 여성불자 테레사 파워스(Teresa Powers · 54)의 "유색인으로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가를 세삼 깨닫게 된다"는 말을 인용, "1967년 열린 세계불교승가심의회(World Buddhist Sangha Council)에서 처음으로 유색인 불교공동체 간의 통섭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40여 년이 흘렀지만, 그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테레사 파워스는 시애틀 캐피탈 힐(Capitol Hill)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마련되는 명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명상 모임에는 아프리카계 · 인디언계 여성불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을 뿐 벽안의 여성불자는 찾아 볼 수 없다.

"유색인 불교공동체는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 12개나 생겨났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는 툴레 세라(Tuere Sala · 38) 지도법사는 "부처님은 차별성을 금기시했지만, 도심 명상센터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들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유색인 불교공동체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미국 불교계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 간의 차별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툴레 세라는 캐피탈 힐 지역의 유색인 불교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흑인계 미국인으로, Seattle Insight Meditation Society(이하 SIMS)의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애틀인사이트명상그룹(Seattle Insight Meditation Society) 대표 로드니 스미스 · Rodney Smith)가 지도법사를 파견, 후원하고 있는 캐피탈 힐 지역 유색인 불교공동체 명상 모임 모습.

"아프리카 · 인디언계 미국인 불자 소규모 수행 · 신행공동체 만들어"

샤론 수 시애틀대 교수, "두 불교 공동체 간의 소통, 가로막혀 있어"

허핑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미국 내 불자는 2백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두 가지 신앙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의 신앙 패턴이다. 이민 2세이기도 한 그들은 1965년을 기점으로 출생했는데, 자신의 집과 사찰을 잇는 신행에만 몰두하며 환생이나 열반을 굳게 믿고 있다.

다른 하나의 신앙 패턴은 유럽계 미국인 불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문화적 관심으로써 불교를 배우며, 자신의 스트레스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명상 · 선 · 위빠사나 등 불교 수행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샤론 수(Sharon Suh · 시애틀대) 교수는 "아시아계를 제외한 유색인 미국인들이 불교를 알고자 하는 바람이 커가고 있지만, 명상센터와 같이 그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 불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색인 불자와 아시아계 및 유럽계 불자의 배움 정도의 차가 크다는 것 역시 두 불교공동체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풀이했다.

시애틀 유색인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만의 수행 프로그램을 최근 개설, 운영하고 있는 SIMS 대표 로드니 스미스(Rodney Smith)는 "불자라면 차별 없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개발하고 행복과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애틀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서 민족 간의 차별성이 그대로 수행과 신행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Councils)를 결성한 매사추세츠 불교공동체의 방법론에서 그 해법을 찾아봄직 하다"고 지적한 두란(Duran · 워싱톤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인종주의는 사람을 보는 매우 천박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상호 공동체 간의 소통이 원하라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마음챙김명상, 감기에 효과적

美 위스콘신-매디슨대, 연구로 검증

겨울철 자주 걸리는 감기를 명상으로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

인도 통신사 PTI(Press Trust of India)를 비롯한 파키스탄 언론인 파키스탄 옵저버 11월 18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연구진은 8주 간 명상을 하거나 적절히 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마음챙김 (Mindfulness) 명상이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절감시키며 면역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49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은 현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마음챙김 명상을 진행했고, B그룹은 8주간 규칙적으로 조깅을 실시했다. 나머지 C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5월부터 9일까지 8주간 참가자들에게 감기 증상이 발견되면 3일 후 코분비물을 수집해 분석했다.

결과는 명상을 한 A그룹의 감기 발병 비율이 C그룹에 비해 76%나 낮았다. B그룹 또한 C 그룹에 비해 48%나 적게 나타났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명상을 한 그룹은 감기증상 지속기간 감소와 급성호흡기 감염 비율도 50%나 적었으며 운동을 한 경우는 40%정도 효과가 있었다.

연구를 이끈 부르스 배럿 박사는 "명상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50% 이상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30~40%의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명상의 효과를 입증했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시진핑 시대 개막… '친불교' 기대

아버지 · 부인 모두 불교와 인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사진〉가 중국의 새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외신 등 주요 언론에서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티베트 독립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친(親)불교 성향을 이용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티베트 독립까지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티베트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1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 설법에서 "시 국가 부주석 중심의 차기 중국 지도부가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달라이라마는 시 총서기의 친불교적 성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키리크스는 2011년 미 국무부의 중국 관련 외교 전문 내용을 근거로 "시 총서기는 지방에서 당서기로 일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특히 승려들의 기공과 초자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달라이 라마는 2011년 3월 인도 다람살라에 모인 기자들에게 "시 총서기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중국 현대불교학 연구 이끄는 선구자

세계의 불교학자(41)

라이용하이 중국 남경대 교수



중국의 불교학 연구는 1949년 공산화 이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단됐다. 198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현대불교학의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족의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중국불교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이용하이(賴永海) 중국 남경대 교수는 1980년대 현대불교학 연구를 앞장서 이끌고 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중국에서 불교가 성행하는 푸지엔성(福建省) 민난에서 1949년 출생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학을 접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1978년 사회과학원의 임계유(任繼愈)선생을 지도교수로 석사과정에서 중국철학을 전공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라이 교수는 1965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되고 현대화로 변모하던 시기에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특히 승조(僧肇)의 〈조론(肇論)〉 가운데 〈부진공론(不眞空論)〉에 매료됐다. 이때 라이 교수는 불교에 유가와 도가철학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철학적 사유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1982년 중국 대학에 최초로 박사과정이 개설되면서 라이 교수는 박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하게 된다.

이때 라이 교수는 중국철학을 연구하면서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뿌리 내릴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대승불교만이 발전하게 됐는가' '중국 전통사상인 유가, 도가와 불교는 어떻게 융합하는 가' 등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서 그는 영국 옥스퍼드 인명록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든다. 바로 '중국불성론'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라이 교수의 '중국불성론'은 당시 중국 불교학계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단절됐던 불교학 연구를 재개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유(儒) · 불(佛) · 도(道)의 상호관계 속에서 중국불교의 전개를 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국불교의 전개는 중국철학의 전개와 나누어질 수 없으며, 서로 병행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불교학이 주류를 이뤘던 수 · 당대는 불교학의 내용과 깊이가 유 · 도 양가를 초월하고 있고, 송 · 명의 이학(理學) 역시 겉은 유가지만 속 내용은 불교를 표방하고 있었다. 때문에 라이 교수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서는 전체적인 중국철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전체적인 중국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불교에 대한 연구도 역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중화문화연구원 원장으로도 재직중인 라이 교수는 1991년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한 중국박사'로 선출돼 1992년부터 국무원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1993년 박사생 지도교수로 선발됐으며, 2003년에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철학과 평의원으로 선발됐다.

저작으로는 〈중국불성론〉 〈중국불교문화론〉 〈종교학개론〉 〈불도시선(佛道詩禪)〉 〈불교와 유학〉 〈담연(湛然)〉 〈불전집요(佛典輯要)〉 〈고승전석역(高僧傳釋譯)〉 등 15부의 저작이 있으며, 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핵심간행물에 게재했다. 이 밖에 〈중국불교백과전서〉(11권) 〈선학총서〉(2집 10권), 〈중국불교경전보장(中國佛教經典寶藏)〉(50권) 등을 주편(主編)했다. 또한 〈불도사상예의연구(佛道思想禮儀研究)〉로 미국 국가과학기금(N.S.F)을 받기도 했다.

'중국불성론'으로 인명사전에 등재
유 · 불 · 도 속에서 중국불교 전개
"중국철학 연구해야 중국불교 알아"

라이용하이 교수는 한 교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불교학의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국불교학의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여러 가지 연구환경이 개선됐고, 또한 해외에서 유학한 많은 학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다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자체적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있어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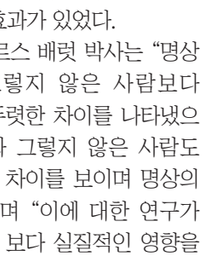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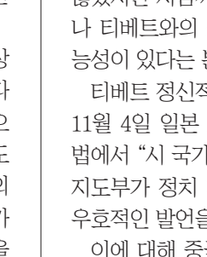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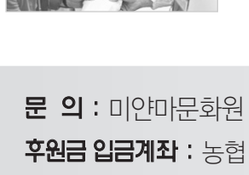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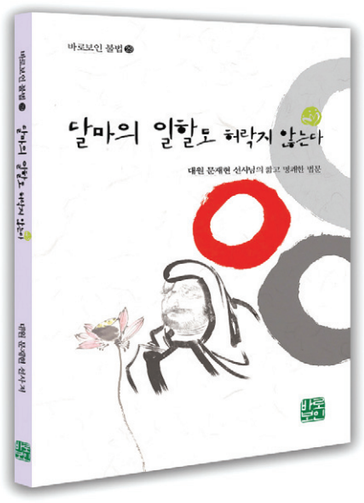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의 저자 대원 문재현 선사



불법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다는 경전과 선서(禪書) 번역서는 물론, 현대인이 불법의 뜻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술서에 이르기까지, 옛과 이제를 자유로이 오가며 방대한 불서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원 문재현 선사를 만나보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의 경전과 전등록, 선문염송 등의 선서를 포함한 58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경전과 선서 번역에 있어서 수십 권의 사전과 각종 자료를 통해 당대의 글자의 쓰임을 연구하여 번역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번역을 법리에 맞도록 새로이 보이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존 번역과 다른 점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자, 대원 문재현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구(良久)라는 단어는 과거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없이 있다'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구의 내역을 공안의 의로에 따라 읽어낸다면 '말없이 있다'와 '말없이 보이다'의 두 가지로 번역해야 합니다. 선사들의 말없이 있음은 대중들에게 이를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법을 통째로 보이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의 말없이 있음은 대중들에게 이를 기회를 주는 방법, 때로는 불법을 통째로 보이는 도리

이렇게 모든 이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경전과 선서의 번역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와 같은 저술서에서는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명쾌한 말로 불법을 설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법문집을 출간하였고, 현재 화엄경 80권 중 8권의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대원 문재현 선사의 행보가 단순히 교화와 불사, 역경작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는 2009년 '사막화방지국제연대'를 설립하여 현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지구환경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 '사막 해수로 사업'은 IUCN이 주관한 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도, 2012년)를 통해 아프리카의 니제르공화국과 부르키나파소와 국제협약을 맺는 등 큰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원 문재현 선사는 '21세기에 인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깨달은 이라면 이변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영생불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인을 이끌어야 하며, 사변적으로는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백 년, 천 년 앞을 내다보아 이를 미리 앞서 대비하도록 만인의 삶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뜻은 다만 진리 전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인이 서로 함께 영원한 극락을 누릴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이사일여로 베풀어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 문재현 선사가 지향하고 있는 불법의 세계이다.

삼원선원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자연과 하나 되는 삶, 그 감동을 지향하는 민속죽염

"민속죽염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태백산맥의 낙동정맥 깊은 계곡에 자리잡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을 공급받는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죽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속죽염은 1988년 정식 설립 된 이래 죽염 업계의 선발주자로써 죽염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한결같은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국민건강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30여 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왔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는 슬로건 아래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염을 생산해 이러한 연구결과로 업계최초로 자색죽염을 생산하게 되었다.


민속죽염 최태규 대표

"차별화된 생산 공정과 그 속에 녹아있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죽염을 만드는데 최선"

민속죽염 설립은 건강이라는 화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태규 대표는 "선천적 요인으로 병약한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당뇨, 위장병, 축농증, 신경쇠약, 무기력, 권태감으로 늘 고통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생에 대한 깊은 회의, 나아가 고통 없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지향하며 골똘히 사색한 결과, 육신의 완벽한 건강 없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세 무렵부터 전국의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의식을 고양 확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죽염과 만나 건강을 회복시켜 그 때의 고마움으로 죽염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죽염의 효능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저와 같이 허약한 몸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죽염의 효능을 직접 전달하고자 열심히 생산하여 알음알이로 보급하다가 1988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립과정 애환을 설명해 주었다.

이처럼 민속죽염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까다로운 원료의 선택, 정확하고 세밀한 제조공정에서 투명한 유통에 이르기까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죽염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오염된 공기와 탁한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에 눈 뜨기 전에 진실성을 바탕으로 죽염의 대중화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건강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죽염업계에 귀감이 될 것이다.



민속죽염 016-823-0483
www.msjy.co.kr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2011년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출간하여 화제가 된 혜원스님(무아선원장)은 경, 율, 논을 의지하여 몸소 수행한 결과를 『금강삼매경』대장경 원문을 해석하여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로 증득한 내용을 서술하여 출간 하였다.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통하여 1년 동안 무아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한 불자들은 우울증이 사라졌고,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등 참선하면 무심에 들어간다고 체험담을 밝혔다.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혜원스님은 불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수행방법을 전하는데 있어 더욱 활기찬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

이번 출간한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는 만물이 무상(無相)이나 우리들 눈에는 모든 것이 유상(有相)으로 보여 지기에 갖가지를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법을 세우니,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한 만물이 무생(無生)이나 우리들은 모든 것이 유생(有生)으로 작용하여 신,구,의로 가지 가지 습관적 종자를 만들게 되고, 그 과보로 현생에 행동함이 부자연스럽고 더욱 고뇌하여 생각에 빠지니, 우울증 정신장애로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자인 혜원스님은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삼매경은 대승을 통틀어 거두므로 '섭대승경'이라 하고, 무량한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량의종'이라 하며, 선정으로 지혜를 증득하여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번뇌를 타파하니 '금강삼매'라 한다. 매우 청정한 이가 이경을 지니며,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다섯 가지 복(福)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 중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둘째 몸은 갑자기 요절하지 않고, 셋째 사사로운 논리도 잘 답하고, 넷째 즐겁게 중생을 제도하며, 다섯째 능히 성스런 도(道)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내가 부촉하는 바는 오직 이 경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혜원스님은 수행자가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를 의지하여 수행하여도, 위의 다섯 가지 복대로 안된 다면 논리는 이해하고 알았으나, 과거생애 이런 저런 기준을 세운 법들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루어 질 때까지 초발심으로 정진하기를 당부 하셨다.


무아선원장 혜원 스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불보살님에게 자식이 잘되도록 비는 기도를 올린다면, 성취되어도 나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원함이 생깁니다. 경계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만든 본인 것인데, 참회하여 닦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하였기에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쌓이게 되어, 미래에 자식에게 바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서원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닦지 않는다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혜원스님은〈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는 빌고,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나중에 서원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심(無心)에 들어가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머물러 육도(六度) 중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미세번뇌 닦아서 보살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에서 논하는 요지인 것이다.



무아선원 (031)721-2148~9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cm×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매화에서 도를 구하다

매화에 대한 소견


매화 서옥도

북방의 추운 세상에 살던 매화는 남방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그 가풍을 잊지 않고 추운 겨울 눈이 수북히 쌓여 만물이 기가 죽어 고요할 때도 얼음을 뚫고 꽃봉오리를 피워내 온 세상에 단 한 가지의 꽃만으로도 봄이 왔음을 알리면서 새로운 세상의 첫 날을 만들어낸다.

화조화에서는 동백과 매화를 함께 그려 놓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 대개 그런 그림들이 뜻하는 바는 사랑과 만남이다. 부부나 연인, 또는 친구를 상징하는 두 마리 이상의 참새를 그려 놓고, 동백꽃이 만발한 가지와 백매(白梅)와 홍매(紅梅)가 만발한 가지를 겹쳐서 그린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늦게 끝까지 피어있는 꽃을 동백꽃이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을 매화라고 보는 우리의 생각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친구로서,

세상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
청매선사의 십무익송 보며
수행자의 자세 돌아보게 돼

연인으로서, 부부로서 만나되 기왕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살지언정 가능한 일찍 만나서 죽을 때까지 오래 오래 해로하면서 살아보자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매화는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물은 번뇌로 불타오르는 이 사바세계의 화재를 끌 수 있는 최상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물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어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바다도 물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갈증이 있어서 물이 기운이 많이 필요한 사람의 방에 매화 그림을 걸어 놓으면 그 병이 많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매화그림의 기운으로 시원한 방의 분위기를 만들면 화병이 있는 보살님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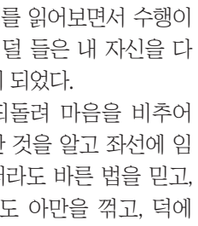
매화는 유가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다. 송나라의 임포(林逋, 967~1028)라는 선비는 벼슬과 가족을 모두 버리고 절강성 항주 서호의 산 속에서 띠풀집을 짓고 매화를 심어 키우며, 20여년을 은거하면서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혼인도 하지 않고 학과 사슴을 기르며, 술을 마시고 싶으면 사슴의 목에 술병을 걸어 사러 보내고, 손님이 오면 학이 하늘로 날아 올라 기별하였다 한다.

우리 불가의 큰스님들도 역시 매화를 좋아했다. 대보살이신 육조 혜능선사를 알아 본 오조 홍인 선사의 법호는 비록 산이름을 따랐지만 황매(黃梅)이고,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와 더불어 승병장으로 활동하셨고 십무익송(十無益誦)으로 유명한 인오(1548~1623)스님의 법호는 청매(青梅)이다.

안암동 근처에 있는 어느 포교당에 가니 용화선원 송담스님이 기묘년(1999년)에 쓰신 단정한 글씨의 청매선사 십무익송이 있어 이를 읽어보면서 수행이 부족하고 중물이 덜 들은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경을 읽으며 되돌려 마음을 비추어 보고, 성품이 공한 것을 알고 좌선에 임하며, 고행을 하더라도 바른 법을 믿고, 불법을 배우더라도 아만을 꺾고, 덕에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함부로 남의 스승이 되려하지 않고, 덕을 갖추지 못하면서 번지르하게 갖춰입는 습을 버리고,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신실하게 대화하고, 인과를 두렵게 생각하여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며, 비록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있어도 아만을 부리지 않고, 대중처소에 살면서 말썽을 부리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면서 해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통도사에 가면 자장매(慈藏梅)라고 불리는 350년이 넘는 홍매(紅梅)가 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자장매에 꽃을 피워야 우리나라에 봄이 온 것을 인증한다는데, 내년에는 꼭 보러가야겠다.

천상의 목소리로 티베트를 노래하다

겔상추키 한국서 첫 음반 발매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 앨범 자켓.

겔상 추키는 티베트 출신의 전통음악가수다. 현재 세계 월드뮤직 분야에서 티베트의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알리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하다. 조국의 역사적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노래와 메시지를 전하는 그녀는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적인 정신을 노래 속에 담아낸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그녀의 노래는 따뜻한 엄마의 품속 같은 친근하고 평온한 마음의 쉼터가 되어준다. 만일 그녀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난다면 그렇게 실컷 울어봐라. 타라 보살이 현신한 듯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되어 잠시나마 마음속의 번뇌를 씻어내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모른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라 불리는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가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발매된다. 12월 중순 발매를 앞둔 겔상추키의 음악세계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달라이 라마가 제목을 지어 주었다는 이번 앨범에는 △사랑과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티베트 불교의 개조이자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를 찬양하는 만트라 '두 숨 상게(DHUE SUM SANGYE)' △잃어버린 조국 티베트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노래 '량 율 삼파(RANG YUL SAMPA)' 등이 실린다.

"첫 번째 앨범을 낸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집 앨범을 이번에 한국에서 발매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 실린 곡 중 '량 율 삼파'는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저에게 특별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내가 나의 조상이 살던 고향을 동경할지라도 나의 업보(karma)가 나

티베트 문화와 정신 담은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등
'Voice from Tara'에 담아
조국 현실 한국에 알리고자

를 망명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서쪽하늘의 구름 뒤에는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2004년 나왕 케촉의 내한공연에 참여한 이래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4번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월정사 산사음악회와 유나방송에서 공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의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상방송국 '유나'의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매우 행복했습니다. 정목 스님께서 저의 노래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청중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기꺼이 티베트와 티베트의 현 상황에 대해 더욱 많이 알려고 노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겔상추키의 'Voice from Tara'가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된다. 그녀의 노래는 티베트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 전 세계에 조국의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사진제공=콘텐츠코리아

그녀는 한국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사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열풍인 한국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여기 다람살라에서 뿐만 아니라 본토인 티베트에서도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차기 국가 주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진핑을 티베트의 현 상황과 매치해 패러디한 동영상 버전 'Tibetans vs China's Xi Jinping' 또 '초원 버전'과 '티베트 민속의상과 춤 버전' 등 다수의 동영상 버전들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을 정도죠. 그만큼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세계 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서 제 음악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겔상추키는 네팔에서 태어나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언니이자 현재 같은 음악가인 남걀 라모와 함께 다람살라에있는 '티베트 공연예술 협회'의 인재로 선발돼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항상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하며, 특히 달라이라마가 각지를 방문하거나 강연 혹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주요인사로 참석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구 경북 전통 미술품 한자리에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회원전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가 주최하는 제 7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11월27~12월2일, 054-840-3600)과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4일~12월9일, 053-606-6111)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파라지타, 승무북, 반닫이, 신중탱화, 화조도, 영산회상도, 청연화수 등 21점의 전통 공예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김동진 작가의 '구도'는 간절함이 익어 그리움으로 핀 연꽃, 하늘을 향해 다가가는 그 바람을 담아 작품으로 펼쳐냈다. 전연호 작가의 영상회상도는 검은 바탕에 금니와 금박을 사용해 현대적 회화기법을 응용 장엄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병현 작가의 '청연화수'는 청연을 든 손을 통해 극락으로 향하는 인간의 마음을 조형으로 빚어냈다.

신중탱화, 영산회상도 등 전시
안동과 대구서 각각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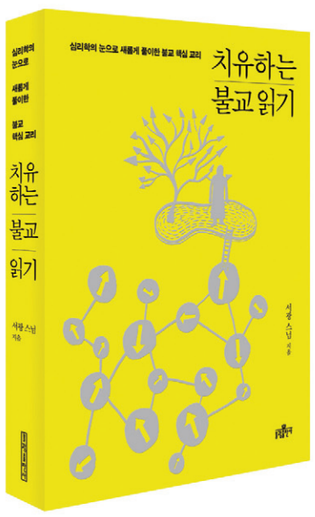
회장 박정환 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대중들이 전통문화미술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작가들은 더욱더 정진하고 작품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대구 경북지역의 불교미술중흥과 민족전통문화미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1989년 결성된 단체다. 단청 불화 조각 고건축 공예 복식 등 각 분야의 불교미술과 전통예술에 종사하는 지역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의 제 7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11월27~12월2일)과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4일~12월9일)에서 각각 열린다. 사진은 전연호의 '영상회상도'

정혜숙 기자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하여 삼학, 삼독, 삼법인, 바라밀, 오정심관, 삼십칠조도품, 연기, 무상, 육도윤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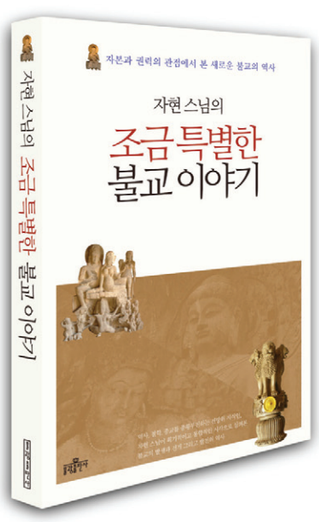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스님 지음
288면 / 14,000원

역사, 철학, 종교를 종횡무진하는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획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불교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발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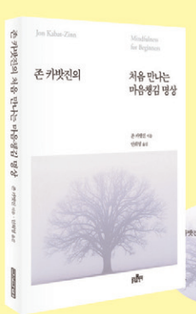
경제사와 문화사, 사상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불교 교양 인문서!

자본과 권력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불교의 역사

자현 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320면 / 15,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친구가 되자

마음챙김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더 큰 친밀감을 형성하며, 배움과 성장, 치유에 필요한 내적 자원을 계발하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 카밧진 지음, 안희영 옮김, 240면,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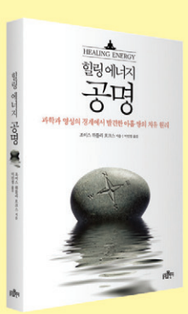
생각 사용 설명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이 들려주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처방전!

당신의 실패와 우울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때문이다. 생각이 앞서 가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늘어날 뿐이다. 생각을 버리자

전현수 지음, 256면, 15,000원



힐링에너지 공명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아홉 쌍의 치유 원리와 그 생명력의 비밀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조화와 공명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홉쌍의 치유 원리와 그 적용 사례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지음, 이민정 옮김, 288면, 15,000원

검은 욕망으로 피어난 상사화의 절규

임남진의 '여여如如, 무위撫慰…'

꽃은 잎을 만날 수 없고 잎은 꽃을 만날 수 없어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지고마는 꽃 상사화. 그래서 상사화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의 표상이기도 하다. 임남진 작가 역시 이런 상사화를 만나고 난 뒤 그 뜻이 너무나 서글퍼 마음이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상사화를 보고 또 보며 이내 그녀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냈다고 한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상사화의 이면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꽃은 잎을 갖고 싶고 잎은 꽃을 갖고 싶어하며 사랑의 결실을 갈망하는 그것은 욕망이었다. 이제 그 욕망의 덩어리를 알아채는 순간 붉은 상사화는 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 파랑새 한 마리가 내려 앉아 욕망과 집착에 묶여 윤회를 거듭하는 처연한 인간의 모습에 절규를 하고야 만다.

임남진의 '여여如如, 무위撫慰로서 피는 꽃, 지는 꽃' 이 12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회화적 답을 모색하는 작가 임남진 씨는 꽃을 소재로 그 해답을 풀어간다. 상사화 작업을 시작으로 목련과 벚꽃 찔레꽃과 할미꽃이 그의 화폭에서 새롭게 태어나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다. 그녀는 꽃을 그리며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그 찬란한 슬픔을 느꼈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삶을 돌아보게 하죠. 할미꽃을 그릴 때는 할미꽃이 지고나면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이 하얀 털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얀 털로 변한 할미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찬란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이 모습은 마치 마흔에 접어들어 하얗게 세는 제 머리카락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이렇게 꽃도 피고지며 우리네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꽃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인 작품은 역시나 상사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에 갔다가 마당에 심어진 상사화를 처음 보았죠. 그 의미가 너무 슬퍼 이를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기에서 사랑의 결실을 욕망하는 인간의 내면을 읽어냈죠. 불교적으로 보면 남녀간의 사랑도 애욕에 불과한 거죠. 절 집안에서도 스님들이 상좌가 심란해 할 때 상사화를 심게 한다고 들었어요. 불가에서는 상사화가 피안의 세계를 뜻한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면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임남진의 '여여, 무위 로서 피는 꽃, 지는 꽃' 이 12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상사화 등 꽃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 왼쪽은 '할미', 오른쪽은 '상사화'.

인간의 희노애락 꽃에서 찾아
상사화 할미꽃 찔레꽃 등 작업
12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녀가 한국화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4년 고려불화전에서 받은 감동 때문이다. 이후 우연히 후불탱화 모사 작업을 하는 선배의 일을 돕게 되면서 불화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작업이 끝나자 선배는 더 연습을 해보라며 비단과 물감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부터 임 씨는 지장보살도를 모사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서양화에서 한국화로 작업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98년도 불교미술대전에서 감로탱화로 특선을 받으면서 그녀의 작품세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후 그녀는 감로탱화를 모티브로 한 고려 불화 기법으로 신풍속화를 그려냈다. 그것이 바로 5.18을 주제로 한 '오월감로탱화'다. 이렇게 감로탱화 형식의 신풍속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숨은그림찾기처럼 보여주며 그녀의 작품들은 호평을 받았다.

작가는 앞으로 오백나한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다. 임 씨는 "항상 오백나한도를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옮기는데에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적 접근보다는 회화적 접근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 오백나한도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임남진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98년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2001년 신세계미술제창작지원공모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개인전으로는 심심(深心)한날,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초대전-만화경, 영혼의 여정 등을 펼쳤다. (062)360-127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법가로 자비의 마음 전해

한마음합창단 송년후원의 밤

한마음선법합창단 송년후원의밤이 12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 7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다. 주부 직장인 등 1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한마음선법합창단은 선법가 태평무 탭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합창단은 '해수 관음의 빛'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영상물 상영, 보살중 참팀의 가요메들리, 성악가 염경목의 가곡 무대, 혼성북팀 및 탭댄스팀, 중창팀 공

선법가 탭댄스 등 다양한 무대 마련
12월 8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서



한마음 선원은 12월 8일 송년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연 휘날레 순으로 공연한다. 특히, 오프닝 무대와 휘날레곡은 대행 스님 법문에 곡을 붙인 신행 선법가로 구성됐다.

이형택 단장은 "지난 8월부터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한마음선법합창단은 활동적이며 창의적 공연 문화 발전 추구, 합창단 자체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기 공연의 틀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로 합창단 본연의 합창과 더불어 소박하고 감성적인 무대를 꾸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활동 사항을 담은 합창단의 운력, 연등축제, 각종 음성공양 등의 활동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마음선원선법합창단은 1984년 창단 이래 소년소녀 가장돕기. 군법당 음성공양, 대장경연구소 발전기금 모금 공연, 안양교도소 공연 등을 해왔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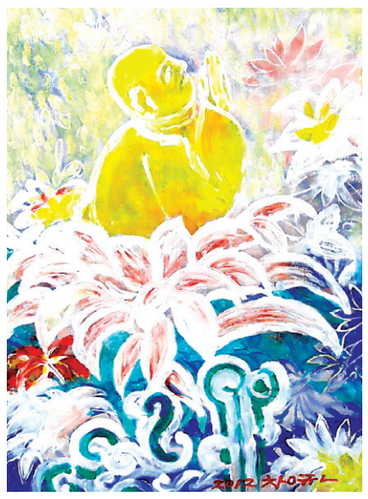
붓 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만나다

제22회 불미협 기획전

제 22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붓 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11월 28일~12월 4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 3전시실에서 열린다.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공예 등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 김창균(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이상배(불교조각가), 박

불교미술의 현대화 추구
11월 28일부터… 경인미술관서



김창균 교수의 '바라옵건데'

경귀(불화작가, 선아트스페이스 대표), 신주호(단국대 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김석곤(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연구원), 고승희(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연구원), 이수예(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 소장) 등 4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라온건데' '처염상정' '관음보살도' '십육나한도' 등이 선보인다.

불미협 김창균 회장은 "불미협은 오롯이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의 방향을 연구해오고 있으며 그 노력을 기획전으로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우리들 마음 속 부처님을 주제로 기획돼 전통성과 현대성, 대중성을 두루 갖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현재 불교미술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02)2260-8924 정혜숙 기자

불교계 독립운동 다큐로 집중 조명



BTN은 '암흑속에 핀 화엄불국토, 초월의 일심교'를 11월 28일 방영한다. 사진은 촬영 스틸컷.

BTN '암흑속에 핀…' 28일 방영
백초월 스님 일심교 활동 영상으로

불교역사추적다큐멘터리 BTN의 '암흑속에 핀 화엄불국토, 초월의 일심교'가 11월 28일 · 11월 30일 · 12월 2일에 걸쳐 방송된다. '암흑속에 핀…'는 2009년 5월 서울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과정에서 나온 독립운동 관련 유물을 통해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한 프로그램이다.

BTN은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 일제강점기 시절 불교의 선지식이었던 백초월(白初月)스님이 화엄사상에서 독립운동의 명분을 찾아 만든 일심교(一心教)를 중심으로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3.1운동 당시 '한국민단본부' 설치 비밀결사 활동 △의용승군 활동 △비밀연락망이었던 연통제 조직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혁신공보 발간 △제2차 독립만세운동 추진 △만주행 군용열차에 '대한독립만세'를 쓴 대서(大書)사건 등 초월스님의 독립운동을 보여준다. BTN은 "초월스님의 일심교를 중심으로 펼친 불교계 독립운동의 조명은 잠들었던 근 · 현대사를 일깨워 한국사와 불교사를 바로 보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에 불교계의 독립활동을 추적 고찰,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스님들과 민중들의 항일독립활동으로 호국불교를 실천한 행적을 영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BTN은 "본 프로그램은 구성에 있어 일반적인 사건의 추적과 상황 재연 그리고 샌드아트 영상 표현 기법을 통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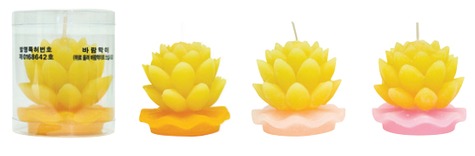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육각초 7.0ϕ× 34



연화 大 9.5ϕ× 11㎝, 연화 中 9ϕ× 10㎝, 연화 小 7ϕ× 6.5㎝



밀납연화 小 7ϕ×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수준별 10단계 명상프로그램 소개



코이케 류노스케의 명상수업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이수미 옮김
멜론 펴냄/1만1200원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새롭게 바꿀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강렬한 욕심=인력' 혹은 '분노=반발력'의 카르마로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버리기 연습'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이번에는 '명상'을 화두로 들고 왔다.

극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힐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이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명상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별한 도구나 장소,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복잡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극도로 예민해진 감정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선지 기업체, 관공서, 학교 등에서 스트레스로 가득한 마음 다스리기 방법으로, 또 집중력과 평상심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명상 시간을 갖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으로 명상 치료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명상의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코이케 스님은 인간 마음은 대부분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구성돼 있어 자신이 마음 상태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러운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 쉽다고 말한다. 이 책은 즉 명상을 통해 이런 나쁜 습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유쾌한 일, 불쾌한 일을 다 겪은 상태에서 명상한다고 갑자기 자세를 잡다 해서 평온한 명상 상태에 곧바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 마음,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구성
초심자 명상…감정 그대로 방목 필요
현재 고통 관찰하면 감정파악 쉬워

코이케 스님은 오히려 명상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잡념에 어지러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무더기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때 느꼈던 분노나 슬픔에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면 명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마음은 어떤 대상을 향할 때 걸핏하면 '휘말림' ↔ '적대시'라는 양극 사이를 오가게 마련이다. 그 양극을 초월한 '방목'의 태도를 배우도록 하자. 처음 명상 하는 사람들에게 코이케 스님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방목하라고 말한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을 그저 바라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코이케 스님이 알려주는 명상 호흡법을 따라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평상심'을 기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쉽게 명상 상태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

〈코이케 류노스케의 명상 수업〉은 말 그대로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한 책이다. 혼자서 명상하는 방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본 수업은 총 10단계로, 수업하기에 앞서 명상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기초 사항, 명상자세부터 꼼꼼히 챙긴다. 본 수업의 1단계 수업은 '호흡하기 명상'이다. 이 수업에서는 눈 감기부터 호흡과 친해지기, 잡생각 내려놓기, 호흡 명상에 집중하고 깨어나는 방법을 전한다.

2단계 수업은 '관찰력 높이기 명상'이다. 호흡의 다양한 변화 느끼기부터 쾌적한 마음 상태 느끼기를 배운다. 3단계 수업은 '집중력 강화하기 명상'이고 4단계 수업은 '평상심 기르기 명상', 5단계 수업은 '긴장과 불쾌감 벗어나기 명상'이다. 이 수업에서는 불쾌한 과거로부터 벗어나기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운다. 6단계 수업은 '잡념 지우기 명상'으로 감정 조절하기, 분노 가라앉히기, 통증 극복하기 방법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10단계에서는 '내 마음 알기 명상'으로 인간의 주된 마음인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명상의 최고 수준을 설명해 준다.

코이케 스님은 10단계 정규 수업 이외에 과외수업으로 두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었다. 보행 명상과 자비 명상이다. 보행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으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향상시켜주고, 자비 명상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준다.

이 책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명상 수업 내용을 코이케 스님이 직접 그린 재밌는 카툰을 넣어서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또한 단계별 수업마다 마지막에 칼럼을 넣어서 수강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명상 수업은 실제 코이케 스님이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로, 수강자들의 질의응답부터 명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나 성장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조근조근 들려준다. 명상 단계가 올라가고 레벨이 오를수록 명상할 때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명상 중에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외롭고 쓸쓸한 기분에 푹 젖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그 순간 신체적 고통을 민감한 관찰력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내 고통의 이면에는 그 순간의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사건이 뒤엉켜 있다. 현재의 고통을 붙잡아 세세히 '관찰'하면 그 이면의 배경이 환히 보이면서 현재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과거가 변화한다. 과거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뿌리 박힌 나의 '번뇌', 즉 무의식 속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던 생각들은 평상심을 발휘해 말끔히 제거된다.

이 순간 불쾌한 과거는 힘을 잃게 된다. 동시에 현재의 감정 역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불쾌한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자신을 '리셋'한다는 것이 코이케 스님이 말하는 명상의 참된 묘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IT산업의 진흥은 새 정치의 효과적 모델"

안철수, IT혁신이 세상을 바꾼다

윤소암 지음 | 해맞이미디어 펴냄 | 1만5천원



지난 10월 7일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IT산업 진흥과 남북평화교류를 통해 북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역임한 소암 스님(불교인문과학원장)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IT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안철수 후보의 등장은 권위주의에 찌든 한국 정치를 혁신해 권력이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 정치 모델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집약된 것으로 기존 정치 패러다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부 위원회 경력은 오히려 그에게 정부 조직의 학습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동안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 49편이 담겨진 이 책에는 평소 저자가 깊은 관심을 보인 한국불교와 이명박 정부, 4대강 정책 등의 개인적 단상들이 들어 있다.

논설위원을 지낸 이력답게 저자의 글을 꼼꼼히 읽다보면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대목이 많다.

일례로 한국불교의 현실을 꼬집는 '산중수행보다 전법도생이 시급하다' 편에서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으로 야기된 불교 차별문제는 결국 종단 조직의 활성화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다섯 가지 달마어록 이해하기 쉽게 해설

달마어록

김태완 역주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2천원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들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조사(祖師)란 '조상 할아버지 스승'이란 의미로 선불교의 근본을 깨달아 맥을 이어온 스승을 말하는데, 이들은 마치 한 가문이 조상대대로 혈통을 이어 내려오듯이 진리를 대대로 전하고 이어받은 계보가 있다. 위 질문에서 나오는 조사는 곧 인도서 중국으로 건너와 선불교를 전한 보리달마를 가리킨다. 중국 선종에 의하면, 보리달마는 인도에서는 제 28대 조사에 해당하고, 중국서는 제 1대 조사가 된다.

불교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선불교 제 1대 조사는 제자인 마하가섭이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을 언어문자라는 수단방편과 이를 떠난 이심전심으로 전하기도 했다. 언어문자라는 수단방편으로 전한 불교가 경전(經典) 형태로 남아 있다면, 이심전심으로 전한 불교는 선(禪)으로 남아 있다. 즉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방편인 반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인 내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처럼 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하여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부처님의 전한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 '그대 스스로의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전한다 해 그저 스승의 눈빛만 보고도 깨달음을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선에서도 스승은 역시 언어문자를 비롯해 고함치기, 몽둥이 휘두르기, 몸짓 등 여러 방편을 사용해 제자를 가르쳤다. 그 가운데서도 언어문자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선사(禪師)들도 수많은 언어문자를 남겼다.

선사들이 사용한 언어문자는 의미를 이해시키고 개념과 견해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미를 갖지 않고 개념도 견해도 세움 없이 오로지 지금 이렇게 살아 활동하는 실제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선사들의 이러한 언어문자를 어록(語錄)이라 해 부처님 말씀인 경전(經典)과 구분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에 선을 전한 보리달마가 남긴 언어문자인 달마어록이다.

보리달마는 인도어 'Bodhidharma'의 음역이다. 생몰연대는 346-495, ?-528 등 여러 설이 있다.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이고, 서천의 제 28대 조사이다.

남인도 향지국왕의 셋째 아들로서 반야다라에게 도를 배우며 40년 동안 섬겼으며, 반야다라가 죽은 뒤에는 본국에서 크게 교화하여 당시 성행하던 소승 선관 6종을 굴복시켜 이름이 인도에 퍼졌다. 뒤에 그의 조카 이견왕을 교화했다.

남북조 시대인 520년,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해 9월에 광주 남해군에 이르렀다. 10월에는 양나라의 무제와 문답했으나 서로 통하지 못했다. 낙양으로 가서 숭산 소림사에 머물며 매일 벽을 향해 좌선만 하여 사람들이 벽관바라문이라 불렀다. 효명제가 달마의 이적(異蹟)을 듣고 크게 격앙하여 마탑의가사 2벌, 금발, 은병, 비단 등을 보냈다.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있다가 혜가에게 선종의 비밀스런 종지와 의발 및 〈능가경〉을 전했다.

양무제와 만나 문답하여 '텅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다'라고 일갈한 이야기, 신광이 달마의 명성을 사모하고 찾아와 밤새도록 눈 맞고 밖에 섰다가 팔을 끊어 구도의 정성을 표하니 드디어 곁에서 시봉하도록 허락하고 '혜가'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 보리류지와 광통 율사의 질투로 인하여 독살당한 뒤에 관 속에 신발 하나만 남겨 두고 인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인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송운이 인도로 돌아가는 달마와 총령에서 만난 이야기 등 여러 설화를 남겼다. 당태종이 원각대사(圓覺大師)라고 시호하였다.

이 책은 달마의 이름으로 된 어록들 가운데, 〈안심법문〉〈오성론〉〈혈맥론〉〈절관론〉〈무심론〉 등 달마가 전하고 육조 문하에서 꽃 피운 조사선의 종지에 충실한 다섯 가지 어록을 모아 번역했다.

이 번역은 먼저 원본(原本)에 이본(異本)이 있는 경우에는 각 이본들을 꼼꼼히 비교 대조해 교정함으로써 보다 알맞은 뜻을 찾아서 번역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주석에서 밝혔다. 주석에서는 원본의 교정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적 사항, 불교 용어, 선(禪)에 고유한 용어, 인용문의 출전 등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주석으로 붙였다.

조사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사선 전문가이자 실제 눈을 뜬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직접 번역한 까닭에 번역의 완성도가 높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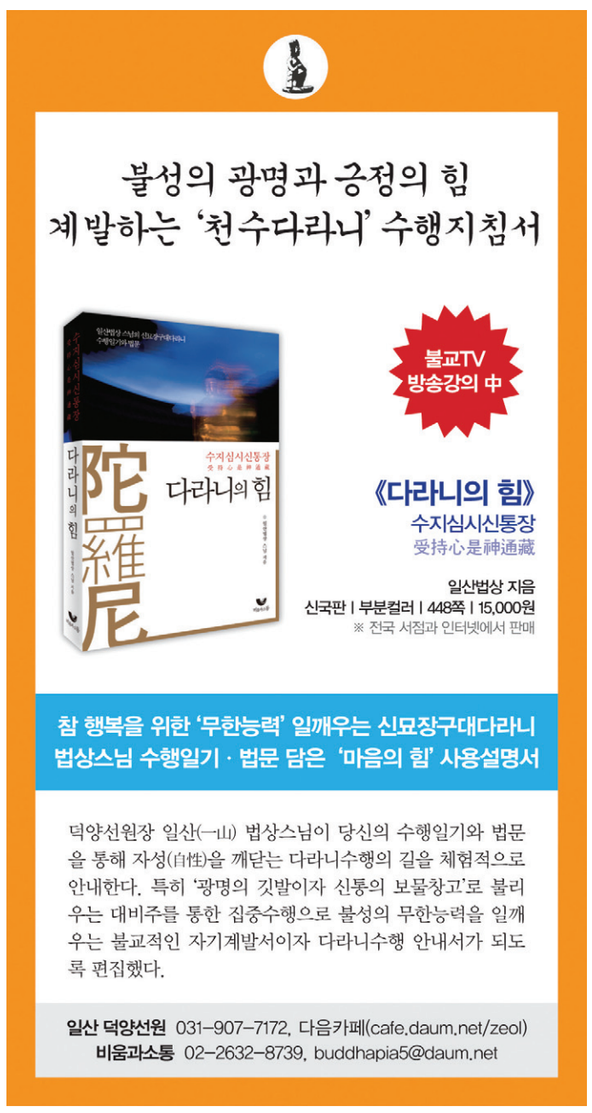
11/14~11/2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7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8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9	아프니까 더 살만한 세상	현해	민족사
10	맛지마 니까야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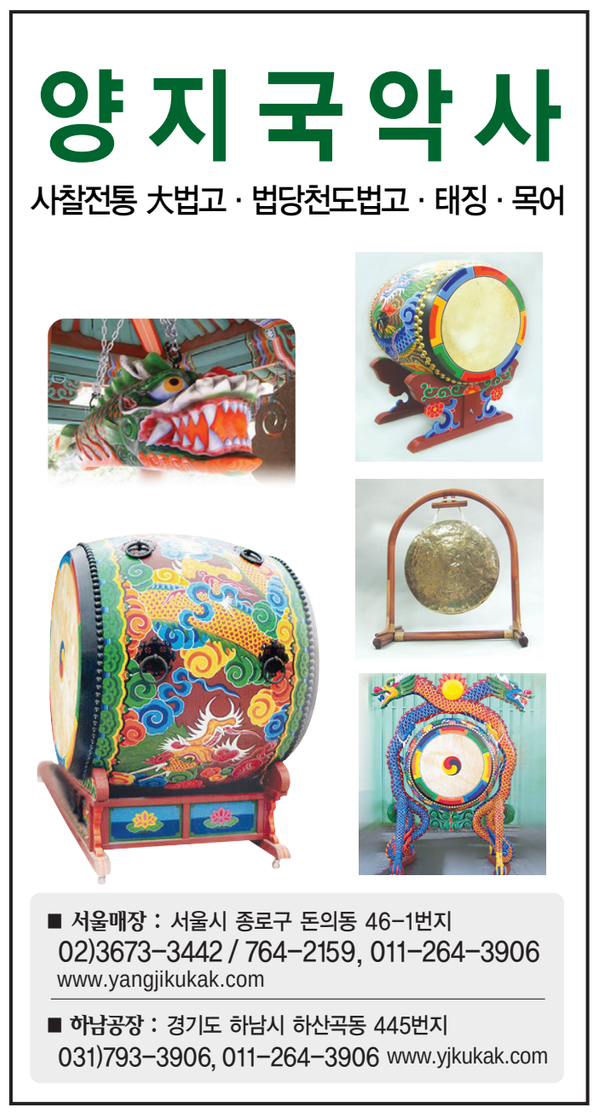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정치인 '해원상생' 해야 한국 사회 발전"



큰 무당 나와야 정치 살아난다

지선 · 손석춘 공저

알마 펴냄/8천원

한국 사회서 종교인의 사회적 발언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왔다. 흔히 종교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 혹은 인간 인식 능력으로는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관계된다는 믿음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는 곧 '정치적 종교인'으로 분류돼 편 가르기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복신앙에 편승한 단편적인 종교의 지혜가 얼마나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대개는 일상의 삶과는 무관한 종교적 형이상학만으로 종교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오히려 본원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밀접히 맞닿아 있으며, 그런 면에서 종교는 사회의 정의로운 진보에 대해 활발히 발언해야 할 것 같다.

특히나 한국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이러한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 많은 제약에 갇혀 있었다. 그 핵심적 가르침이 세속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세력과의 결탁이 넓고 깊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도 불교계 인사는 소수였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가톨릭 사제나 기독교 목사에 비해 스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불교가 신도 수를 놓고 볼 때 여전히 한국의 최대 종교인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교계의 존경받는 인사가 중생들의 사회적 현실에 관심 갖고 적극 발언한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동력이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저자인 지선 스님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다. 그가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를 통틀어서도 비범한 정치적 식견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까닭이다.

6월 항쟁과 불교개혁의 '얼굴' 지선은 불교계에서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정치 ? 사회 개혁활동을 펼쳐왔다. 1986년 민주화항쟁 당시 그가 성공회 성당 종루에 서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방송을 개시하면서 6월 항쟁의 막이 오른 것은 워낙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 아니라 지선 스님은 오랜 세월 안거에 참여 하면서도, 한국의 정치 현실과 그 미래에 대해 뼈아프고 통찰력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지선 스님을 이번 책에서 인터뷰한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 서술을 통해 지선의 삶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냈다.

스님이 보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뜻밖에도 무속의 정신을 통해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한다. 즉 무속의 핵심 사상인 해원상생정신에 비춰볼 때 정치인들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해원상생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인 '해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다른



혜원은 원통함을 풀어 주는 것

지선스님, 사회 개혁에 활발한 활동

"국민 헤아리는 것이 올바른 정치"

하나인 '상생'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한다. 지선은 일부 정치인들이 "해원은 빼고 상생만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홧발로 짓밟고 사람을 때려죽여서 가슴에 한이 켜켜이 맺혀 있는데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맺힌 한이 풀리면 상생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레 상생이 이루어진다.

지선은 이런 현실 인식 아래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도자 상을 제시한다. 즉 모든 이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사람, 온 국민을 위한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를 마냥 덮어버리고 '거짓된 미래'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정치세력에게 따끔한 일침을 준다. 그가 보기에 아직 해원되지 않은 역사적인 한스러움이 이 땅의 곳곳에 남아 있다. 군사독재의 서슬에 상처 입은 청년 학생, 전쟁 같은 노동에 쓰러져간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분단 상황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국민이 그들이다. 지선은 이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현재 한국 정치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선 스님이 만난 거물 정치인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스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들의 공과를 직설적이고 통쾌한 화법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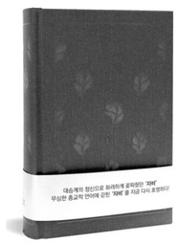
지선 스님이 바라는 세상,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는 원대하다.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 땅 파고 기계 돌리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남북이 하나 돼 민족과 역사와 문화가 온전해지는 세상을 그는 진심으로 바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급진적 주장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스님은 이것이 한낱 '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날 봄이 오듯 쑤욱, 좋은 세상이 불현듯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신념이 한갓 '말' 뿐으로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헛된 이론을 배격하고 우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사유해온 까닭일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의 한 가르침이 자비가 아니라 전체가 곧 자비"

대승계의 세계

원영 편저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8천원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다."

흔히들 얘기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원영스님은 말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불교,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비'가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승계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대승경전에서 대승계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율의계(律儀戒)다. 살생하거나 훔치는 일, 잘못된 이성관계, 거짓말, 음주 행위 등 금계의 측면이 강한 것을 말한다.

둘째 선법계(善法戒)다. 이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각종 수행과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중생계(衆生戒)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중생을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적극 돕는 것을 말한다.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불리는 이 대승계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대승계 관련 내용을 추출해 한권으로 통합 정리했다. 계율을 전공한 저자가 대승경전과 논서에서 '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 그리고 남을 돕는 윤리적 실천과 관련 내용을 뽑아 대승보살의 실천행을 정리한 것이다. 보살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해야 하는 열 가지 착한 행이나 마음 쓰는 법, 참회할 수 있는 죄와 참회할 수 없는 죄, 한순간이라도 계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 등 대승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편역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소외된 '선과 정의, 공정 등의 가치와 기준'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불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저자는 대승계를 말하는 이들이 이론과 실천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인정한다. 불교인들이 늘 자비를 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분명, 대승불교는 실천론을 앞세우며 새롭게 정립된 불교이다. '자비실천을 통해 공덕을 쌓고, 기본적인 계를 잘 준수한다.'는 초기불교 재가 불자들의 생활 원칙이 훗날 대승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자비실천'은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계를 어기게 되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위규범인 것이다. 저자 원영스님은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한 번 자비정신을 현대적 윤리관으로 재정립할 때라고 역설한다.

이 책의 중요 의미중 하나는 계율이라는 것이 단순한 규칙체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연히 바꾸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상한 엄격함을 추구하는 율장에 비해 '자비실천'이라는 대승보살의 태도는 수행 중심에 도덕성과 자비를 함께

대승경전 18권에 나온 계율 총정리

대승계, 율의계, 선법계, 중생계 등

단순 규칙체계란 계율 관념 재해석

가져다놓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비실천은 승가율장과 대승계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돈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불도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말해서 자비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행동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활태도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인 상태임에도, 벗어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자비란 자신의 편협함에 갇혀 세상의 억압된 질서에 복종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신성한 권리인 생명권에서부터 존중해가는 보편적 윤리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주장하는 한 부분이 자비인 것이 아니라, 불교 자체를 자비라고 부를 만큼 불교의 생활방식 전체가 곧 자비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선사상 입장에서 도가철학 해석해

생성의 도와 선

심재원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2만원



자의적 해석이 다양하게 범람하고 있는 '노자'와 '장자'를 선사상적 눈으로 읽어 신선한 느낌이 든다. 한문을 좀 안다는 자신감만으로 노자와 장자를 번역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노자와 장자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풀어내는 번역서들은 노자와 장자를 곡해하게 한다고 진단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도가철학을 설명하면서 '자유' '평등' '자연' '존재' '본질' '소통' 따위의 서양철학 개념들을 사용해 도가철학에는 있지도 않는 사유를 하게 만들고 있다.

도가 사상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선사상의 입장에서 도가철학을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철학은 도가철학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정도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사상으로 도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도 도가철학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두 사상을 비교하는 연구일 경우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상이 고유하게 쓰는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매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자는 이 연구 속에서 도가철학과 선사상에서 쓰는 용어들 가운데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는 것들을 먼저 앞에서 정리했다.

예를 들면 도가의 '物'과 선불교의 '法'이라든가 도가의 '虛'와 선불교의 '空'같이 뜻을 공유하는 용어들이다. 이로써 두 사상 간의 비교철학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사상 사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김주일 기자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동화로 재구성

성철스님의 특별한 수업

글 박민주/그림 이승현 | 주니어 김영사 펴냄/1만원



올해는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성철 스님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지만, 부모님 세대나 스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자,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어른들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성철 스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불교라는 종교와 상관없이 성철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인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과 지내면서 경험한 절 생활을 담은 〈성철스님 시봉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동화 속 원택 스님은 백련사서 생활하면서 성철 스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난다. 공부는 잘하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에는 무지한 스님은 처음으로 쌀을 조리질하는 법을 배우고, 야채를 일정한 간격으로 썰기 위해 노력하고, 맛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고되지만 원택 스님은 흥미로운 절 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여야 큰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절 생활에 대해 문외한인 원택 스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철 스님의 호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쓰인 원택 스님의 좌충우돌 절 생활을 읽으며 깔깔거리며 웃다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간소하게 먹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지,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 깨닫고 점점 야무지고 당찬 아이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극 락 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걷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죠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 오금희,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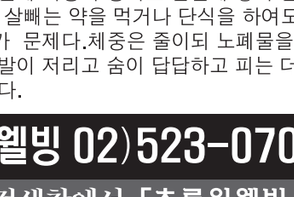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오대산에 오만 진신이 상주하는 까닭은?

오대는 동서남북 상하 연결한 우주 상징

1. 문수신앙과 화엄신앙의 결합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숭배해 왔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 백악산(白岳山, 遼寧省 醫巫呂山)의 아사달(朝陽, 옛 營州)에 도읍을 한 이래 이 땅은 환인(桓因)에 대한 천신신앙과 단군(壇君) 왕검(王儉)에 대한 산신신앙을 주축으로 고유의 신앙체계를 형성시켜 왔다. 특히 산악을 무대로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주축으로 하는 삼재(三才)사상은 고조선의 중심철학이었으며 이 사상은 오늘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漢)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온 고조선은 만주 요서의 아사달로부터 요동을 거쳐 반도 내의 평양성까지 다섯 차례나 수도를 옮겨 왔다.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산신이 된 단군을 숭배하는 산악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왔다. 신선사상과 산신신앙을 결합한 풍류도(風流道)는 불교와 습합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의 사국, 통일신라와 대발해의 남북국, 고려와 조선시대 및 대한시대 이래 이 땅의 저변에서 주요 사상으로 이어오고 있다.

요서의 백악산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은 요동을 지나 백두산으로 이어졌다. 백두산에서 다시 시작된 이 흐름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백두대간으로 흘러오다가 주맥인 오대산에 이르렀다. 이후 오대산은 신라 선덕여왕 이래 자장(慈藏) 율사에 의해 문수도량이 시설되고 화엄 신중이 머물면서 불교의 성지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자장은 이 오대산을 진성(眞聖, 文殊菩薩)이 머무는 곳[住處]일 뿐만 아니라 오만진신(五萬眞身)이 머무르는 곳으로 시설하였고, 월정사에서는 석존의 전세(前世)였던 유동(儒童)보살의 화신으로 불린 신효(信孝)거사가 직접 오류성중(五類聖衆)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 신문왕(神文王, 淨神) 때는 보질도(寶叱道) 태자와 아우 효명(孝明)태자가 이 산에 들어와 출가하여 보천암(寶川庵)에서 수도하였다. 이후 효명은 서라벌로 돌아가 효성왕에 이어 성덕왕으로 재위했다. 반면 보질도(寶川) 태자는 북대의 남쪽 기슭에 암자를 짓고 부지런히 정업(淨業)을 닦았다.

그런데 오대산에 오만 진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일까. 『삼국유사』「탑상」편에는 오대산 관련 기사가 4조목이나 실려 있다. 황룡사 관련 4조목의 기사는 몇몇 유물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지만 오대산은 산악신앙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래 한국의 산악신앙은 주로 현재 북한지역의 금강산과 보현산이 중심이지만 남한에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에 대한 신앙이 있어 왔다. 금강산의 이름은 『화엄경』에서 유래되었다. 이 산의 이름은 금강산 이외에도 개골산, 풍악산, 열반산, 기달산 등의 이름이 있다. 금강산(『80권화엄경』)과 기달산(『60권화엄경』)은 신구역 『화엄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후 금강산은 청량(淸凉) 징관(澄觀)의 『화엄경소』에 근거하여 불리게 되면서 지리산, 묘향산, 구월산, 오대산, 태백산, 계룡산 등과 더불어 한국 산악신앙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금강산은 『화엄경』의 보살주처 신앙에 의해 담무갈(曇無竭)보살 또는 법기(法起)보살이 1만 2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상주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역화엄경』에서는 '일만 이천' 권속과 '담무갈' 보살이 등장해 있고, 『신역화엄경』에는 '금강산'과 '법기' 보살이 등장해 있다. 금강산이 보살이 머무르는 신앙처로 형성된 것은 『화엄경』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강산 '1만 2천 봉'이라는 표현은 금강산의 보살주처 신앙과 맞물려 '1만 2천'의 권속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1만 2천 개 사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금강산의 빼어난 봉우리들과 법기보살의 권속을 연계시켜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묘향산은 보현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오대산에는 문수보살과 오만 진신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2. 자장의 오대산신앙 개창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문수신앙이 정착된 것은 자장에 의해서였다. 그는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대산오만진신' 조와 『오대산사적기』내 민지(閔漬)가 쓴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이하 「제일조사전기」)에는 "이것은 본사 석가(세)존이 쓰던 물건이니 그대가 잘 간직하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문수보살은 또 "그대 본국의 동북방[艮方]에 있는 명주 땅 오대산에 1만의 문수보살이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니 그대는 가서 뵙도록 하라"고 말을 마치고 사라졌다. 문수보살은 다시 "그대의 본국 명주 지역에도 또한 오대산이 있으니 이곳도 1만 문수가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니 가서 뵙도록 하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은 동북방에 자리한 오대산에 가서 3일 또는 7일간 머무르며 문수보살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조에서는 오대산에서 문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제일조사전기」에는 "뒤에 마땅히 그대를 태백산의 갈반지처(葛蟠之處)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는 내용을 덧붙여 수정하여 친견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신라가 직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토착신앙인 무격(샤먼)과 불교사상과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국가 사이의 갈등과 계층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자장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 화엄사상을 도입하였고 이를 밀교와 결합하여 오대산신앙으로 확산시켰다. 당나라에서 비롯된 오대산 신앙은 『화엄경』「보살주처품」과 밀교 경전인 『문수사리(법보장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동북방의 청량산에는 옛날부터 모든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수사리보살이 1만의 권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항상 설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수사리경』에서는 "그때 세존께서 금강밀적주(金剛密跡呪)보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멸도한 뒤에 이 염부주 동북면에 대진나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 오정(五頂)이라는 산이 있으니, 문수사리동자가 유행 거주하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한다'고 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현교의 청량산과 밀교의 오정(오대산)의 결합으로부터 오대산신앙이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대산 비로봉 모습. 오대산은 화엄설주인 분수보살이 상주하는 명산으로 여겨졌다.

자장, 당나라서 오대산 문수신앙 접해 신라서 펼쳐
화엄, 밀교 융합신앙 정착못해, 신문왕 두 태자 노력
관음 · 지장신앙 융섭하며 한국 독자체계 가져

자장은 당나라 오대산에서 화엄의 설주인 문수보살을 만났다. 당시 문수보살은 신라의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으니 가서 만나보라고 했다. 이것은 현교인 화엄신앙과 밀교인 문수신앙의 결합을 통해 신라의 당면 과제였던 사상적 정치적 대립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신라 정치계와 사상계는 화엄계와 밀교계가 대립하고 있었다. 자장은 이들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그 뒤 자장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으나 자신의 분별심 때문에 문수보살이 떠나갔고 그곳에서 입적하게 되었다.

현교의 화엄과 밀교의 문수사리신앙이 결합한 오대산신앙은 자장에 의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화엄사상과 밀교사상이 결합된 오대산 신앙은 정착되지 못하였고 발전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자장은 선덕여왕의 승하 이후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채 오대산과 태백산 등지에 머물며 화엄과 밀교의 융합을 도모하였으나 왕실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태종 무열왕계의 지원을 받으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원효와 의상과 크게 대비된다. 결국 현교의 화엄사상과 밀교의 문수사리신앙을 결합한 오대산신앙은 신문(정신)왕의 두 태자인 보천과 효명에 의해 발전될 수 있었다.

3. 보천의 오대산신앙 완성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다. 그는 세자 책봉을 받고 소판 김흠돌의 딸(김씨왕후)과 결혼한 뒤 왕위에 올랐다. 김씨왕후 사이에서 보천(寶川)과 효명(孝明)과 부군(副君)이 태어났다. 신문왕의 태자이자 그(보질도, 寶川)의 아우인 부군(副君, 淨衆無相 추정)이 왕위를 다투다가 죽임(?)을 당하자 하지만 장인 김흠돌의 반란(681) 이후 신문왕은 왕비를 폐하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혜통(惠通)과 김흠운의 딸을 왕비(제2 神穆王后)로 삼았다. 그 사이에서 이홍(理洪, 효소왕)과 흠질(欽質)과 사종(嗣宗)이 태어났다. 이홍은 왕위에 올라 효소왕(692~702)이 되었으나 보천과 효명 태자를 옹호하는 오대산 세력과의 왕위 쟁탈 싸움의 후유증으로 702년에 병사하였다.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던 효명은 서라벌(경주)로 돌아와 신라 33대 성덕왕으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보천은 오대산에 머물며 오대산신앙을 심화시켜 갔다.

오대산신앙은 현교인 화엄과 밀교인 문수신앙이 결합한 문수화엄 혹은 화엄밀교 사상이다. 이 사상은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동남서북 사방에 사방불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경전과 참법이 주야로 구분되어 정연한 일대 만다라를 형성하고 있다. 만다라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눈으로 통일하여 볼 수 있게 만든 지형도이다. 사방불은 만다라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대산은 공간적으로는 중앙과 동남서북의 오방에 상하(上院, 下院)를 연결하여 전 우주를 상징한다. 시간적으로는 그 우주의 핵에 법신비로자나불을 안치하여 영원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복전(福田)의 37원(員)은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정비는 보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산오만진신' 조의 만다라의 사방불 배치가 금강계밀교와 다르다는 점은 주목된다. 밀교에서는 중앙에 비로자나불, 동쪽에 아촉여래, 서쪽에 아미타여래, 남쪽에 보생(寶生)여래, 북쪽에 불공성취(不空成就) 여래를 배대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성취여래의 경우는 밀교에서는 석가여래와 동체(同體)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오대산신앙은 아촉여래 대신에 관음보살, 보생여래 대신에 지장보살을 시설하고 있다. 이렇게 배대된 것은 당시의 교계 형편과 신앙의 태도가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오대산신앙은 당시의 주요 신앙들을 화엄의 입장에서 포섭하고 밀교의 구조로 재정립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주요한 입지와 상당한 세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던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대 이래 원광은 지장신앙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점찰교법을 널리 대중화시켰다. 명랑은 문두루 비법을 써서 신라를 공격하려 한 당나라 고종의 침략을 물리쳤다. 자장은 오대산 신앙을 도입하면서 관음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관음신앙이 탄생하였다. 의상은 낙산에서 관음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때문에 보천은 당시의 주요 신앙이었던 지장신앙과 밀교신앙 및 관음신앙의 지형을 감안하여 오대산신앙의 구조 안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다양한 사상과 다기한 정파를 인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만다라의 우주 법계적 구조 안에서 적절한 원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다.

보천의 이러한 노력은 오대산신앙의 신라적 창안으로 자리잡았다. 보천은 문무왕의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으로부터 효소왕-성덕왕-경덕왕으로 이어지는 신라 문명의 극성기에 살았다. 특히 성덕-경덕왕대는 신라 문명의 최전성기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 민족문화의 금자탑으로 평가받는 토함산 석불사 본존불(석굴암)과 불국사가 완성되었다. 당시 신라는 절대왕정을 꿈꾸었던 경덕왕이 귀족세력과 반목하면서 사회적인 분열이 극심하던 때였다. 보천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 자장계의 화엄사상을 부흥시키고 밀교적 문수신앙을 결합한 오대산신앙을 체계화시켜 신라의 통합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대산에는 오만 진신이 상주하게 되었고 관음과 지장 신앙의 반영을 통해 오대산신앙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지닐 수 있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불광출판부,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수백 편의 계송을 읊어주는
것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을 해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 법 구 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직접상담합니다.
개인지도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창공기도 20년 해돋이 기도 12년 자시기도 1000일
산벌 맞은 사람 , 신병환자치료
해가 돌아가는
약사부처님 가피력으로
손으로 만져 영적인
분들을 해결합니다.
017-257-6795

오랫동안 빙의로 고생
하시는 분. 천도재를 여러번
해도 효과가 없는 분.
각종 기도해도 안되는 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 분.
상담 후 고쳐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010-4646-7633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허리병 고치는 법
저 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화림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웰강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경기 이천 장호원)
011-729-6011

부전스님 모심
전통염불
배울 처사 구함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댐 부근)
010-9506-5706

신심있는 공양주
(나이 40~60대)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0-4901-492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397-8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방사)
02)732-3920
010-5219-7021

종무소 여직원 구함
근무지 : 경주, 안강지역
불심이 돈독하신 분
출퇴근 및 숙식 가능
010-5127-4088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실용의식 : 1 천수경
2 상단, 각단예불
3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1 천수바라
2 화의재바라
3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3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0-4746-6581.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심 와 기 도
● 천문을 열고 하늘과 통하는 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신심이 돈독하신
법당 보살님과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3579-644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85-462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적은 보시금으로
산사 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실 노스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북 문경 쌍용사)
010-8819-898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어려운 일 도와드립니다.
사람 찾기,
심부름 등 필요하신 일
도와드립니다. 신분비밀보장
써니 심부름센타
010-3117-9233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항암에 상황버섯과 + 불로초의 +
영지버섯이 + 숙취제거의 인진쑥과 +
소화력의 칡이 만났을 때
완성품(1팩= 1500원)
1박스 = 50팩(봉) => 75,000원
1박스 = 100팩(봉) => 150,000원
상황버섯 1kg = 12만원 (이메일 2880367@hanmail.net)
010-5615-0367
010-5669-0367

(사)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 개원식 및 부처님 삼존불 점안대법회
임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대웅전 중창 및 '동불'로 조성된 부처님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대웅전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하오니,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 대덕큰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라옵니다.
■ 일시 : 불기 2556년 12월 9일(음 10.26)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25-1번지 삼정사
(사)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 종정 적진당 지암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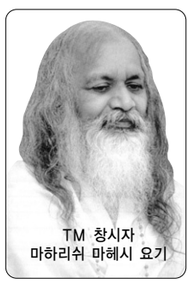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잠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고3병 퇴치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노사화합 / 창조적 경영 내면의 평화 /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되다"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때 : 12월 3일(월) 19시 30분
곳 : 신촌 공간더하기 회의실
(신촌역 2번출구에서 연세대 쪽으로 250미터, 던킨도넛츠 옆건물 6층)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4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문 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

불 자 정 보 26 | 916호 | 전면광고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90평
- 가액 : 7억5천
  응자3억포함
  주차 수십대 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극락전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 대지 154평
- 법당 15평
- 산신각 3평
- 방4,주방,
- 주변경관 수려함
- 가액: 1억5천만원

010-8585-138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시장(조방앞)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2번출구(5분) 버스는 중앙시장 앞 하차 (1분)
- 4층건물 중 2층 (25평)
- 전세 : 5백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1천만원(절충가능)
- 법당내부 : 삼존불과 신중탱화, 산신, 용왕탱화, 영단, 인등
- 기도, 법회, 상담의 최적지입니다.
- 몸만 오시면 모든 물품 그대로 인수 (시설비에 포함)

010-2848-363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 3분 교통편리
- 3층건물 중 2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500만원(가격절충가능)
- 스님개인 사유 • 급 양도하고자 함

010-8631-6333
02)482-7633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5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공동사용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단층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큰길변 교통좋은요지 남향 법당넓고,현대식시설생활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7억 5천

010-2503-077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역 부근
- 평수 70평, 상가건물 2층, 시설 A급
- 대웅전, 삼존불, 방3, 주방
- 보증금 2,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 안내

010-5622-4589

사찰 요양터 안내

- 위치 : 포항시 부근 도로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약 1480평 (평당 42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도심속의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3억3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732-52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잠실
- 최요지 2층, 약 60평
- 방2, 공양간 큼,
- 삼존불, 신중단, 탱화 소불 약 200불
- 전세 20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있음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강남면 화리 산43번지
- 임야(산) 약8000천평
- 앞에 마을이 보이고 양지밝아 요양시설, 절터로는 명당임
- 가액:8천만원

011-9583-31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 1 별도있음
- 보증금 포함 시설비 총 2500만원 월 40만원,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 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6317-5863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 전세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합해서 5,500만원
- 평수 90평, 3층 건물 중 3층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 용궁, 후불 등 부처님 모셔져 있음
- 법당 외 방 5개, 소불 200불

011-9556-8413
010-8384-7754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금오산자락임
- 면적: 실면적:634평(2,095㎡)
- 가용면적:약 1000평(도로부지 300평 포함)
- 특징: 현부지에서 지리산 천왕봉 자락이 맑은 날 육안으로 보임
- 광양만경제특구 진입도로 예정지로 유동인구 증가예상
- 가액: 6억 5천만원(가격절충가능) 원매자 직접 양도

010-7145-1083
010-6255-24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찜질방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현지답사 후 절충가능

010-4001-3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2억 5천만원

010-4910-6358
010-8612-6914

전원주택 및 기도처

- 함양군 서하면 노을정 주변
- 대지 230평
- 건물 하우징 목조주택 20평
- 주변이 화려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
- 전원주택 및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천만원

010-8828-371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아담한 단독주택 독채
- 법당1, 방3, 주방2, 다용도실2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1년 선세
- 시설비 1천7백만원

011-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 면적 846평 (500여평 확보가능)
- 법당 25평 부속건물 10평
- 산세수려함
- 5층석탑 2기, 산신, 용왕, 약사여래불 등
- 가액: 6억

017-738-87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2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가액 : 8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 100평
- 종각 30평 - 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포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 55억. 꼭 필요하실 분만 연락. 전월세 가능

011-1703-2770

가까운 포교원 (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상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건물 중 2층 • 가액: 2천만원
- 삼존불, 각단탱화, 방1, 화장실3개, 소불
- 지하 옥상사용가능

010-9350-8989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8차선대로변
- 3층건물 3층, 법당 25평, 방3개 공양간1, 화장실2
- 2층 옥상 마당같이 넓은 25평 사용
- 총평수 100평, 옥상에 하우스도 있음
- 설비: 영가단, 후부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불기 일체
- 가액: 전세 7천만원, 시설비 없음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864-1095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 위치: 대구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2,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부처님 지신사리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 토지 및 사찰 교환도 가능

010-6892-399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진평동
- 4층건물중 4층(80평)
- 방, 거실, 주방, 화장실완비
- 주변주차장 시설용이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10-6505-0385

포교원(급)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3층 90평
-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시설완비, 15년 이상된 포교원,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떠남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3679-1080

밀양암자안내

- 위치 : 밀양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 (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7억 (협의)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대지 533평, 법당 23평,
- 경관 전망 좋음, 구미 15분거리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절충가능)
-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010-4514-3136

간화선 수행

장휘옥 원장 · 김사업 부원장(오곡도 명상수련원)

"알면 뭐하나? 行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불교여성개발원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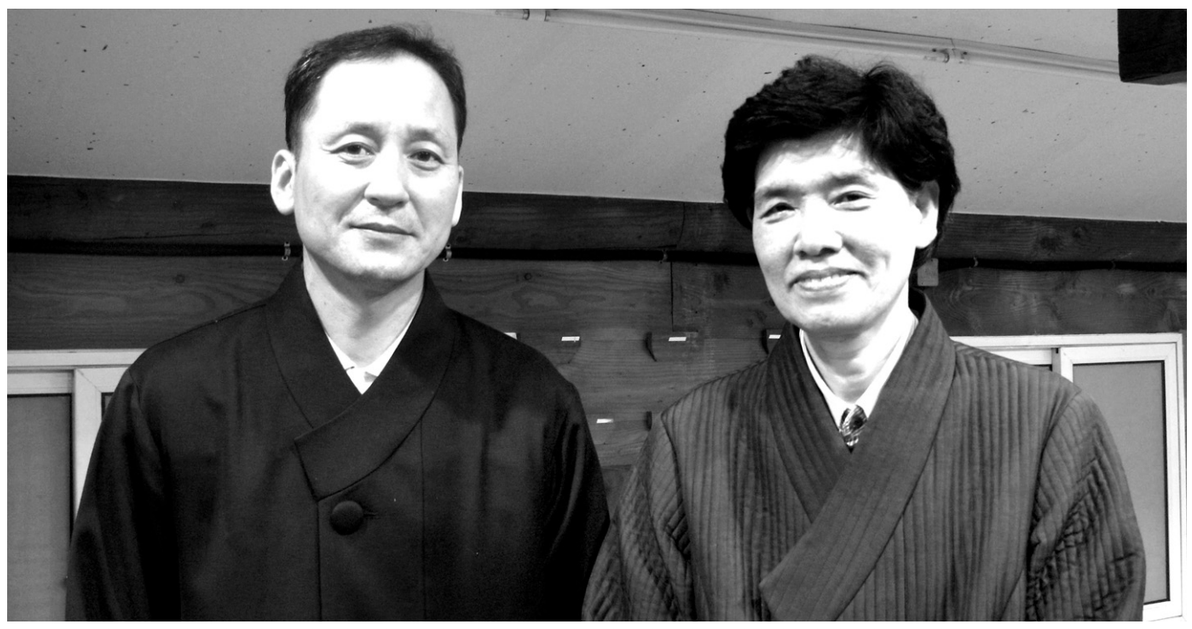
대학교수 자리를 버리고 경남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 오곡도(烏谷島)로 들어간 두 불교학자가 있다. 장휘옥 · 김사업 전 동국대 교수. 이들은 10년 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교 교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오곡도에서 900여 회의 독참을 해가며 치열한 선(禪) 수행에 매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1월 15일 오곡도 명상수련원을 운영하는 장휘옥 원장 · 김사업 부원장을 초청해 서울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특강을 열었다. 두 사람은 간화선에 대한 소개와 선수행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려줬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김사업 부원장은 …

서울대 인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회피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같은 과에서 유식사상을 세부 전공으로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에 유학해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로 재직했다. 공역 〈Ch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이 있다.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옥 원장(우)과 김사업 부원장은 간화선 수행을 종지로 하는 일본 임제종에서 선을 수행했다. 일본 임제종 16대본산의 하나이며 중국의 간화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수행하고 있는 고오가쿠지(向嶽寺) 전문 수행도량에서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안거와 동안거 수행을 여러 차례 했다. 이들은 청정하고 엄격한 수행으로 널리 알려진 미야모토 타이호오(宮本大峰) 대선사인 오가쿠지의 방장 스님으로부터 선문답을 통해 지도를 받았다.

장휘옥 원장은 …

부산대 사범대학 화학과를 나왔다. 같은 과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과학보다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에서 화엄사상으로 석사 ·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불교학회 이사,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불교학개론 강의실 1 · 2〉 〈해동고승전 연구〉 등 10여 권의 책과 〈화엄경 이야기〉 〈대승기신론 이야기〉 등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수행은 우리자신을 '포맷' 하는 것 (김사업 부원장)

서양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내고 3년 후 큰 시련과 난관에 봉착했다.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한 목사를 찾아갔다.

신학자는 목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는 "이 책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구원될 길은 없다"며 한권의 책을 꺼냈다. 그 책은 바로 3년 전에 신학자가 펴낸 책이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책을 아무리 잘 쓰고 무언가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잘 알고 있더라도 자기 것이 안된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알고 있다해서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거나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모 재벌 회장이 심각한 암에 걸렸다. 의사를 불러 살 가망성이 있냐고 묻자,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벌회장은 "종전의 스케줄대로 하겠다"며 사형선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회사 일에 매진하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

우리도 이 재벌회장처럼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던 대로 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삶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안다. 머리로는 다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다. 대학 강단을 떠나 오곡도라는 무인도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수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생활이 되도록 내 일거수 일투족을 교리 그대로 생활 하는 것이다.

간화선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현재 이 찰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순간이 전부다. 현 순간이라는 것은 무수한 과거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데에는 과거의 무수한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 순간은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씨앗이다.

그럼 이 현재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국의 유명한 선승가운데 대주혜해(大珠慧海) 스님이 있다. 이분의 제자가 대주혜해 스님에게 질문했다. "스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스님은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제자가 질문을 했다. "제가 그럼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스님보다 더 많이 먹고 잠도 더 많이 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님이 다시 "나는 밥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때는 잠만 잔다"고 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온갖 망상을 일으킨다. '나는 왜 이런 것을 먹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먹지' 등 밥을 먹으며 망상을 피운다. 그러나 대주혜해 스님은 잠을 잘 때도 푹 잔다. 100% 잠만 자는 것이다. 현재 순간을 100%산다 는 것이다.

오곡도는 일출 · 일몰 등 경치가 매우 멋있는 곳이다. 경치를 볼 때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경치에 빨려 들어간다. 이때는 경치를 보는 나도 없고 경치도 없다. 경치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다.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다. 다만 그 경치에 빠져드는 이 순간 밖에 없다. 대주혜해 스님이 공양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공양을 한 것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드는 것이다.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처님이나 조사님이 남긴 말씀이나 언행이다. 간화선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스승의 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 간화선 입문서로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밥 먹을때 밥만 먹자' 100% 집중
간화선 수행은 스승 꼭 필요해
"온전한 삶의 기술을 배우자"

학문은 독학이 가능할 지라도 선수행은 독학이 불가능하다. 스승이 꼭 필요하다. 올바른 스승 없이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마경(魔境)이라 해서 신비한 체험을 겪는다. 눈앞에 부처님이 보인다든지, 도깨비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등의 경험을 한다. 이 신비체험을 마치 깨달음의 전조로 여겨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좇게 되면 수행은 끝이다.

이런 것들을 스승이 잘 안내해줘야 한다.

우리는 화두를 머리로 풀려고 한다. 머리로 화두를 풀면 수행의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혼자하게 되면 수행자 자신은 모른다. 스승의 눈으로 이런 길을 열어줘야 수행에 진척이 있다.

수행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 길만이 유일하다. 이래저래 말이 필요 없다. 물 한 컵을 두고 '이게 무슨 맛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 머리로 상상만 가능할 뿐이지 실제로 마시지 않으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한다.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컴퓨터를 많이 하다보면 바이러스도 생기고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프로그램끼리 충돌도 하고 속도도 느려진다. 그럴 때 포맷을 한다. 원상태로 돌려버린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지워진다.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진다. 이처럼 선수행은 우리자신을 포맷 시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른다. 쓸데없는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등 자신안의 것을 포맷시키고 필요한 것만 놔두는 것이 선수행이다. 이렇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차를 마셔도 달라지고 길을 걸어도 달라진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섬에 있으면 상황에 맞게 살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고집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차나 마시고 자연만을 즐기는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다. 선은 열심히 현 순간을 100%열심히 사는 것이다.

100%를 살면 후회할 일이 있겠는가 (장휘옥 원장)

선(禪)이라는 것이 선방에 앉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생활이 받쳐주지 않아서…" "스승을 찾기 힘들어서…" 등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선을 할 수 없다. 전문적으로 해도 선이 되지 않는데 일상에서 선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오해다.

오곡도 수련원에 오는 사람들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다양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100% 사는 법을 배워라. 현실에 나가서 100% 성공해라" 이것을 가르친다.

간화선은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다 100%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식사만 100% 하지 않고 잡념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 100% 밥만 먹어보자. 밥알과 반찬 하나하나를 맛보면 그 특이한 맛이 있다. 그것을 느끼는데 그 밥이 맛있다, 맛없다고 할 리가 있을까. 거기에 왜 분별이 들어가나. 여러분이 사는데 저 사람은 밉다, 좋다 하는 것도 자기 취향이다. 그런 의식을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의 눈이 돼야 한다.

수련원에서는 100%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 부자가 돼라는 것을 가르친다.

무소유는 이 때 필요한 것이다. 안 갖고 일을 안해서 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필요하면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100% 하는 것이다. 열심히 안하면서 기대를 바란다는 것은 속된말로 도둑놈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실패가 오지도 않지만 실패를 해도 후회가 없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말은 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잡념을 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성깔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하지 말란 이야기다. 목숨 걸고 해 보십시오. 이생에 났으면 죽을 때까지 움직이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기어서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는가.

선 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줄 아는가?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기초도 닦지 않고 모양만 흉내 내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다. 투자도 하지 않고 얻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수행하다 보면 인간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느낀다.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 하나 없이 인간은 다 똑같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냥 어디서나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선이다. 오곡도 수련원에서는 오신채를 다 먹는다. 마늘, 양파 그 몸에 좋은 것을 왜 먹지 않는가. 오신채를 먹는 다는 것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곳은 쉴 날이 없다. 열심히 살기만 한다. 열심히 살다보면 남 헐뜯는 일도 번뇌도 없다. 100%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비교할 것을 갖고 오지 않는데 무엇이 괴롭겠나.

100% 사는 것이 연속되면 '내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하는 분별과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다.

수련원에서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그냥 주어진 일, 할 일이 있으면 '단지' 할 뿐이다. '단지' 라는 말이 선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단지 하고 있다가 바다와 하늘도 보고 저녁노을 보면서 차를 마셔보자.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타고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생긴다. 매사가 즐거운 것이다.

매사가 즐거운 것이다. 나쁜 쪽으로 보지도 않고. 내 성향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연세 드신 분은 수행을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수행하기 위해 삶을 저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종교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삶이 먼저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치열하게 부딪쳐야 된다. 헐렁하게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졸기만 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순간의 상태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현우경' 이야기 (48)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①

장님은 금강저를 주며 유언을 남겼다

잠부드비파에 보개라는 국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하늘과 해 달 산 바다 나무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여전히 아들은 생기지 않았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아들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라에 왕위를 이을 이가 없으면 천하는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힘으로 다투어 싸우면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니 그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매일 밤마다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 천인이 나타나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 성밖 숲 속에 선인이 있다. 선인은 몸이 황금빛이요, 복과 덕이 완만하여 아무도 따르지 못한다. 네가 진실로 아들이 필요하거든 거기 가서 간청해 보아라"

왕은 선인을 찾아갔다. 그는 선인에게 자신의 간절한 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 줄 것을 간곡히 청하자, 선인은 그 정성에 감동해 이를 허락했다. 이후 왕비에게는 신기하게도 태기가 있었다. 그리고 10달 후 태자가 태어났다. 몸은 자금색이요, 머리털은 검푸른 잘 생긴 아들이었다. 관상가를 불러 관상을 보게 했다.

"총명과 복덕이 아무도 따르지 못할 관상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관상가는 아들의 이름을 선사(善事)라고 지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둘째 부인에게도 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둘째 부인은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아이를 가진 동안 성격이 예민해지는 것은 물론 시녀들을 괴롭히며 왕비를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리고 열 달 후 그도 아들을 낳았다. 왕은 관상가를 불러 관상을 보게 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만 알뿐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만한 인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악사(惡事)라고 지어 주었다.

선사 태자 악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다. 선사 태자는 역시 마음이 넓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어느날 선사 태자는 궁궐 밖을 나갔다가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그는 왕에게 부탁해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삽화 · 강병호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태자는 바다 속 보물을 찾아 백성들에게 나눠 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뜻을 왕에게 전하니 왕은 간곡히 반대를 했다.

"너의 뜻은 참으로 대단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어찌하여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네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선사 태자의 뜻은 굽힐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물을 구해 올 것을 허락했다. 동생 악사는 형 혼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질투가 났다. 위험한 일이기는 했지만 자신도 함께 가서 공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에 형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형제가 같이 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형과 함께 잘 다녀오거라"

태자는 삼천 냥의 돈을 내어 천 냥으로는 양식을 준비하고 천 냥으로는 배를 마련하고 나머지 천 냥으로는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그리고 예지력이 있는 늙은 장님에게 길안내를 부탁했다. 그렇게 신하들과 보물을 찾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모아 보물섬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석달 열흘 배를 타고 드디어 보물섬에 닿았다. 모두들 얼싸안고 좋아하며 만세를 불렀다. 그곳에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었다. 모두들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 보물을 실어 날랐다. 일행들은 배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길 안내자였던 장님이 배 안에서 쓰러지고야 말았다. 죽음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선사 태자에게 금강저 하나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태자님! 은섬을 지나고 유리섬을 지나면 금섬이 나옵니다. 그곳에 당도하시어 이 금강저를 휘두르면 성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의주를 찾으십시오. 금은보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태자님을 지켜줄 여의주입니다. 꼭 찾아서 중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장님은 그렇게 눈을 감고야 말았다. 모두가 통곡을 하며 장님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지만 한 사람 악사만은 딴 곳을 보고 있었다. 마음 가득히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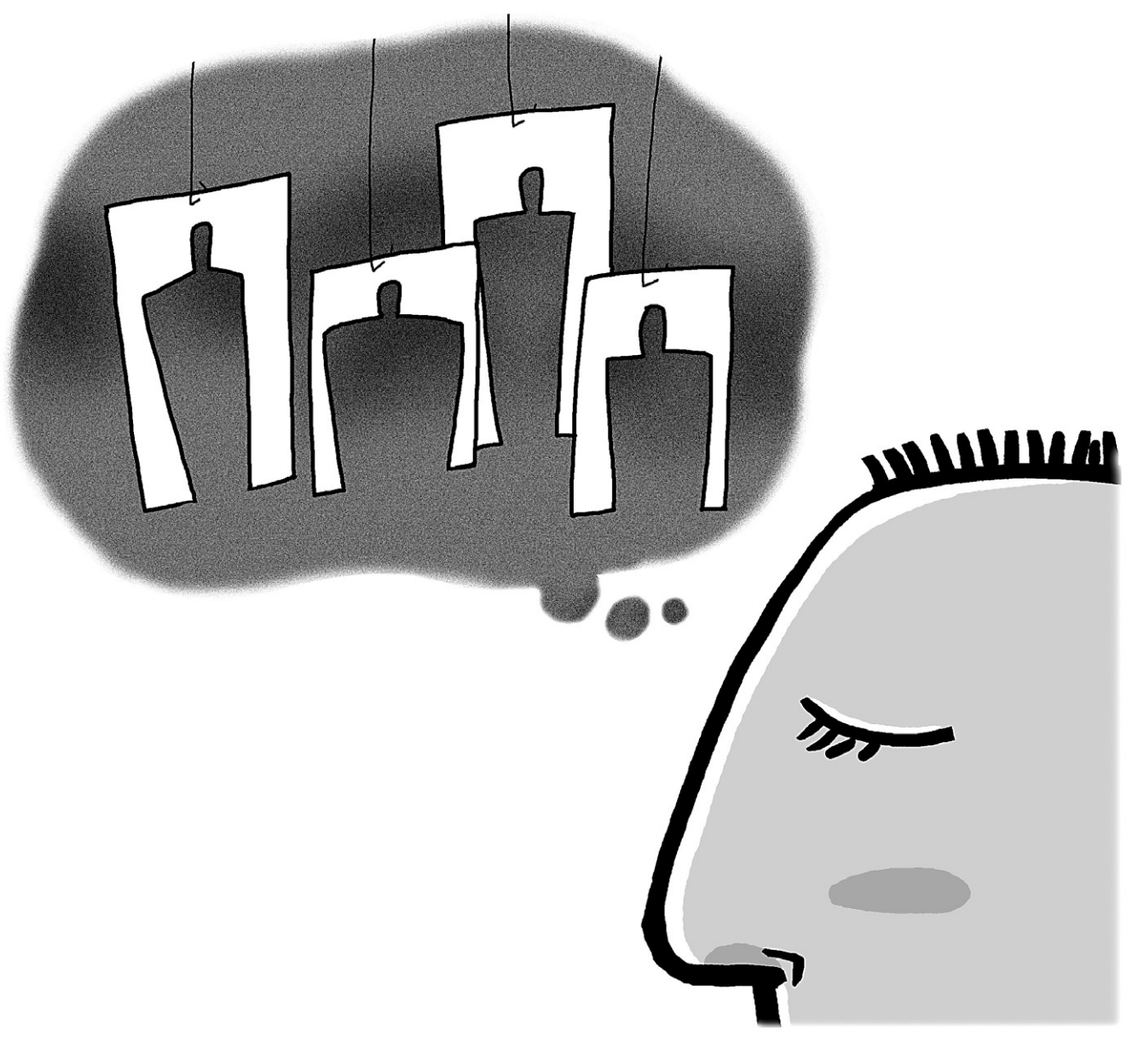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어떠한 哀苦라도 내 마음의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


그림 · 최주현

집이 부족해서 쌀쌀하고 추운 날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깥에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자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더불어 같이 한 찰나에 한자리를 하고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한 찰나에 한마음이 되고, 이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한자리에 도반으로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세세생생에 이 자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또 보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 · 하, 즉 사방이 총합해서 우리가 평등공법(平等空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모두를 합해서 공했다, 색(色)이다, 공(空)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고 혼자 걸어온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속에 내 자생중생들이 많은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없노라 하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외부의 모든 생활 자체가 혼자 사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이 세상 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여기에도 무척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즉 말하자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을 텐데 소켓트가, 이건 비유하는 겁니다. 소켓트가 맞지 않으면, 거기다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化)하게 만들어야 바로 그게 화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소켓트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은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즉 말하자면은 만약에 소켓트가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 때에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이, 미래에 올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는 지금 나오고 미래에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자체의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의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지고 과거의 업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녁에서 나오는 거 한 구녁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덮어놓고 쪼죠.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딴 데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맡기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아픈 거를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해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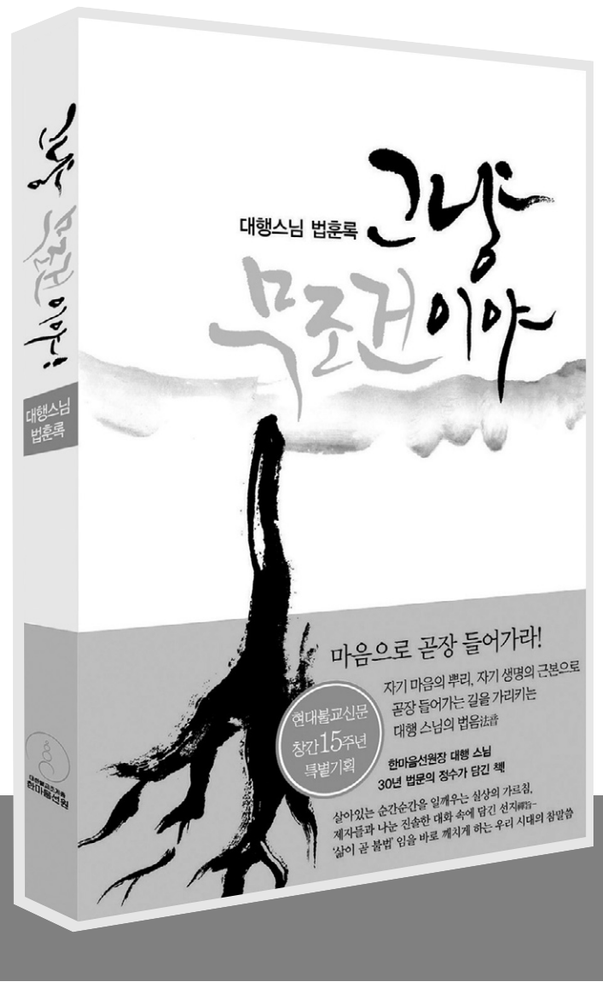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그 통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뚫어지듯, 뚫어서 그 나무의 속이 탕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았으면은 알을 까서 또 생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으면 알을 깔 수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위에서부터 직결이 돼 있고, 아래서부터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마음이 한데 찰나에 합쳤다가 찰나에 떨어지고 찰나에 합쳤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항상 둘이 아님을 뜻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법좌(法座)를 낼 수가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까닭에 바로 진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이 돼야만이 되지 과거의 나가, 즉 전의 조사(祖師)들은 부(父)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나가 바로 나의 조상이니까 '부'고, 현실의 나가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할 때,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둘이 아닌 도리의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상봉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전체 주장자와 주장자가 둘이 아니게끔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이론으로 법이 떨어지니까 될 수가 없고 법설이 될 수가 없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 음파가 한데 떨어지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자가 날 수가 없죠. 그걸 성자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건 생산해 내는 생산처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 마음 자체가 생산처가 되어서 바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한발짝 떼놓을 수 없는 창살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 29면에서 계속

런 법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듯이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소가 여러 마리가 끌려간다 이럴 때 '내가 그 당시에 봤다.' 이럴 때, 한순간에 한 찰나에 볼 때 한 찰나에 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된 주장자 자체는 바로 안테나가 돼서 일체제불의 마음이 찰나에 듭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게 되니 그 소들은 무명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한 치도 발을 떼 놓을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주머니에 있는 것이 어항 속에서 고기가 살듯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 어항 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내 자생중생들 그 자체 악업 선업에서, 그 업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첫째는 내 업 속에서 벗어나야 그 어항, 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구경경지(究景境地)에 이르게 되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즉, 자유인이란 부처를 뜻하는데 여래(如來)라고도 할 수 있죠. 여래라는 뜻은 우리가 한데 합쳐서 전체 돌아가면서 나투고 화(化)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즉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래의 부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선(生活禪)이자 여래선(如來禪)으로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래선!

전체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찰나에 꽃과 나와 둘이 아니게 그 소켓트가 맞기 때문에 딱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꽃은 화(化)합니다. 꽃이 화해서 내가 됨으로써 바로 나는 수많은 거를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기서 수없이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만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도리(禪道理)에서는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은 게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가 따로 없고, 또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을, 엊그저께도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는데 부처를 어떻게…, 개라면 뭐, 뭐라면 집어 죽여서 먹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모두가 내 마음속에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내면의 자생중생들과 외부의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항상 통해서 돌기 때문에, 항상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도 집어먹고 중생도 집어먹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집어먹고 저 곤충에 이르기까지 집어먹고 다 집어먹고 갖춘 그런 것이 장엄(莊嚴)이라고 합니다. 장엄을 갖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또 우연히도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 값을 주고 물건을 사 왔다면 돈을 준 사이도 없고 물건을 준 사이도 없이 우리는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프다든가 괴롭다든가 애고(哀苦)가 닥친다든가, 항상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업보성 또는 세균성, 이 모두가 바로 내 마음의 한생각에서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녹이지 못한다면은 항상 그것이 뭐 에누리없이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다면 카세트에 넣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다시 녹음을 해넣는 관계상 그 업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 · 하, 사방 모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그 세상이 또는 삼세(三世),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이 돼서 우리가 일심도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공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막혀서 나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왜 저런가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죠.

알고 보면 저 나무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옆의 나무가 스쳤다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 부러진 거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어째서 옆의 나무의 잘못입니까? 옆의 나무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원망이 돌아가고 증오가 돌아가고 이럼으로써 항상 악업에 말리게 됩니다. 선업 짓는 것은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악업에 속하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되 선업도 짓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이 또 좇고 악업을 짓게 되면 선업이 좇으니 이거는 평생에, 아니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놓아라.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 이 모두가 우리가 선업을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공덕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꼬나들고 내세워 봤자 절대로 그거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입니다. 그거는 공덕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바로 한 나무가, 전체가 살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모두가, 나는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으니까 '뿌리에서만이 내 지금 몸뚱이, 가지, 잎새 모두를 살리고 있구나!' 하고 살아야만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방석을 내 방석대로 그대로 안정하게 찾고 바로 누구의 원망도 없이 아주 그 선법(禪法)을 그대로 잘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나무라면은 나무의 잎새와 가지와 나무가 공기와 태양빛을 흡수하면서 뿌리에서는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리면서 또는 위에서는 그런 거를 흡수해서 또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텔레비전을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우리들 살림살이와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그 작용하는 작용법과 뭣이 다릅니까? 차원이 낮고 높고 그것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 있다고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모두 과거의 수억겁 광년 전부터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화(化)해서 진화되고 진화돼서 이렇게 나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기 이전에, 벌레 하나를 봤을 때도 업신여기기 이전에 내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속을 볼 때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의식과, 그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자체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이렇게 모습을 해 가지고 진화됐기 때문에 그놈들을, 그 자생중생 놈들을 안고 우리는 집합소가 돼서 집이 돼 주고 있다. 심부름꾼이 돼 주고 있다. 역시 관리인이 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을 먹는다 하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니구나. 바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의식을 다스리면서 밥 한 그릇을 먹되 너희는 전부 공(空)해서 한마음이니까 바로 둘이 아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의해서 모두가 작용하고 돌아가는 바로 나인 것이다. 이럴 때 바로 그 속에서 의식들도 '나를 내가 죽일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이, 의식이 듭니다. 그거는 의식들이기 때문에 이 촉각으로 인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두뇌는 둔하지만 그 자생중생들이 한마음이 돼 주면은 아주 촉각의 두뇌가 아주 성숙해집니다, 물리가 터지고.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는 모두가 가설이 돼 있다. 가설이 돼 있어서 우리 이 마음에 그렇게 통하면 직결이 된다.

자생중생들이, 즉 말하자면은 유마힐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내 자생중생들이 병이 났으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지, 자생중생들이 건강한데 내가 왜 병이 납니까? 자생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인 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제각기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수라장이지 다른 게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의 의식이 바로 지금 지구의 레이다망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우주의 법계입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의 법계처럼 이 레이더망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통신할 건 통신하고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안에서 통신을 받아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대기권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을 조절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모든 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내 한마음이 안으로 그 뭇 중생들을 다스리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려고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오는 것대로 마다하지 말고 그거를 공부하는 데 생활을 재료로 삼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 되하고 하는 말 되하고 하는 거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너무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이 요만한 데다가 들이부으면 그게 담겨 있습니까? 또 요만한 도라무통에다가 우주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한데 쓸어붓는다고 해서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다 흘러 버리지. 여러분이 차원이 높을수록 아마 그릇은 크고 담기는 거는 여여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자리에서 생기는 그 그릇이 크고 작은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쳐서 부처님이 됐다 할지라도 한 그릇의 부처님이지 두 그릇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있다고 했다면 부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개개인으로 돼 있다면 여래(如來)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제각기 모두 돌아간다면 여래선(如來禪)이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외부의 모든 것이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면도 내 개개인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아이구!" 예전에 선지식의 제자들께서 "나는 아주 시끄럽고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산으로 토굴을 묻고 올라가야겠습니다." 고 하니까 "너 그러면 땅도 딛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하하, 남의 꽃을 보고 좋아하지도 말고 아예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해라. 아이, 토굴을 짓더라도 남의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야 하니까 그것도 남의 거를 왜 갖다가 짓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에 홀연히 깨쳐서 토굴을 묻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하고
안테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선심공약' 구업 될까 걱정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대선정국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세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公約)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나같이 장밋빛 일색들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발표되다보니 사실 누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도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이념적 지향점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민주화 사회에서 무상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말 그대로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어느 누가 이를 마다 할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의 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현실화기 위해서는 집권 5년 동안 최소 75조원에서 최대 170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금인상과 같은 그나마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연간 8조 500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 중에 적어도 30조원에서 많게는 120조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한 여야 세 후보의 대답은 한 결 같이 궁색하기만 하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기 일쑤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발음은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공약(空約)'이 될지도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쏠려 있을 뿐 차후의 실질적인 절차들은 그야말로 '나중에 두고 볼 일' 쯤으로 간주하고 있는듯하다.

어떤 후보는 일단 저지르고 난 뒤 당선되고 나면 소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상황의 변화와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적당하게 수정 또는 유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글자 그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거운 책임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공약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공약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듣기 좋은 빈말 정도로 치부되거나 양해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곧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동일시되는 거짓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날의 세계는 바야흐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행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른바 '윤리라운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윤만 추구하던 사기업들도 이제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윤리'의 개념을 서둘러 접목시키고 있는 추세는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부르짖는 소비자들의 세련된 지출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지방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벌써부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덕적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만 더, 불교윤리에서는 몸(身)과 입(口)과 마음(意)으로 짓는 업(業)의 과보를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공약은 최소한 남을 현혹시키는 행위인 '기어(綺語)' 내지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망어(妄語)'의 '구업(口業)'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야의 대선후보자 가운데 '불자(佛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왠지 그들이 받을 과보가 걱정되는 것은 한 순진한 불자의 철없는 자비심 때문일까?

사부대중 칼럼

"종교 불신시대, 부끄럽습니다"



주경 스님
서산 부석사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11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종교와 불교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 5.4%,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불신 76.6%, 종교 본연의 치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시각 46.9%, 한국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덕목은 '도덕성'이 32.1%로 1위이다.

95%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여론조사의 과정이나 내용에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꼼꼼하게 설문지를 들여다보니 설문에 대한 답문항의 순서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종교의 순서를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부여된 차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는 없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만의 함정이 있다. 자신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이다.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승려와 사제와 목사들 앞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도들이다. 또한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도들은 독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에게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절대자나 절대적인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여 종교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와 성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함정에 빠져들곤 한다. 독실한 신앙인도 때로 함정에 빠진 종교인들의 위선과 가식, 교만함과 무지함에 고개를 젓기도 한다. 그러나 다만 표현하지 않고 외면할 뿐이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함정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에 의지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법당과 성전에서 "믿습니다"는 말을 수없이 외치고 외우는 사람들이 보내는 신뢰가 5.4%라는 것에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민단체(NGO)에 대한 34.3%의 신뢰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과 신자들이 보이는 냉정하고 싸늘한 속마음인 것이다.

문득 '백성은 약하지만 이길 수 없고, 백성은 어리석지만 속일 수 없다'는 옛말씀이 가슴을 때린다.

자비와 사랑을 외치며 이웃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종교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기운이 맑고 따뜻하지가 않고, 도덕적으로 청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 신자들과 국민들은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는 것이다.

자신을 속일 수 없듯이 대중 또한 속일 수 없다. 대중의 눈은 자신의 눈보다 더 넓고 깊게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수행자와 성직자들은 남의 잘못이라도 자신이 대신 져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뜻이 그러하고 신자들과 대중들이 바라는 바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잘못과 허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세상과 사람, 생명을 위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교세를 키우기 위한 큰 건물과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세속적 욕망과의 타협이 종교를 불신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 스님들은 세상에 혼란과 고통이 생기면 자신들이 수행을 잘 못한 까닭이라고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에 간절한 힘을 더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한국불교를 1700여 년 동안 이끌어 온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돌아선 신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저 하나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깊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종교와 세상의 양쪽에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社說

불교계 근대문화유산 발굴 나서자

불교계가 근대 등록문화재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추진·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부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괘불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올릴 예정이다.

그간 불교계는 근대문화유산에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불교문화재가 한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을 정도로 유구한 시간을 지녔고, 그 가치 또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근대 불교문화유산들은 '일제의 잔재'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3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시작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기독교였다. 12년 동안 시행된 사업에서 총 5백여 건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그중 39건이 기독교 유물, 유적들이다. 반면, 불교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 사업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은 그간 미비했던 불교계 근대문화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불교계도 전향적인 역사 인식 개선과 관련 연구를 통한 근대 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까닭도 여기 있다. 영광보다는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역시 근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하다. 근대는 현대를 잇는 연결고리와 같다. 근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20주년 맞은 불교언론문화상

우리는 지금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20년 전 신문 방송을 포함해 다섯 개 매체에 불과하던 불교 언론도 이제는 10여개로 늘어났다. 또한 불교계의 이슈들은 과거와 달리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등 전파력과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 또한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종사자들도 불교를 포교하고 홍보하는데 언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교계 언론이 급성장하고 불교계 동향이 일반에 파급 효과를 갖게 된데는 불교언론문화상의 역할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이런 불교언론문화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명실공히 불교계의 대표 언론상인 불교언론문화상은 한 불자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그가 바로 환속 후 KBS방송작가로 살던 故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장이다.

언론의 종교편향 행위를 감시해 오던 김 회장은 불교계 언론 발전을 위해 1992년 '보리방송문화상'을 만들었다. 이 상은 1993년(1회)부터 2004년(12회)까지 같은 이름으로 방송부문만 시상해 오다, 2005년(13회)부터 불교언론인상과 신문 및 출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시상 내역을 넓혔고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운영하며 이름을 불교언론문화상으로 바꿨다.

그동안 2007년 대상 '차마고도', 2009년 대상 '출가, 그 후 10년', 2008년 신문부문 최우수상 하늘이 감춘 땅,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BBS거룩한만남 900회 등 불교를 널리 알린 작품들을 포함해 수상작들만 해도 120여개에 달한다. 불교언론인상에도 前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석성우 불교TV 회장 스님, 이은윤 前 금강불교신문 사장, 이계진 前 국회의원,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 이사 등 8명이 수상했다.

원래 상벌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며 불교언론문화상은 훌륭히 운영돼 왔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치주질환 예방
▶ 충치예방
▶ 치태제거
▶ 구취 제거
▶ 시린 이 개선
▶ 미백효과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서화, 산수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 골동품

"제1회 전사련 200개 회원종단 대표자 출품 작품전시회"

200개 회원종단 가입기념

- **일시 :** 2012년 12월 2일~10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 두산위브파빌리온 회의실(종로구 수송동 58번지)
- **전화 :** 02)2198-5022~4/ FAX:02)2198-5025/HP:010-4167-3666



△전사련회장 무산스님출품(고려수월관음도불화 120cm×300cm)



법현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보각스님 도자기출품



재단법인달마선원 청광이사장 독수리 민화작품 출품



◁성철스님 포대화상 공예품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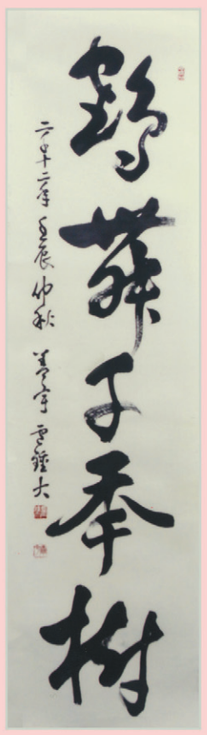
이풍호 사진작가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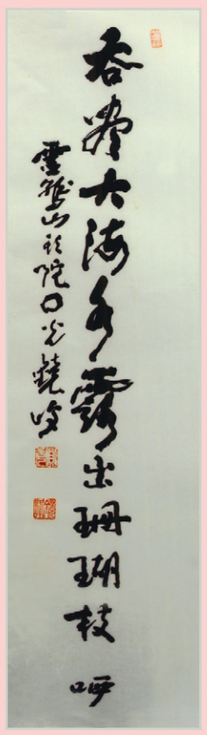
◁천종사 송창일사장 청동 화로 출품



구일화백 수묵화 출품



선우 서예 출품



경봉스님 작품 출품



동산스님 작품 출품



도광법사 도자기출품

▷무상스님 행운달마도 출품







이풍호 사진작가 출품

www.kntga.or.kr 사단법인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전/국/주/문/전/화 02)2198-5022~4